

M15-11/1989. 12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11

近郊마을의 社會經濟構造
大田市 杞城洞 增村마을 事例

鄭 起 煥(責任研究員)
吳 乃 元(責任研究員)
許 壽 塚(研究員)
閔 尚 基(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리말

당 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촌사회의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1985년부터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구와 인구, 경제활동,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공간구조, 의식, 가치관 등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사례연구사업이다.

이 보고서는 사례연구마을의 경제·사회·정치·문화 및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마을별 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을 사회의 한 단위로 설정하고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마을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제시하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1945년 이후 자료와 1985년도 이후 본 연구진이 조사한 기초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종국적으로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애쓴 분들이 많으나 특히 이 연구사업에 처음부터 적극 협조해 주신 대전직할시 서구 기성동 증촌마을 주민들과 대전직할시청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연구를 추진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의 분석·정리·보관 및 발간에 협조해 준 전산실과 편집실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1989.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영진

목 차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1. 연 혁	2
2. 자연환경	3
3. 기후조건	6

제 2 장 인구 및 가족 구조

1. 가 구	9
2. 인 구	15
3. 가족구조	20

제 3 장 경제활동 구조

1. 농지소유 및 이용	26
2. 작목조직과 생산기술	39
3. 노동력 구조와 이용	46
4. 겸업화와 농외활동	53
5. 가계구조	56

제 4 장 사회구조

1. 사회집단	70
2. 사회망과 지도력 구조	99
3. 종교 및 문화	105
4. 문화생활 및 에너지 이용	111

제 5 장 공간구조

1. 주민생활권	116
2. 마을 공간구조	123

부 록	151
-----------	-----

표 목 차

제 1 장

표 1- 1 증촌마을의 행정구역 변천	3
----------------------	---

제 2 장

표 2- 1 연대별 전입·전출자 현황, 1945 ~ 84	10
표 2- 2 전출입 가구의 직업구분, 1945 ~ 84	11
표 2- 3 가구의 연도별 변화	12
표 2- 4 가구 구성의 변화, 1985 ~ 88	12
표 2- 5 가구의 성격변화, 1985 ~ 88	13
표 2- 6 전출 가구의 현황, 1985 ~ 88	14
표 2- 7 전입 가구의 현황, 1985 ~ 88	14
표 2- 8 연령별, 연도별 인구증감	16
표 2- 9 인구증감 요인별 변화	17
표 2-10 연도별 전출입자의 연령분포	18
표 2-11 단신 전출입자의 전출입 목적	19
표 2-12 전출입자의 전출입 후 주거지	19
표 2-13 독신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20
표 2-14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장 현황	22
표 2-15 가족유형	22
표 2-16 가구원수별 가구수	23
표 2-17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24
표 2-18 출타목적	24
표 2-19 가족의 분산정도	24

제 3 장

표 3- 1 1945년 전후 경지소유 구조	27
표 3- 2 1945년 전후 경작규모 계층	27
표 3- 3 1945년 전후 가구별 경지면적	28
표 3- 4 호당 평균경지면적, 1945	29
표 3- 5 농지분배 실태	29
표 3- 6 경지소유규모 계층의 변화	30
표 3- 7 농지소유 구조	31
표 3- 8 1987년 경지정리에 따른 경지면적 변동과 사업비 부담	32
표 3- 9 농지소유 변동 가구의 개황	33
표 3-10 평균경지면적의 변화	33
표 3-11 경작규모계층의 변화	34
표 3-12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34
표 3-13 탈농·이농 가구의 변동내용	35
표 3-14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988	36
표 3-15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988	36
표 3-16 임차면적의 변화	37
표 3-17 임대차에 의한 농가구분	37
표 3-18 임차농의 임차면적 규모	37
표 3-19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38
표 3-20 부채지주의 농지취득 경위, 1988	38
표 3-21 임차료 지불형태	39
표 3-22 임차료 지불액, 1988	39
표 3-23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43
표 3-24 경종작부체계, 1986	44
표 3-25 가축 사육두수	44
표 3-26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47
표 3-27 영농종사자수	47
표 3-28 영농종사자 증감 원인	48
표 3-29 영농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48

표 3-30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1988	48
표 3-31 고용노동일수	50
표 3-32 농업노동 고용관계에 따른 농가 구분	50
표 3-33 농업노임	51
표 3-34 농기계 보유	52
표 3-35 수도작 기계작업률	52
표 3-36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53
표 3-37 비농업가구의 내용, 1988	54
표 3-38 겸업농의 농외활동 내용, 1988	55
표 3-39 비농업종사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1988	55
표 3-40 농업고정자산 투자액	57
표 3-41 농업투자농가의 개황	58
표 3-42 농업외투자	59
표 3-43 내구소비재 구입	59
표 3-44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 1988	60
표 3-45 교육비 지출액	61
표 3-46 의료보험 여부	61
표 3-47 의료비 지출	62
표 3-48 상병과 의료비 부담 내역, 1988	62
표 3-49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63
표 3-50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63
표 3-51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64
표 3-52 이전수지, 1988	64
표 3-53 호당 평균부채	65
표 3-54 부채규모별 가구수	65
표 3-55 부채없는 가구의 개황, 1988	66
표 3-56 고액부채 가구의 개황, 1988	67
표 3-57 호당 평균 저축액	67
표 3-58 순부채·저축 규모별 가구수, 1988	68

제 4 장

표 4- 1 사회집단의 조직 현황	71
표 4- 2 종종별 구성과 구성원 수	73
표 4- 3 시제일과 종회일	76
표 4- 4 저축계의 조직현황	85
표 4- 5 마을금고의 부채 및 자본현황, 1986.12	89
표 4- 6 마을금고와 농협의 예탁 및 대출금리의 비교, 1987	90
표 4- 7 위친계 조직현황	93
표 4- 8 친목계 조직현황	96
표 4- 9 또래적 의사교환망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특성	103
표 4-10 소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지도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104
표 4-11 종교별 가구수와 신앙생활	106
표 4-12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112
표 4-13 난방 및 취사연료	114

제 5 장

표 5- 1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1972 ~ 88	116
표 5- 2 증촌주민의 생활중심지별 주요시설	117
표 5- 3 학생들의 취학실태	120
표 5- 4 통혼권의 변화, 1945 ~ 88	121
표 5- 5 주택의 향배, 1988	127
표 5- 6 연대별 주택 건축 현황	128
표 5- 7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1988	135
표 5- 8 방수별 주택수, 1988	135

그 림 목 차

제 1 장

그림 1- 1 증촌 마을의 위치도	4
그림 1- 2 증촌 마을의 지형도	5
그림 1- 3 대전 지방의 기온분포, 1986	7
그림 1- 4 대전 지방의 강수량분포, 1986	7

제 2 장

그림 2- 1 연도별 가구의 변화, 1945 ~ 85	9
그림 2- 2 연도별 전출입 가구의 추세	10
그림 2- 3 인구구조의 변화, 1985 ~ 88	16

제 3 장

그림 3- 1 사례농가의 소사육 상황	41
----------------------	----

제 4 장

그림 4- 1 무송 유씨의 문중 조직	74
그림 4- 2 증촌의 사회망 구조	100
그림 4- 3 사회망 I	101
그림 4- 4 사회망 II	101
그림 4- 5 사회망 III	101
그림 4- 6 증촌의 지도력 구조	104

제 5 장

그림 5- 1 증촌 주민의 시장권	118
--------------------	-----

그림 5- 2 통혼거리별 혼인건수	122
그림 5- 3 건축물별 주택배치도, 1988	124
그림 5- 4 1970년대 이후 증가된 건축물, 1988	125
그림 5- 5 성씨별 주택분포도, 1988	126
그림 5- 6 A형 주택, 1988	129
그림 5- 7 B형 주택, 1988	131
그림 5- 8 C형 주택, 1988	132
그림 5- 9 D형 주택, 1988	134
그림 5-10 새마을회관, 1988	136
그림 5-11 마을 도로망, 1988	138
그림 5-12 마을 도로망, 1985	139
그림 5-13 마을 도로망, 1930년대	140
그림 5-14 간이 상수도망, 1988	142
그림 5-15 하수도망, 1988	143
그림 5-16 농경지의 분포, 1988	145
그림 5-17 농경지의 분포, 1985	146
그림 5-18 농경지의 분포, 1930년대	147
그림 5-19 종교·문화 공간, 1988	149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증촌마을은 대전·근교에 위치한 행정리¹⁾로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전시내에서 서남쪽으로 20km 떨어진 이 마을은 대도시의 근교지역 이면서도 근교지역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도시근교의 오지지역 (urban shadow area)으로 남아 있었다. 지형적으로 이 지역이 산간지²⁾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마을은 폭 50~70m의 벌곡천으로 외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8년, 마을앞의 伐谷川에 폭 4m의 콘크리트 다리가 가설되어 외부사회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특히 1985년에 마을앞 1.3km 떨어진 대전-벌곡간 639번 지방도로가 포장되어 대전시내버스가 증차 운행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대전 왕래가 편리해져 도시근교지역으로서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 증촌마을은 1989.1.1로 대전직할시 서구 기성동 13통(統)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 보고서는 “統으로서의 증촌마을” 이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증촌마을을 편의상 행정리로 기술한다.
- 이 마을이 속해 있는 대전시 기성동의 경지율은 17.9%에 불과하다.

1. 연 학

증촌마을은 茂松 廣氏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씨족마을이다. 1988년 현재 57호 중에서 무송 유씨집안이 49호에 이르며 타성씨는 8호³⁾에 불과하다. 무송 유씨들은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炳字의 14대조인 雄字祖上이 임진왜란⁴⁾을 피하여 충청북도 옥천에서 이주해와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웅자의 후손들은 증촌과 인근마을인 五里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무송 유씨 鎮峩派를 이루며 宗中契를 조직 운영해 오고 있다.

증촌마을은 대한제국시대에는 충청남도 진잠군 下南面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충청남도 대전군 杷城面 평촌리로 개편되었다. 이때 기성면은 진잠군의 上南面, 下南面, 北面, 東面의 일부와 連山郡의 벌곡면, 公州郡의 懸內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으며 평촌리도 진잠군 하남면의 增村里, 溫洞, 坪村里, 五里洞, 三亭里, 龍村里 및 상남면의 項洞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개편한 행정구역이었다.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대전군을 이루고 있던 나머지 지역이 大德郡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증촌마을의 행정구역은 대덕군 기성면 평촌리 증촌부락으로 개편되었다. 1948년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 행정구역은 그대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승계되었고 동법에 근거하여 평촌리의 증촌마을은 평촌 3리라는 행정리로 분리되었다. 1989년 1월 1일 증촌마을은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거 대덕군 전체와 함께 다시 대전직할시로 편입되었다.

3) 그러나 이중 3호가 무송 유씨 집안과 결혼으로 맺어진 집안 간이며 1호는 모친이 유씨 집안에 改嫁한 인연으로 입주한 경우이다. 나머지 성씨는 全씨 2호, 白씨 2호, 郭씨 2호, 鄭씨 1호, 金씨 1호 등이다.

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마을의 역사는 300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증촌마을의 행정구역 변천

시대	연대	행정구역	특기사항
대한제국	1910년이전	충청남도 진잠군 하남면 증촌리	
일제시대	1914~35	충청남도 대전군 기성면 평촌리(증촌)	진잠군, 공주군, 회덕군, 연산군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전군 신설
	1935~45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평촌리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대전군의 잔여지역이 대덕군으로 개편됨.
과도기	1945~48	"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승계
대한민국	1948~88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평촌3리	행정동(평촌3리) 설치
	1989 현재	대전직할시 서구 기성동 13통(증촌)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덕군 전체가 대전직할시로 통합

2. 자연환경

증촌마을은 해발 270m의 龍山을 뒤로하고 마을 앞으로는 폭 50~70m의 벌곡천이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背山臨水의 터에 동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은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녹지(green belt)의 외곽지대에 속한다. 따라서 증촌마을의 방아재 일부와 마을주변 임야의 대부분이 자연녹지대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증촌마을이 속해있는 기성동의 북부는 낮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지만 남부는 노령산맥의 영향을 받아 산간지대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기성동의 임야율은 66.0%로 높은 편인데 경지율은 17.9%로 낮다.

기성동의 남부를 이루는 坪村, 牛鳴里, 五里, 壯安里 등에는 해발 250~300m 높이의 산봉우리들이 이어져 있으며 그 사이로 벌곡천, 梅老川 등이 흘러 黑石里에서 만나면 여기서부터 기성동의 북단을 흐르는 甲川이 되어 흐르다가 다시 錦江에 합류한다.

증촌 앞을 흐르는 벌곡천은 論山郡 벌곡면에서 발원하여 산 계곡을 돌아흐르며 급류를 만들기 때문에 증촌 둘의 남단 제방을 무너뜨려 여러차례 제방과 농경지의 모

그림 1-1 증촌 마을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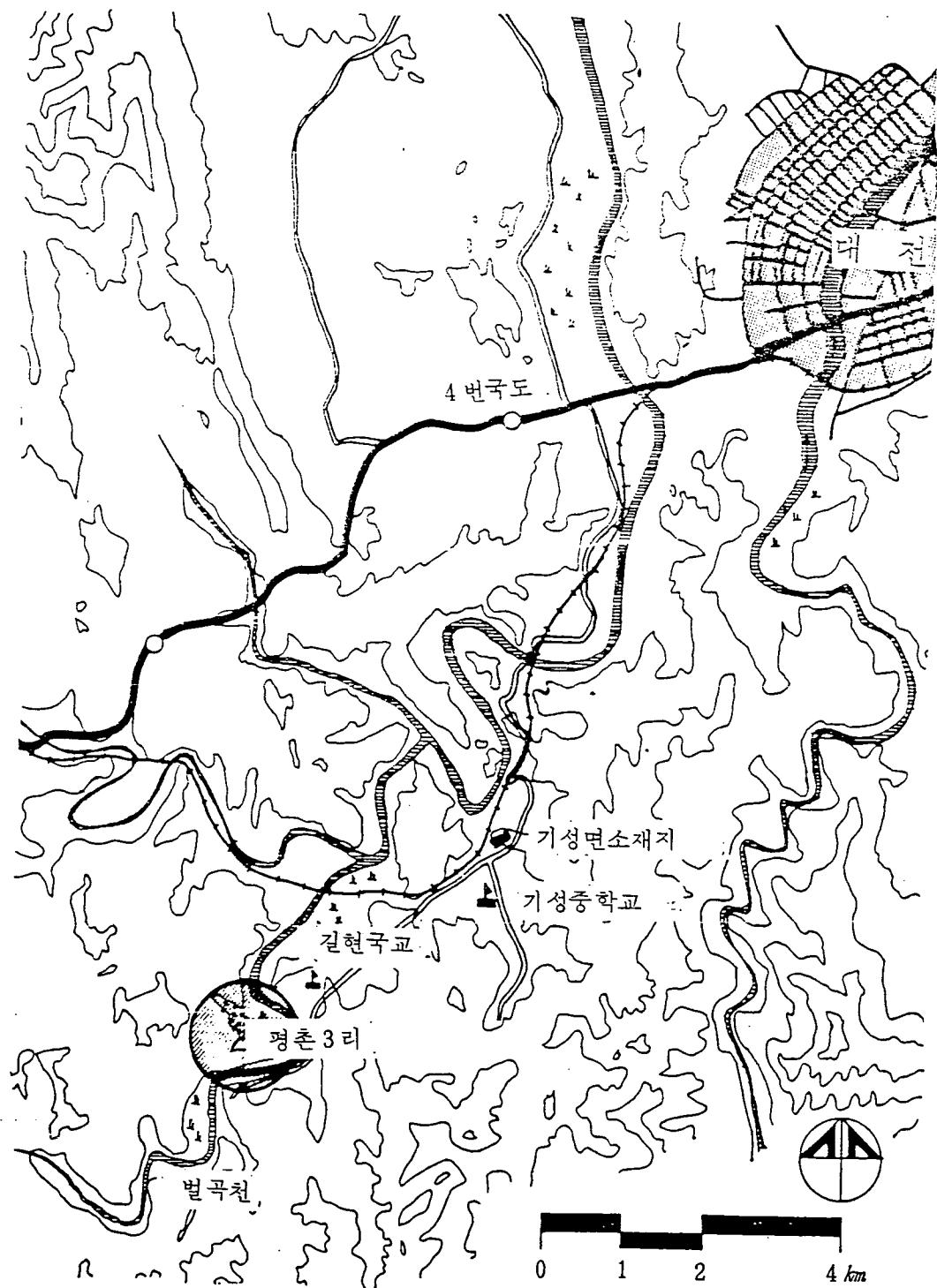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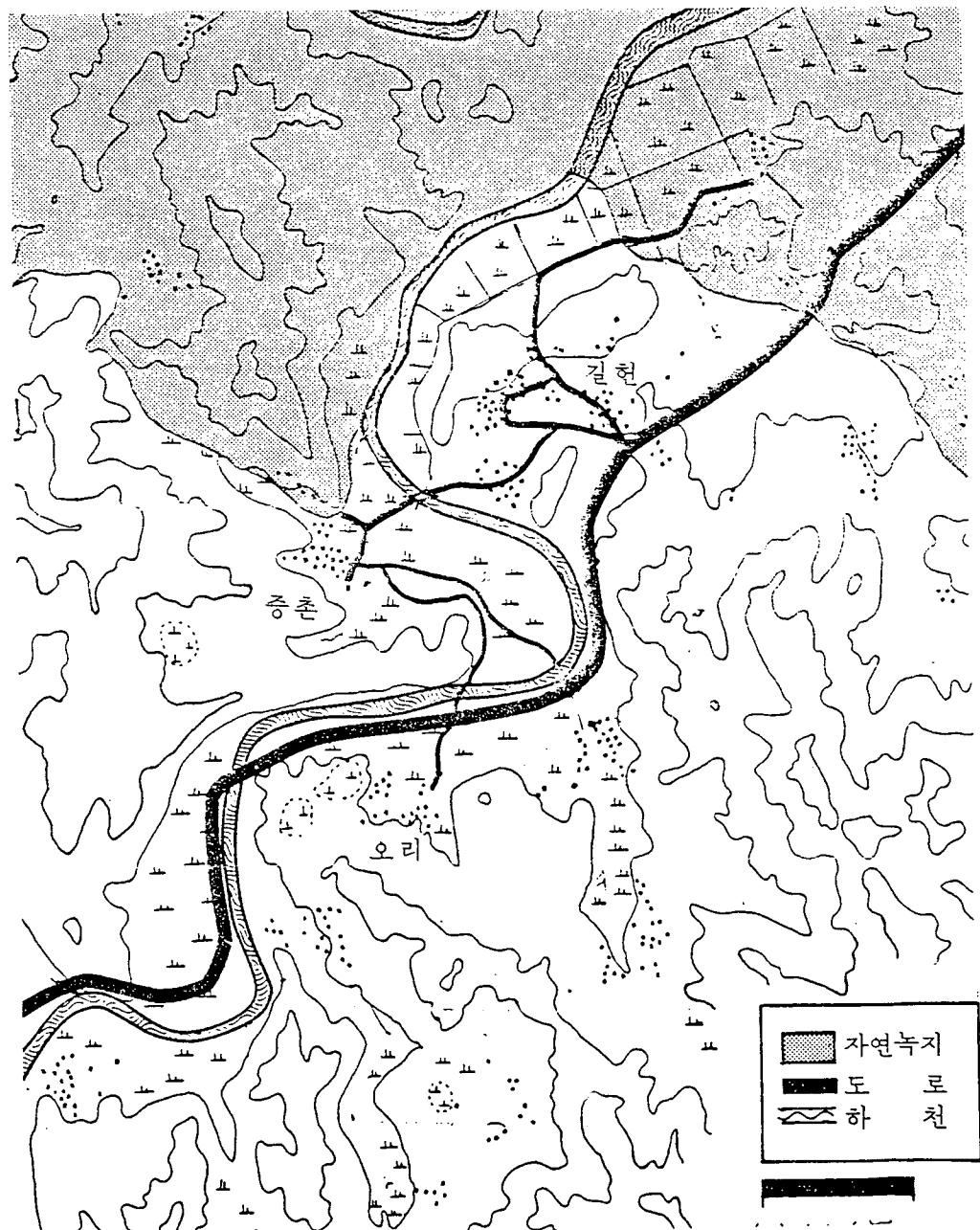


그림 1-2 증촌 마을의 지형도



습을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벌곡천의 제방수축과 강물의 농업용수 이용은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맺어 왔다.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홍수는 庚午年(1930)의 대홍수로서 마을앞 벌곡천의 제방이 대부분 유실되고 河床도 크게 바뀌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수차례의 제방정비, 狀정비 등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증촌 뜰 토양은 벌곡천 유역에 퇴적된 사양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하여 답리작재배의 적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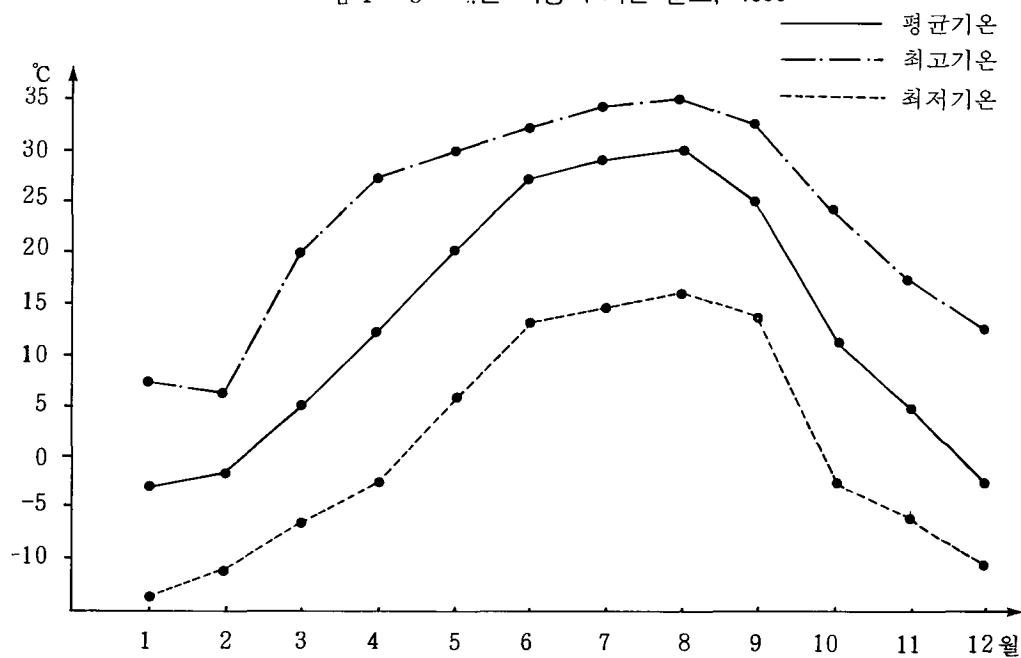
3. 기후조건

대전시는 연 평균기온 12.1°C 를 유지한다. 1981~85기간 중 최고기온의 평균은 35.3°C 였으며 최저기온 평균기록은 14.8°C 였다. 같은 기간중 연평균 강수량은 1290.8 mm로서 강수량의 48%가 7, 8, 9월의 3개월에 내리는 반면 겨울철인 12, 1, 2월 사이에는 7.5%의 강수가 기록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첫서리 내리는 날은 평균 10월 16일이었고 마지막서리 내리는 날은 평균 4월 20일이었다. 한편 맑은 날 일수는 1986년의 경우 234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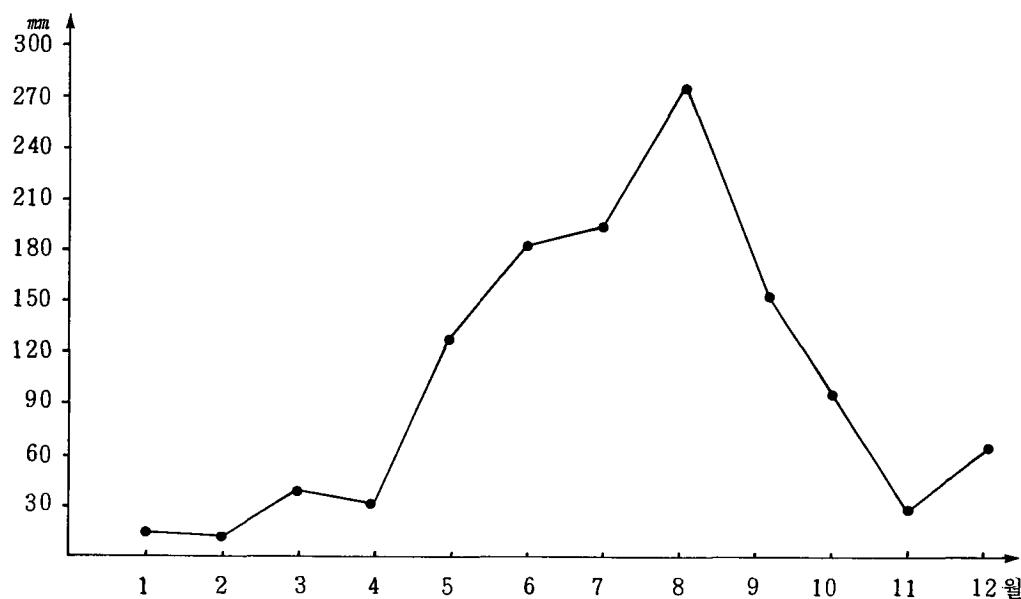
이와같은 기후조건과 지형조건으로 해서 증촌마을은 수도작이 중심적인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배수가 양호한 논에 마늘 등의 답리작재배가 일반적이다.

그림 1 - 3 대전 지방의 기온 분포, 1986



자료 : 대덕군 통계연보 (1986)에서 재작성.

그림 1 - 4 대전 지방의 강수량 분포, 1986



자료 : 그림 1 - 3 과 같음.

제 2 장

인구 및 가족구조

증촌마을은 무송 유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씨족마을이기 때문에 가구의 이동이 비교적 적었다. 1945~88 기간 중 증촌마을로 전입한 가구는 대부분이 무송 유씨 종중토를 소작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였고 일부가 인근 오리 등에 거주하던 무송 유씨가 친척을 따라 또는 분가의 형태로 전입해와 정착했다.

1945~88 기간중 증촌마을을 떠난 가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 부류는 무송 유씨 종중토를 소작하기 위해 전입했던 가구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수년 후에 다시 도시로 떠난 가구들이다. 이들은 농토를 소작하러 증촌마을에 입주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산지기 또는 유씨 조상묘를 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하는 묘지기로 불렸으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두번째 부류는 무송 유씨들의 전출이다. 이들은 대부분 농지가 없는 소작농이거나 영세농들로서 농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서 도시로 진출한 경우다.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나 영세농은 주로 대전에 정착하여 임시노동자, 건설노동자, 소상인 등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증촌마을은 젊은층의 지속적인 이촌으로 독신가구, 노부부가족이 현저히 증가했다. 독신가구와 노부부가족은 출타 또는 분가한 자녀들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들 자녀들이 마을로 귀향할 계획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 독신가족과 노부부 가족의 가구는 이들 세대의 마감으로 가구의 단절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가구의 전입 또는 분가한 자녀의 귀향이 예상되지 않는 한 증촌마을의 가구수는 1945~88 기간중의 가구수 추세와는 달리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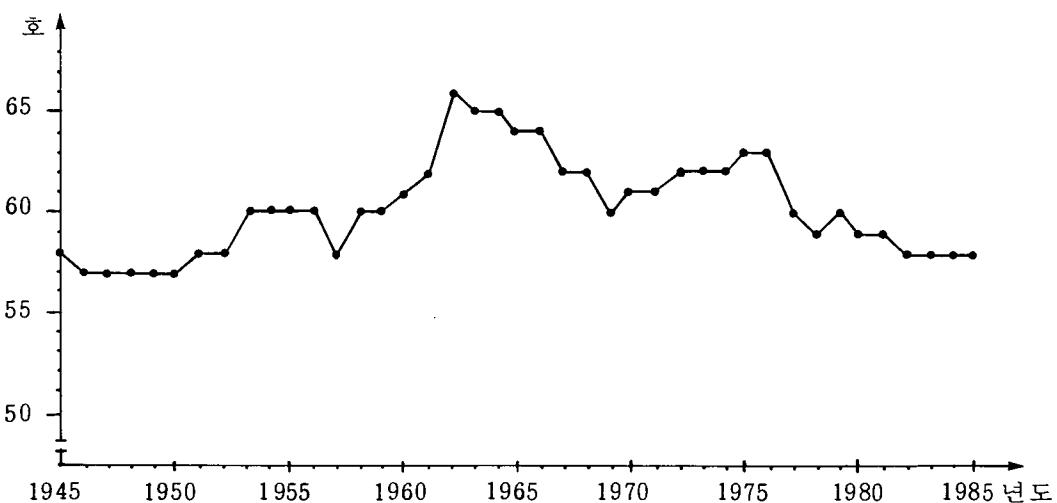
1. 가 구

1945년, 증촌마을의 가구수는 58호로 알려지고 있다.¹⁾ 당시의 가구 58호 중에서 무송 유씨는 52호였고 6호는 화씨, 권씨, 김씨, 박씨 등 성씨였다. 당시의 인구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가구당 인구를 7인으로 환산해 볼 때 당시의 인구수는 약 4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1945~85 기간 중 가구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간 중 가장 많은 가구수는 1962년도의 66호였으며 가장 적은 가구수는 58호로 1946~1950, 1957 그리고 1982~85기간에 나타났다.

1945~85 기간 중 가장 많은 가구의 이동이 있었던 년대는 1960년대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7가구가 외지에서 전입해 왔고 4가구가 분가, 정착하여 총 11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11가구가 전출했으며 1가구는 가구주의 사망으로 가구가 승계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1950년대에는 6가구가 전입하고 3가구가 전출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2가구의 전입과 2가구의 분가, 정착이 있었던 반면 3가구가 전출했다. 1980~85 기간에는 1가구전입과 1가구 분가, 정착이 있었고 4가구가 전출했다.

그림 2-1 연도별 가구의 변화, 1945~85



1) 1945~84년의 가구수와 전출입가구는 증촌의 유규봉씨등 주민들의 증언과 호적,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복원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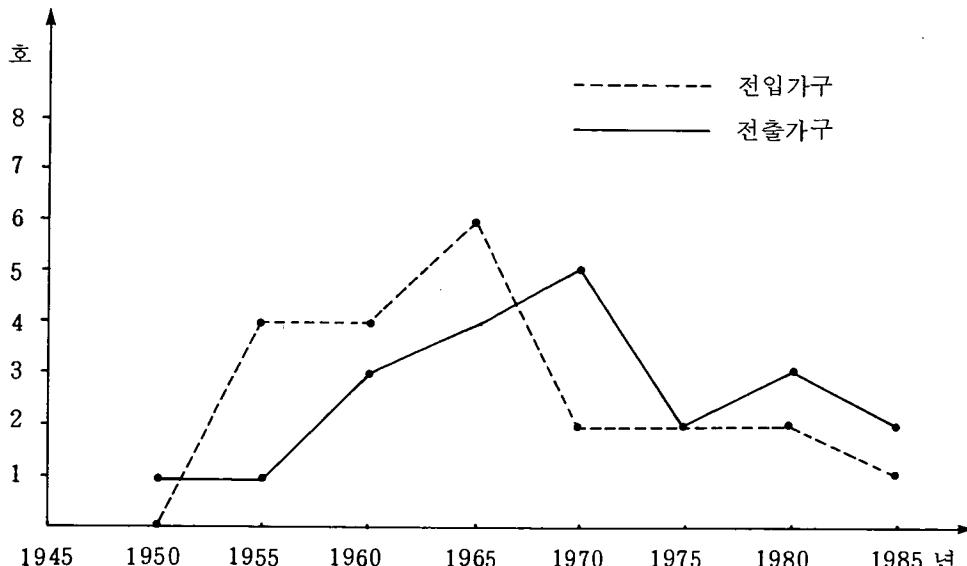
표 2-1 연대별 전입·전출자 현황, 1945~84

연대별	전 입 자	전 출 자	분 가 정 착 자
1945~'49		유석봉 ('46)	
1950~'59	이봉식 ('51) 유상문 ('55) 박범용 ('53) 심재덕 ('58) 유동영 ('55) 정복천 ('58)	유순봉 ('55) 전우양 ('57) 유고봉 ('57)	
1960~'69	오장복 ('60) 김태수 ('60) 유사봉 ('61) 전종태 ('62) 이유근 ('64) 김○○ ('64) 박성기 ('67)	유동영 ('60) 유낙봉 ('62) 유상문 ('63 亡) 김태수 ('64) 오장복 ('64) 박범용 ('65) 정광석 ('67) 유문봉 ('67) 박창신 ('67) 유규봉 ('67) 이유근 ('69) 김○○ ('69)	유병삼 ('62) 유근봉 ('62) 유병채 ('67)
1970~'79	유태봉 ('75) 유병구 ('79)	정복천 ('72) 김용기 ('72) 전우창 ('78)	유병현 ('70) 유택봉 ('72) 유양봉 ('77)
1980~'85	이승로 ('84)		곽종현 ('80)

() 는 전입 또는 전출년도

주 : 전입 및 전출자의 인적사항은 별첨부록자료를 참조할 것.

그림 2-2 연도별 전·출입가구의 추세



주 : 전입가구 중에는 분가정착 가구 5호 포함되어 있음.

증촌마을에 전입해 온 가구의 성격을 보면 전입자의 66.7%인 10호가 무송 유씨 종중답을 소작하기 위해서 전입한 사람들이었고 자작농으로서 전입한 사례는 1가구가 있었다. 또한 6.25 전쟁중 난을 피해 잠시 거주하였던 가구가 2호 있었으며 정미소경영, 유선방송경영, 기타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가 각각 1호가 있었다.

1945~85 기간에 전입한 가구중 농토를 구입해서 이주했거나 기타 뚜렷한 정착기반을 가지고 전입한 가구를 제외하면 이들은 대부분 1960~70년대에 증촌마을을 떠났다. 즉 1945~89 기간에 전입한 가구 16호 중에서 7가구는 현재 증촌마을에 남아있고 9가구는 다시 마을을 떠났다.

1945~85 기간 중 증촌마을을 떠난 가구는 모두 21호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농가는 18호로서 85.8%를 차지하며 3호는 농업노동자였다. 농가 18호 중 9호는 자작 또는 자소작농으로서 자기 농토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작농 중에서도 농토를 1500평 이상 소유한 농가는 4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매우 영세한 농지를 소유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진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촌마을을 떠난 가구들의 76.2%는 대전에 정착했다. 이들 정착가구들의 전출후 직업을 보면 2가구 만이 국교교사 및 전화국직원이었고 나머지 가구는 구멍가게 운영, 가게종업원, 임시노동 등 비공식부문에 취업하고 있었다.

1988년도의 증촌마을 총가구수는 56호이다. 이중 농가는 41호로서 전체가구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전체로 볼 때 1988년도의 가구수는 1985년도의 58호에 비해서 2호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1985~88 기간 중 가구수의 변동내역을 보면 농가는 7호가 감소한 반면 비농가는 5호가 증가하여 가구 전체가 2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전출입 가구의 직업구분, 1945~84

직업구분		전출	전입
농업	자작 및 자소작농	9 (42.9)	1
	소작농	9 (42.8)	10 (62.5)
농업노동		3 (14.2)	2
제조·가공업		—	1
서비스업		—	1
기타		—	1
계		21호 (100.0호)	16호 (100.0%)

이와 같이 농가가 감소하는 반면 비농가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충촌마을이 도시근교마을로서 대전과 통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작용하고 있으며 더우기 1988년도에 대전 시내버스가 마을까지 연장 운행하여 대전으로의 통근조건이 크게 개선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농가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1985년도의 비농가 10호는 지주²⁾ 3가구, 농업노동자 2가구, 비농업취업가구 2가구, 기타 3가구 였다. 그러나 1988년도에는 지주 3가구, 비농업 취업가구 6가구, 기타 6가구로 나타났다.

표 2-3 가구의 연도별 변화

	1985	1986	1987	1988	85/88(%)
농 가	48 (82.8)	46	45	41 (73.2)	△7
비 농 가	10 (17.2)	12	14	15 (26.8)	5
지 주	3	3	2	3	0
농업노동자	2	2	1	•	△2
비농업취업가구	2	2	5	6	4
기 타	3	5	6	6	3
계	58 (100.0)	58	59	56 (100.0)	△2

표 2-4 가구 구성의 변화, 1985~88

1985	1988	농 가	비 농 가				전 출	계
			지 주	농업노동자	비농업취업자	기 타		
농 가	39	2			3	2	2	48
비 농 가	1	1				1	1	3
농업노동자					1			2
비농업취업자					1	1		2
기 타						2		3
전 입	1				1		2＼4	
계	41	3	•		6	6		56＼58

2) 여기서 지주는 농지를 임대한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를 말한다.

표 2-5 가구의 성격 변화, 1985~88

변화구분	가구 번호	가구주 연령	경지 소유면적		탈 농 및 취업 내역
			1985	1988	
농가→비농업 취업	4	70	1,200	임 대	경영주 노령으로 탈농(1988), 경영주 장 남은 단청일종사, 농지는 임대.
농가→무직	13	77	—	—	소작농(400평임차)이었으나 노동력 상 실로 탈농(1986).
농가→무직	22	67	—	—	소작농(1000평임차)이었으나 노동력 상 실로 탈농(1987).
농가→비농업 취업	32	61(여)	—	—	소작농(1500평임차)이었으나 비농업취 업(대전 봉제공장)으로 탈농(1988).
농가→무직	33	56(여)	895	임 대	본인은 무직, 남편사망으로 노동력상실탈 농, 삼녀, 사녀가 대전에 회사원 취업.
농가→지주	43	57(여)	1,900	〃	남편사망으로 영농중단(1986).
농가→지주	45	69(여)	800	〃	노동력상실로 탈농(1986).
농업노동자→ 전출	48	59(여)	—	—	대전에 거주하는 아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전출.
지주→무직	49	81(여)	1,500	—	1988년까지 소유하던 농지는 장남에게 이전시키고 아들보조금으로 생활함.
비농업가구→ 무직	51	74(여)	—	—	답배가계를 하다가 중단, 무직, 아들에 의존.
지주→무직	54	81(여)	1,500	—	소유하던 경작지를 1987년에 장남(대전 거주)에게 양도하고 아들보조금으로 생활.
농업노동자→ 농외취업	57	51(여)	—	—	1988년 대전에 있는 봉제공장취업

1985~88 기간 중 농가에서 비농가로 성격이 전환된 가구 7호를 세분해 보면 <표2-5>와 같이 탈농하고 농지를 임대해 준 지주가 2호, 농외취업한 가구가 2호, 기타 무직가구 3호였다.

1985~88 기간 중 전출한 가구는 5호였다. 이중 경제적 목적으로 전출한 가구는 32번가구 1호 뿐이고 두가구는 재혼한 후 증촌마을을 떠났고 두가구는 떨어졌던 가족원과 합류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 증촌마을을 떠난 5호중 농가는 3호였고 나머지 2호는 각각 비농가 1호, 무직 1호였다. 이들의 전출을 전후한 가구상황은 <표2-6>과 같다.

표 2-6 전출 가구의 현황, 1985~88

가구 번호	전출년도	가구주연령 (당시)	전 출 가족수	전출전직업	전출후직업	전출지	전 출 목 적
26	1986	32	4	농업 (유씨宗土소작)	노동	대전	노동에 의한 생계 유지
52	1987	46 (여)	4	비농업노동 (유씨宗土소작)	주부	수원	재혼에 의한 전가구 전출
6	1988	55	2	농업	상업	서울	재혼합과 동시에 서울로 이주 놓지는 판매
60	1988	73	1	무직	무직	논산군	본가로 귀가 대전거주 자녀와
48	1988	59 (여)	1	농업	무직	대전	대전거주 자녀와 합류 놓지는 임대

표 2-7 전입 가구의 현황, 1985~88

가구 번호	전입년도	가구주연령 (당시)	전 입 가족수	전 입 전 주 지	전입전직업	전입후직업	전 입 목 적
59	1986	37	4	기성면 평촌 1리	농업노동	회사원 (제화사)	거주
60	1987	69	1	논산군 두마면	무직	무직	정신수양
61	1987	70	5	기성면 흑석리	무직	농업 ¹⁾	유씨종답 경작

1) 61번 가구의 장남은 건축기능공, 자부는 제조회사의 기능공으로 취업

2) 60번 가구는 1988년 전출하였음

한편 1985~88 기간 중 증촌마을로 전입한 가구는 3호로 나타났다. 이들 중 59번 가구는 평촌 1리에서 농업노동을 하던 가구로 대전에 있는 제화공장에 취업하면서 증촌의 빈집에 입주하기 위해 1986년 전입한 가구다. 60번 가구는 논산군 두마면에서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1987년도에 단신 전입해와 역시 빈집에 입주해 살다가 1988년에 다시 전출하여 논산에 있는 본가와 합류했다. 61번 가구는 유씨 종답을 경작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기성면 소재지인 흑석리에서 입주한 가구다.

증촌마을의 가구의 성격은 농가가 비농가로 전환 또는 탈농하는 비율이 높고 근교 마을의 성격으로 인해서 비농가가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인구

가. 인구 분석

1988년도 증촌의 총인구는 194명으로 남성 101명, 여성 9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1985년도의 인구 224명에 비하여 13.4%가 감소한 것으로 연평균 감소율은 4.7%에 달한다.

인구 감소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1985년도 남녀 각각 109명, 115명에 비해서 남성은 7.3%, 여성은 19.1% 감소한 101명, 93명으로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인구 구성을 분석하여 볼 때 남성인구는 0~9세 미만의 연령층과 20~29세, 30~39세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여성인구는 0~9세의 연령층과 10~19세, 25~29세의 연령층과 45~54세의 연령층,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감소를 보였다. 반면 남성인구는 10~19세의 연령층과 35~44세 및 65세이상의 연령층에서, 여성인구는 20~24세와 30~39세, 그리고 55~59세의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였다.

마을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1985~88 기간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인구감소율을 보인 연령층은 25~29세였으며 다음이 0~4세, 5~9세, 45~49세 및 50~54세, 60~64세, 30~34세의 연령층 순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의 인구감소는 주로 가구 전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20~30대는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단순전출에 의한 것이었고 0~4세와 5~9세는 생산능력 있는 20~30대의 전출에 따른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가구전출에 따른 동반 전출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와 10~14세와 35~44세의 연령층 인구는 증가했고 15~24세 연령층의 인구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증촌마을의 노령인구비율을 높이고 노년부양비를 높였으며 노령화지수도 크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 1985~88기간 중 65세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은 14.7%에서 19.6%로 높아져 노년부양비가 28.2%에서 35.2%로 높아

그림 2-3 인구 구조의 변화, 198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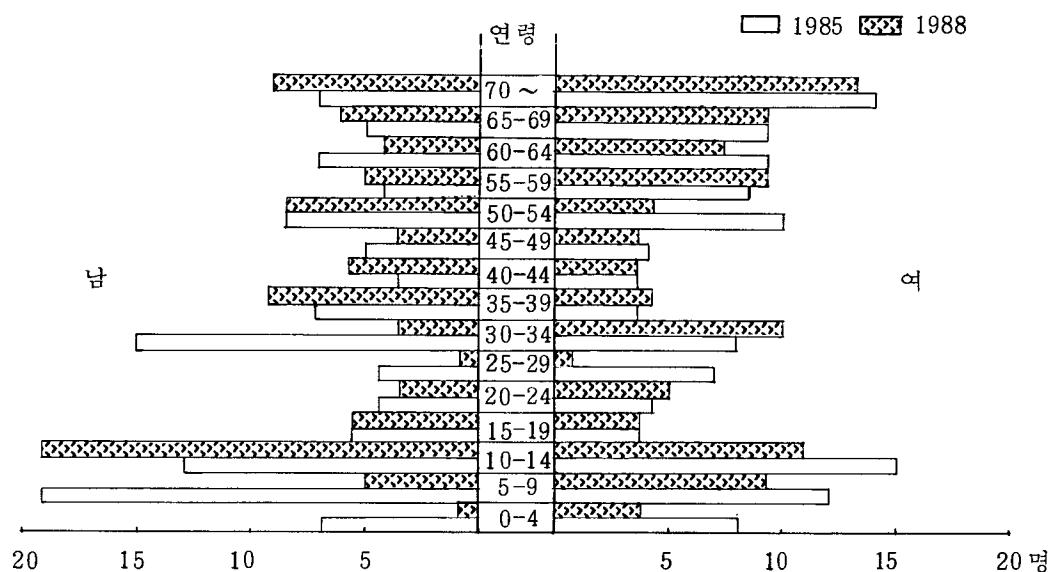


표 2-8 연령별·연도별 인구증감

연령별	남		여		계		증감률 (85/88)		
	1985	1988	1985	1988	1985	1988	남	여	계
0 ~ 4	7	1	8	3	15	4	- 85.7	- 62.5	- 73.3
5 ~ 9	19	5	12	9	31	14	- 73.7	- 25.0	- 54.8
10 ~ 14	13	19	15	11	28	30	- 46.2	- 26.7	7.1
15 ~ 19	6	6	3	3	9	9	0	0	0
20 ~ 24	4	3	4	5	8	8	- 25.0	25.0	0
25 ~ 29	4	1	7	1	11	2	- 75.0	- 85.7	- 81.2
30 ~ 34	10	3	8	10	18	13	- 70.0	25.0	- 27.8
35 ~ 39	8	9	3	4	11	13	- 12.5	33.3	18.2
40 ~ 44	3	6	3	3	6	9	200.0	0	50.0
45 ~ 49	5	3	4	3	9	6	- 40.0	- 25.0	- 33.3
50 ~ 54	8	8	10	4	18	12	0	- 60.0	- 33.3
55 ~ 59	4	5	8	9	12	14	- 25.0	12.5	16.7
60 ~ 64	7	4	9	7	16	11	- 42.9	- 22.2	- 31.3
65 ~ 69	5	6	8	8	13	14	- 20.0	0	7.7
70 ~	7	12	13	12	20	24	- 71.4	- 7.7	20.0
계	109	101	115	93	224	194	- 7.3	- 19.1	- 13.4

졌다. 또한 노령화지수는 1985년도의 44.5%에서 79.2%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유년부양비는 63.2%에서 44.4%로 낮아져 총부양비도 91.5%에서 79.6%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총부양비는 전국평균이 46.7%인데 반해 79.6%로 높다. 특히 노년부양비율은 전국 평균 6.7%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으며 유년부양비도 전국평균 38.5% 보다 15.3%나 높다. 노령화지수는 전국 평균이 16.6%인 것에 비해 4.8배가 높은 수준이다.

증촌마을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구생태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생산성 있는 20~30대 연령층의 급격한 감소와 10세 미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인구의 재생산 잠재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년부양비 및 총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사회로서의 활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인구 증감 요인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원인은 인구증감의 자연적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증촌마을에서의 인구변화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 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1985~1988 기간 중 사망에 의한 인구감소는 8명이었고 출생에 의한 증가가 4명 이었다. 따라서 자연적 인구증감은 감소 4명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 감소 30명의 13.3%를 차지한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전입인구는 28명이었고 전출인구는 54명으로 순 감소 인구는 26명이었다. 즉 인구의 사회적 감소율은 전체 인구감소의 86.7%를 차지하여 자연적 감소비율 13.3% 보다 월등히 높다.

표 2-9 인구증감 요인별 변화

1985 ~ 1988 인구증감수		△ 30
사회적 증감	전 입 (a)	28
	전 출 (b)	54
	순증감 (a-b)	△ 26
자연적 증감	출 생 (c)	4
	사 망 (d)	8
	순증감 (c-d)	△ 4
사회적 증감률 (%)		△ 86.7
자연적 증감률 (%)		△ 13.3

표 2-10 연도별 전출입자의 연령 분포

(단신 및 가구 전출입자 포함)

연령별	전 출 자 수				전 입 자 수			
	'86	'87	'88	계	'86	'87	'88	계
0 ~ 9	4	—	1	5	2	1	—	3
10 ~ 19	8	11	3	22	5	—	2	7
20 ~ 29	7	6	5	18	5	2	3	10
30 ~ 39	4	—	1	5	3	1	—	4
40 ~ 49	—	1	—	1	1	—	—	1
50 ~ 59	—	—	2	2	—	—	—	—
60 ~ 69	—	—	—	—	—	1	—	1
70 ~	—	—	1	1	—	2	—	2
계	23	18	13	54	16	7	5	28

사회적 증감요인 중에서 전입인구를 살펴보면 가구전입³⁾이 3가구에서 10명이 있었고 단신 전입이 18명이었다. 이들 단순 전입자는 대부분 대전 등지에서 취학하다 학업을 마치고 귀향하거나 취학 중 본가에서 통학하기 위해서 귀가한 사례와 취업중 퇴직 등으로 귀향한 사례 및 군제대 후 귀가한 사례 등으로 구분된다.

전출인구 54명 중 가구전출은 5호에서 12명이었고 분가에 의한 전출도 6명이 있었다. 그러나 취업, 취학, 입영 등을 위한 단신전출이 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단신전출자들은 취업이 58.3%, 취학이 19.4%로 가장 많고 단순주거이전 8.3%, 입영과 혼인에 의한 전출이 각각 5.6%, 주부가출이 2.8로 나타났다. 중촌에서 분가한 두가구는 취업목적으로 대전에 정착하였으며 가구전출자의 정착현황은 <표2-12>와 같다.

전출입자의 연령별 분포는 10 ~ 40세에 집중된다. 10 ~ 29세의 연령층의 전출자는 전체전출자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자의 60.7%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이후의 단신 전출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시에 출타중인 가족원과 합류하기 위한 경우이며 전입자는 가구전입에 따라 함께 전입한 경우이다.

전출자의 전출지를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대전에 1차로 정착한다. 즉 전체 전출자의 55.6%가 대전에 정착하였으며 18.5%는 서울에 그리고 25.9%는 대전시 외의 타도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구전출입에 관한 사항은 <표2-6> 및 <표2-7>을 참조할 것.

표 2-11 단신 전출입자의 전출입 목적

구 분	전 출 자				전 입 자			
	1986	1987	1988	계	1986	1987	1988	계
영 농 종 사				2				2
비 농 업 종사	6	10	5	21	1			1
취 학		2	1	3				-
입 영(제대)	2		1	3	2		2	4
일 시 귀 향						1	2	3
단순주거이전		2	1	3 ¹⁾				-
귀 향 정 착							1	1
기 타	2		1	3 ²⁾	2			2
계	10	14	9	33	7	1	5	13

1) 증촌의 조부모집에 와있던 손자녀들이 부모의 주거지로 주거이전한 상태
 2) 혼인 2명, 가출(주부) 1명

표 2-12 전출입자의 전출입 후 주거지

구 분	대 전 *	시 외 도				계
		서 울	지방도시	지 방 군	기 타	
전 입	21	3	3	1		28
전 출	30	10	11	.	3	54

* 대전은 1987년 이전의 대덕군 전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입자중 대덕군내 전입자 9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전출자 중에는 대덕군으로 전출한 사람은 없다.

한편 1985~88 기간 중 증촌마을 인구의 자연증감을 살펴보면 사망 8명, 출생 4명으로 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망자 8명의 내역은 6명이 자연사였고 2명은 질병에 의한 병사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1985~88 기간 중의 평균 조출산율과 조사망율을 계산해 보면 각각 6.2와 12.9로 전국 평균 16.5와 5.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조출산율에서 보면 전국 평균보다 2.6배나 낮은 반면 조사망율은 2.2배나 높다.

이와같은 인구구조와 변동을 감안할 때 증촌마을의 인구는 낮은 출산율, 높은 사망율 그리고 증가하는 전출인구로 인해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3. 가족구조

가. 가족유형

가족유형을 현상적으로 핵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으로 구분할 때 충촌마을은 핵가족 유형이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직계가족 유형은 23.2%로 낮다. 반면 확대가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복합가족 등 기타 유형이 2가구 있다. 이와같은 가족유형을 1985년과 비교해 볼 때 핵가족 유형이 10.8% 증가한 반면 직계가족유형은 27.8%가 감소한 것이다. 1985년도 충촌마을의 핵가족 유형은 전체가구의 63.8%, 직계가족은 31.0%, 기타유형은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핵가족유형 중에서 독신가구율은 전체가구의 12.5%로서 1985년도 8.6% 보다 높아졌다. 또한 부부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도 21.4%로 1985년도의 12.1%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와 편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각각 33.9%, 5.4%로 1985년의 34.5%, 6.9% 보다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신가구는 56번가구(미혼, 37세)를 제외하면 모두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 가구들이다. 또한 이들 독신가구의 71.4%가 60세 이상의 노령층에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4세이며 85.7%가 여성인 점이 특징이다.

표 2-13 독신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가구번호	성	연령	직업	농경지소유	생활수단	비고
43	여	57	무	700	농지임대 소득	미혼자녀 2명 대전 및 서울에 출타
45	여	69	무	945	농지임대 소득	장남이 대전에 취학 출타
51	여	74	무	—	정부지원금	
53	여	64	무	886	농지임대 소득	
54	여	73	무	600	농지임대 소득 분가자녀의 지원금	
56	남	37	무	—	정부지원금	미혼
58	여	71	무	—	정부지원금 분가자녀의 지원금	

이들 독신가구는 모두 직업이 없다. 또한 소득을 창출시킬 재산도 거의 없는 것이다. 다만 4호만이 600~900평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며 이를 임대해서 얻은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4호는 정부의 구호금에 의존하거나 출가한 자녀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중 2가구는 미혼자녀가 대전·서울 등지에 출타중이며 나머지는 출타가족이 없다. 그러나 출타가족원이 있는 독신가구도 가계를 승계할 후계자는 없다. 따라서 이들 독신가구는 늙어 기동이 어려워져서 출가한 자녀가 모셔가거나 또는 사망하면 가구가 소멸될 처지에 놓여 있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유형은 12호로서 전체 가구의 21.4%를 차지한다. 이들 부부가구는 91.7%가 60세 이상의 노부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0세이다. 이 가족유형은 자녀들이 성장한 후 분가 또는 출타로 인하여 과도 기적 현상⁴⁾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들 부부가족은 83.3%인 10가구가 농업가구 이지만 영농후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한 가구도 없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은 19호로 전체 가구의 33.9%를 차지한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은 가구를 승계할 자녀가 잠정적으로는 존재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가구유형이지만 이들 가구의 자녀들이 성장 후 마을에 정착할지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를 승계할 후계자의 확보유무는 매우 유동적이다.

직계가족중 가장부부가 부모 또는 편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가구를 이루는 3세대가구 유형은 전체가구의 17.8%인 10호로 나타나며 직계가족 중 편부부가 부모 또는 편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2호로 전체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14가구로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미혼가구 1호, 가출 1호, 별거 1호를 제외하면 11호가 사별한 경우이다.

여성가장은 모두 10가구로서 이들중 6호는 독신가구이며⁵⁾ 나머지 4호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들이다. 이들 부양의무가 있는 여성가장들은 1가구를 제외하면 농지

4) 이와같은 현상을 두고 한국의 농촌가족이 서구의 가족과 같이 핵가족화하고 단연하기 어렵다. 이들 노부부는 상당부분 도시로 출타한 자녀들과 다시 합류하기 때문이다.

5) 이들 독신가구들의 경제 사회적 특성은〈표 2-13〉 참조

를 소유하지 못한 비농가로서 대전의 봉제공장에 취업 (32, 57 번가구) 하거나 출가한 자녀의 지원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가구유형을 세대개념으로 분류해 보면 1세대 가구가 19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33.9 %, 2세대 가구가 22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3 %를 차지하며 3세대 가구가 13가구로 전체 가구의 23.2 %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4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장 현황

가구번호	연령	직업	농지소유	부양가족수			비고
				동거	출타	계	
32	61	공원	—	2	•	2	대전봉제공장취업
33	56	무	895	2	3	5	농지임대 소득과 자녀의 취업 소득으로 생활
49	81	무	—	1	•	1*	분기한 자녀의 보조금으로 생활
57	51	공원	—	3	4	7	대전봉제공장취업

* 49 번가구의 부양가족은 시숙의 아들임

표 2-15 가족유형

가족유형		1985	1988	
			동거 가족중심	출타가족포함
핵 가 족	독신	5 (8.6)	7 (12.5)	5 (8.9)
	부부	7 (12.1)	12 (21.4)	4 (7.2)
	부부+자녀	20 (34.5)	19 (33.9)	27 (48.2)
	편부부+자녀	4 (6.9)	3 (5.4)	5 (8.9)
	미혼 형제자매	1 (1.7)	—	—
소계		37 (63.8)	41 (73.2)	41 (73.2)
직 계 가 족	(편)부모+부부+(자녀)	17	10 (17.8)	12 (21.4)
	(편)부모+(편)부부+(자녀)	1	2 (3.6)	1 (1.1)
	(편)부부+손자녀		1 (1.8)	—
	소계	18 (31.0)	13 (23.2)	13 (23.2)
학대가족		—	—	—
기타		3 (5.2)	2 (3.6)	2 (3.6)
계		58 (100.0)	56 (100.0)	56 (100.0)

표 2-16 가구원수별 가구수

가구원 수별	1 9 8 5	1 9 8 8
1 인	5	7
2 인	11	12
3 인	9	8
4 인	10	12
5 인	13	11
6 인	8	6
7 인	1	6
8 인	1	
계	58	56
평균 가구원수	3.83	3.46

이들 가족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46 명으로 1985년에 비해서 0.37 명이 감소했다. 특히 이들 중 동거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가 1985년의 23 가구(39.7%)에 비해서 17호(30.4호)로 감소했고 동거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인 가구수는 1985년의 16호(27.6%)에서 19호(33.9%)로 증가했다. 증촌의 가구원수는 전국 평균 가구원수인 4.26 보다 0.43 명이 적으며 (1985년 면부의 한국인 일반가구 기준) 지속적인 가구원의 이촌으로 가구 구성원수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고 핵가족화 하고 있다

나. 가족분산과 출타가족의 실태

1988년도 출타가족원⁶⁾ 총수는 62명으로 1985년도의 72명보다 13.9%가 감소⁷⁾ 했다. 이들 출타자들은 98.4%가 10세이상 30세미만의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성별로 분류해 볼 때 남·여의 비율은 각각 49.3%, 50.7%로 여성출타자들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6) 여기서 출타가족원은 결혼하지 않고 분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가를 떠나 거주하고 있는 가족원을 말한다.

7) 증촌마을의 출타자가 감소한 것은 집을 떠나지 않고도 대전 등지에 취할 수 있을 만큼 도로, 교통조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내버스는 1988. 4월에 증촌마을까지 연장운용되어 대전으로의 접근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출타자들은 74.2%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취학을 목적으로 출타한 것은 14.5%에 불과하다. 그러나 1985년도에는 출타자의 65.2%가 취업을 목적으로, 27.7%가 취학을 목적으로 출타했었다. 이와 같이 취학을 목적으로 한 출타자 수가 감소한 것은 충촌마을과 대전파의 접근도가 향상되어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취학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입영으로 인한 가구원의 출타도 9.7%에 이르고 있다.

표 2-17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연령구분	1985	1988
0 ~ 9		
10 ~ 19	20	13
20 ~ 29	48	48
30 ~ 39	2	1
40 ~ 49	1	
50 ~ 59		
60 세이상	1	
계	72	62

표 2-18 출타목적

출타구분	1985	1988
취업	47	46
취학	20	9
입영	4	6
기타*	1	1
계	72	62

* 출타 1명은 출타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무단 가출임.

표 2-19 가족의 분산정도

가족당가구수	1985	1988
1 가구	23 가구	24 가구
2 가구	24	21
3 가구	10	9
4 가구	1	2
평균 도시분가수	0.81	0.80
호당평균출타자수	1.24	1.11

이러한 결과로 전체가구의 39.3%인 32가구가 2가구 이상의 다가구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이루고 있는 도시 분가수는 호당평균 0.8로 나타나며 출타자 수는 호당 평균 1.11명에 이르고 있다.

취업 또는 취학을 목적으로 마을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는 출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에 거주하는 본가와 출타자 사이에는 경제적 지원관계가 형성된다. 출타자를 지원한 것은 주로 취학하는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며 취업을 목적으로 출타한 경우에도 주거와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현금 및 현물의 지원이 이루어진다.^{8]}

8」 출타자와 본가와의 경제적 지원관계는 제3장 참조

제 3 장

경제활동 구조

1. 농지소유 및 이용

가. 역사적 배경

평촌 3리는 지금도 영세소농인 자작농중심의 농지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1945년 전후에도 비슷하였다.¹⁾ 즉 토지조사사업 이후 일제하에서 증폭되어 간 지주—소작 관계가 이 마을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의 마을내 가구 58호 가운데 비농가는 1호였으며, 나머지 57호중 자작농이 34호, 자소작이 5호, 순소작이 13호, 농업노동자가 5호로 계층분화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작농이라 하여도 그 절대다수(31호, 91.2%)는 0.7ha 미만의 영세한 규모이고 가장 큰 규모도 4,500평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작농과 소작농간에 경작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이 마을이 거의 완전한 씨족부락으로서 혈연집단의 각종 규범, 제도가 존재하여 고율소작료, 고리채이자 등 농민계층간의 수탈관계를 제약하였고, 한편 2만여평의 문중토가 있어서 영세한 계층의 생활유지에 기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노동자가구를 제외한 경작농가만의 평균경지면적을 보면 소유규모가 892평, 경작규모가 1281평이었다.

1950년 실시된 농지개혁에서는 밭 237평을 포함해 총 5,041평의 농지가 8가구에 분배되었다.

1) 이하 가구별 토지소유, 경작면적은 유규봉씨등 주민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표 3-1 1945년 전후 경지소유 구조

단위 : 호, 평

소유규모	호 수 (%)	경지 면적 (%)
무 경지	18 (31.6)	0 (-)
1 ~ 899	15 (26.3)	7,600 (16.4)
900 ~ 1499	15 (26.3)	17,400 (37.5)
1500 ~ 2099	6 (10.5)	10,500 (22.6)
2100 ~ 2999	1 (1.8)	2,100 (4.5)
3000 ~ 4499	1 (1.8)	4,300 (9.3)
4500 ~ 5999	1 (1.8)	4,500 (9.7)
계	57 * (100.0)	46,400 (100.0)

* 비농가 1호 제외

표 3-2 1945년 전후 경작규모 계층

단위 : 호

경작규모	자 작	자 소 작	순 소 작	농업노동	계
무 경지				5	5
1 ~ 899	11	3	5		19
900 ~ 1499	14	2	1		17
1500 ~ 2099	6		5		11
2100 ~ 2999	1		1		2
3000 ~ 4499	1		1		2
4500 ~ 5999	1				1
계	34	5	13	5	57
평균경작면적(평)	1,279	920	1,423	-	-

표 3-3 1945년 전후 가구별 경지면적

가구 번호	가구주	농지소유 계 총	농지 규모 (평)		가구 번호	가구주	농지소유 계 총	농지 규모 (평)	
			소 유	경 작				소 유	경 작
1	유동수	자 작	1,400	1,400	30	유고봉	자 작	600	600
2	유윤봉	"	300	300	31	유규봉	"	900	900
3	유영봉	"	2,000	2,000	32	유순봉	"	500	500
4	유종봉	"	4,300	4,300	33	유정봉	"	1,400	1,400
5	유병묵	"	1,000	1,000	34	유낙봉	"	600	600
6	유동만	"	900	900	35	유삼봉	자소작	400	700
7	유봉태	"	1,400	1,400	36	유증봉	"	900	1,200
8	유세봉	"	1,400	1,400	37	유동식	"	300	800
9	유갑봉	"	1,300	1,300	38	유동선	"	800	1,100
10	유승봉	"	2,000	2,000	39	유동학	"	500	800
11	유현봉	"	1,000	1,000	40	유봉로	소 작	0	800
12	유봉옥	"	1,800	1,800	41	유봉찬	"	0	800
13	유규봉	"	1,100	1,100	42	유병호	"	0	600
14	유동운	"	600	600	43	유동인	"	0	400
15	유선봉	"	600	600	44	유병기	"	0	900
16	유혁봉	"	1,600	1,600	45	유병직	"	0	600
17	유연봉	"	1,200	1,200	46	김낙기	"	0	2,000
18	유동현	"	1,200	1,200	47	김용기	"	0	2,200
19	유병태	"	4,500	4,500	48	전광석	"	0	3,500
20	곽승기	"	1,600	1,600	49	박창신	"	0	1,600
21	유동정	"	1,300	1,300	50	유병근	"	0	1,600
22	유형봉	"	700	700	51	유병조	"	0	1,700
23	유병수	"	600	600	52	유창봉	"	0	1,800
24	유두봉	"	600	600	53	유동득	농업노동	0	0
25	유일봉	"	400	400	54	유병우	"	0	0
26	유근봉	"	1,000	1,000	55	유문봉	"	0	0
27	유병국	"	500	500	56	유석봉	"	0	0
28	전우창	"	2,100	2,100	57	유동길	"	0	0
29	전우양	"	1,500	1,500	58	유동선	비농가 (철도원)	0	0

표 3-4 호당 평균경지면적¹⁾, 1945

단위 : 평

	논	밭 ²⁾	계
소유지	644	248	892
경작지	925	356	1,281

1) 농업노동자 가구, 비농가를 제외한 평균임

2) 마을 종산의 임차면적은 제외 (호당 200 ~ 300 평 내외)

표 3-5 농지분배 실태

분배농가	지 목	면적(평)	상환액(석)	지주(피보상자)		
				성명	주소	거주지
유동운	논	300	5.918	이문기	평촌	
	"	297	5.859	"	"	
	"	204	3.130	유동정	"	마을내
	밭	237	1.526	"	"	"
유동준	논 ¹⁾	131	0.756	노병직	"	
	논	92	1.915	이하용	"	
	"	225	5.425	봉국수	서울	서울
유동민	논	313	3.599	이문기	평촌	
유동정	논	726	15.913	김용안	논산별곡	별곡
유증봉	논	467	10.747	"	"	"
유봉찬	논	726	18.301	봉국수	서울	서울
	논	404	9.741	"	"	"
유동은	논	540	10.061	황세업	대전	대전
유낙봉	논	379	9.552	봉국수	서울	서울
계	—	5,041	102.443	—	—	

1) 토지대장상 지목은 밭임.

나. 농지소유 구조

마을내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토지소유 계층은 <표 3-6>과 같다. 증촌마을은 경지규모가 영세한 것이 특징으로 조사기간에 걸쳐 1.0ha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2호에 불과하며, 2.0ha 이상 소유가구는 전혀 없다.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가구

가 1985년에는 4,800평, 1988년에는 3,600평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영세한 경지 규모는 비농가(1985년 10호, 1988년 15호)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농가 호당 평균 소유면적은 1985년에는 1,344평, 1988년에는 1,278평으로 전국 평균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씨족부락으로서 상호부조적인 관계가 강하고 고향과 조상에 대한 애착으로 가구이촌이 적으며, 분할상속이 심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를 이은 농지의 상속과정에서 종토에 편입된 것이 많아 개인의 소유에 제약으로 작용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 짧은 충의 단신이촌이 급증하고, 노령 가구 중 후계자 없는 가구가 많아 급격한 농가호수의 감소와 그에 따른 호당 경지면적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조사기간중 규모계층의 뚜렷한 변화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0.5ha 미만을 소유한 계층에서 주로 가구전출(이촌)이 이루어지고, 전입한 가구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마을에서와 같다. 소유지가 4,800평으로 가장 넓었던 가구가 부채청산을 위해 농지를 팔고 2,867평으로 계층하강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1986~1987년 사이에는 경지정리를 하여 많은 농가에서 소유규모에 변동이 생겼다. 경지정리사업은 증촌마을의 농경지 필지구조와 농로, 수로 등 마을의 물리적 공간구조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화의 추진, 작부체계의 변동, 사업비 부담 등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표 3-6 경지소유규모 계층의 변화*

단위 : 호

	1985		1988
	13	11	14
무 경 지	전출 2	전입 2	
0.5 ha 미만	24	1	25
0.5 ~ 1.0	4	21	
1.0 ~ 1.5	19	14	15
1.5 ~ 2.0	1	1	2
계	58		56

* 비농가까지 포함한 분포임. 비농가 소유지는 1985년 3가구 3,022평, 1988년 5가구 4,632평

표 3-7 농지소유 구조*

단위: 호, 평

	1985			1988		
	호수 (%)	총면적 (%)	호당평균면적	호수 (%)	총면적 (%)	호당평균면적
무경지	6 (12.5)	0 (-)	0	4 (9.8)	0 (-)	0
0.5ha미만	22 (45.8)	18,871 (29.3)	858	20 (48.8)	15,609(29.8)	780
0.5~1.0	18 (37.5)	37,044 (57.4)	2,058	15 (36.6)	30,179(57.6)	2,012
1.0~1.5	1 (2.1)	3,800 (5.9)	3,800	2 (4.9)	6,602(12.6)	3,031
1.5~2.0	1 (2.1)	4,800 (7.4)	4,800	0 (-)	0 (-)	-
계	48(100.0)	64,515(100.0)	1,344	41(100.0)	52,390(100.0)	1,278

* 비농가 제외.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있는 농경지는 길이 100 m, 폭 30 m로 구획되었으며 (1필지당 면적은 900 평), 이는 원래 소유면적을 참작하여 300 평 단위로 재분할되기도 하여 교환, 분합되었다. 이에 따라 33 가구의 농지소유면적에 변동이 나타났는데 그 내역은 <표 3-8>과 같다. 이에 의하면 경지정리 결과로 마을주민들이 소유한 경지면적이 2,451 평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경지정리 전 이들 가구들이 소유하였던 경지면적의 6.7%에 해당하여 평균적 감보율 5%를 상회한다. 경지정리로 인한 변동 외에 조사기간중 소유지가 변화한 가구는 5호에 이른다. 이중 3호는 농지를 판매한 결과 계층하강이 일어났고, 2호는 모두 여성 가구주로서 도시로 나간 자녀에서 농지를 상속한 경우다. 농지의 판매이유는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 2건, 대학에 다니는 자녀 학비로 쓰기 위한 것이 1건이다.

지가는 조사기간중 크게 상승하였다. 1985년에는 상답이 평당 10,000 원내외, 곡간답이 4,000 ~ 5,000 원 수준이었으며, 밭은 4,000 ~ 15,000 원 수준이었으나, 1988년에 거래된 논은 16,000 ~ 19,000 원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농지가격상승은 농업내부의 요인이 아니라 도시인의 투기현상에 힘입은 것으로 영농을 확대할 목적으로 주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 1988년에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농가가 없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암시해 준다. 1989년 충촌마을이 대전직 할시로 편입된 이후 주변의 지가 상승현상은 보다 뚜렷하다.

다. 경작규모 및 임대차

호당 평균경지면적의 변화는 <표 3-10>과 같다. 근교마을은 소유규모가 영세할

표 3-8 1987년 경지정리에 따른 경지면적 변동과 사업비 부담

단위 : 평, 천원

가구 번호	경지면적의 변동			사업비 부담		
	사업전	사업후	증 감	계	용 자	부 담
1	1,818	892	△ 926	919	760	159
35	755	830	125	382	-	382
53	722	878	156	365	-	365
45	954	937	△ 17	482	200	282
36	1,735	1,120	△ 615	877	370	507
46	1,157	1,025	△ 132	585	-	585
5	1,901	1,729	△ 172	961	410	551
28	1,128	1,242	114	621	620	1
33	1,193	1,171	△ 22	604	-	604
34	645	560	△ 85	326	140	186
2	1,103	934	△ 169	558	240	318
41	1,363	1,593	230	698	290	408
11	808	613	△ 195	408	-	408
40	1,714	1,419	△ 295	867	-	867
4	504	706	202	255	-	255
30	2,628	2,536	△ 92	1,329	570	759
27	2,827	2,877	50	1,430	610	820
8	821	416	△ 405	415	-	415
47	467	438	△ 29	236	-	236
39	1,306	1,102	△ 204	660	-	660
25	573	592	19	289	120	169
19	365	301	△ 54	184	-	184
	1,417	1,699	282	717	300	417
23	512	515	3	259	110	149
17	326	417	91	164	-	164
3	1,162	1,235	73	587	250	337
7	1,464	1,304	△ 160	740	320	420
15	738	717	△ 21	373	-	373
9	1,568	1,532	△ 36	793	-	793
37	632	759	27	319	130	189
38	385	297	△ 88	194	-	194
42	528	441	△ 87	267	110	157
50	1,059	1,128	120	536	230	306

표 3-9 농지소유 변동 가구의 개황

가구 번호	경영주 연 (변동시)	소유면적(평)		증감 구분	변동 연도	비고
		변동전	변동후			
7	65	4,967	2,867	감소	1988	부채청산, 논 2,100평 판매 (타부락 농가 2명이 구입)
8	65	1,821	900	감소	1988	논 1221평 판매, 부채청산, 구입자는 대전에 사는 상인으로 경지는 8번 가구가 임차경작. 수리계소유 논 300평 구입
33	55	1,740	895	감소	1987	논 285평 판매, 자녀 학비
49	80	1,500	0	감소	1987	장남(대전 거주)에게 소유권이전 예)
54	72	800	0	감소	1987	장남(대전 거주)에게 소유권이전 예)

표 3-10 평균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평/호

	1985	1986	1987	1988	88/85
소유면적	1,365	1,349	1,363	1,277	0.94
임대면적	95	111	26	68	0.72
임차면적(A)	588	728	681	904	1.54
경작면적(B)	1,858	1,966	2,081	2,113	1.14
임차지율: A/B %	31.6	37.0	33.7	42.8	-

뿐만 아니라 경작규모도 매우 작아 호당 평균 2,113평에 불과하다. 한편 소유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반대로 경작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 경향과 같다.

〈표 3-11〉에서 이를 계층별로 보면 0.5ha 미만층은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ha 이상층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영세농층에서 비농가화, 이촌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임대차지에 대한 경쟁이 약화되어 호당 평균면적이 늘어난 때문이다.

1985-1988년 사이에 경작규모가 변동된 가구의 내용은 〈표 3-11〉, 〈표 3-12〉와 같다. 규모가 1,000평 이상 확대된 농가 7호중 6호는 경영주가 40대나 50대 초반의 젊은 가구, 또는 후계자가 있는 농가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는 모두 임차지를 늘림으로써 이루어졌고 농지를 구입한 경우가 없다. 1번가구는 경업으로 인해 소유지의 대부분(1,800평)을 임대해 주었으나 나이가 들어 회사를 퇴직하면서 임대지를 회수하고 오히려 623평의 경지를 임차하였다.

표 3-11 경작규모계층의 변화

	1985	1986	1987	1988	전 국 * %
0.5ha 미만	17 (35.4)	16 (34.8)	13 (29.5)	9 (22.0)	29.5
0.5 ~ 1.0	27 (56.3)	25 (54.3)	24 (54.5)	25 (61.0)	34.3
1.0 ~ 1.5	3 (6.3)	4 (8.7)	6 (13.6)	5 (12.2)	20.6
1.5 ~ 2.0	1 (2.1)	1 (2.2)	1 (2.3)	2 (4.9)	9.0
계	48(100.0)	46(100.0)	44(100.0)	41(100.0)	-

* 전국은 1988년 기준이며, 2.0ha 이상층이 6.6%임, 「농림수산 주요통계」.

표 3-12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구 분	가구 번호	경 영 주 연 ('85기준)	경 작 면 적 (평)			변 동 사 유
			1985	1988	증 감	
규 모 확 대 (1,000 평 이상)	1	52	526	2,806	2,280	경영주 농외취업 (회사수위) 이 노령화 로 중단. 임대농에서 임차농으로 바뀜 대전으로 이농한 조카의 농지임차 (31 세 아들 함께 영농)
	12	60	1,740	2,840	1,100	임차지 확대. 순소작농
	14	44	1,000	4,800	3,800	노령가구의 농지 임차 확대
	20	44	2,000	3,700	1,700	임차지 확대
	28	51	1,739	3,249	1,510	임차지 확대. 마을에서 가장 독농가에 속함
	35	49	3,200	5,838	2,638	외지인이 구입한 이촌가구의 농지 임차
	38	62	2,494	3,544	1,100	
규 모 축 소 (1,000 평 이상)	3	35	4,200	2,158	△ 2,042	임대인이 임대지회수. 따라서 이 농가는 이 양기를 구입하여 임작업 확대
	7	62	4,800	2,867	△ 1,933	부채청산을 위해 농지판매. 노령화
	10	69	2,400	900	△ 1,500	같이 영농을 하던 아들이 이촌(취업)
	39	34	2,000	300	△ 1,700	경영주는 농외취업 (농협노무직), 부 인은 마을내 가게 경영으로 겸업화. 농사는 노모가 소일겸 담당

경작규모가 축소된 4호중 2호는 노령화때문에, 1호는 농외활동으로 영농규모를
축소시켰다.

전체적으로 보아 규모가 변동된 11호중 노동력 조건이 변화된 가구는 3호(이중 1
호는 가구원 이촌, 2호는 농외활동관계)에 불과하다. 이는 농가의 영농규모 축소,
확대가 노동력조건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큰 것을 말해준다.

표 3-13 탈농·이농 가구의 변동내용

가구번호	* 경영주연령	* 경작면적	소유면적	변화
4	67	1,090	1,090	노령화, 아들은 농외취업
6	52	1,300	1,300	이촌(1988)
13	74	400	0	아들(25세)이촌, 노령화(기타가구)
26	31	2,100	1,300	이촌(1986)
32	58 (여)	1,300	0	경영주 농외취업
33	53 (여)	1,740	1,740	남편사망으로 농지임대, 자녀취업(비농업가구)
43	54 (여)	2,700	1,900	남편사망('86)으로 모두 임대
45	66 (여)	300	800	노령으로 모두 임대. 지대수입으로 생활

* 경영주 연령, 경작면적은 모두 1985년 기준임.

〈표 3-12〉에서 설명된 가구는 조사기간중 영농을 계속한 농가인 반면, 〈표 3-13〉에는 이농(2호), 탈농(6호)의 변동내용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농층으로, 이농가구 2호를 제외하면 노령화로 인한 탈농이다. 이중 4호가 여성가구주(이중 2호는 조사기간중 남편이 사망)인 것이 특징이다. 탈농가구중 3호는 비농업소득, 1호는 지대수입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나, 13, 45번 가구는 경제력이 거의 없이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인적사항, 특히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표 3-14〉에서와 같이 특별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균적 규모가 작아 50~60대의 노령층이나 30~40대의 청년층 모두 자가노동력을 중심으로 영농이 가능한 때문으로 보인다.

경지소유규모별로 경작규모의 분포를 보면 〈표 3-15〉와 같다. 총 41호중 20호는 소유계층과 경영계층이 같지만, 19호가 임차를 통하여 계층상승, 2호가 소유지를 임대함으로써 계층하강이 일어났다.

증촌마을의 농지임대차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농가간, 또는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로 발생하는 임대차보다는 문중토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증촌마을은 유씨 동족부락으로 대종중 1개, 중종중 1개, 소종중 2개 등 4개의 문중조직이 존재하여 이 소유지 논 13,700평, 밭 3,550평이 마을 주민들에 임대되고 있

표 3-14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988

경작규모	단위 : 호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세 이상
0.5 ha 미만	2 ¹⁾	2 ²⁾	1	1	3
0.5 ~ 1.0	3	3	6	8	5
1.0 ~ 1.5		1	3	1	
1.5 ~ 2.0		1	1		
계	5	7	11	10	8

1) 2호 모두 경영주의 농외취업

2) 이중 1호 경영주의 농외취업

표 3-15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988

소유규모	단위 : 호(%)				
	0.5ha 미만	0.5 ~ 1.0	1.0 ~ 1.5	1.5 ~ 2.0ha	계
무 경 지	II	3	I	1	4 (9.8)
0.5ha 미만	8	10	2		20 (48.8)
0.5 ~ 1.0	1	11	2	2	15 (36.6)
1.0 ~ 1.5	III	1	1		2 (4.9)
계	9(22.0)	25(61.0)	5(12.2)	2(4.9)	41(100.0)

으며, 이 밖에 종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거나, 수개의 堂內조직도 위토를 가지고 있어, 문중토의 면적은 23,041 평으로 총 경지면적의 26.0%에 이르고 있다.²⁾

조사기간중 농지임대차 관계는 점차 확대되어 임차지비율도 35.5%에서 42.8%로 상승하였다. 임대차관계에 따라 농가를 구분하면 자작농은 감소하는 반면 임차농(자작농 포함)의 비율은 58.3%에서 70.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지를 전혀 갖지 않은 순소작농의 수는 감소하였는데 이 계층의 털농이 많았기 때문이다.

임차농가의 호당 임차면적은 1,309 평 (1988 기준)이며, 대부분이 1,500 평 미만의 규모로 임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임차관계의 확대에 따라 호당 임차규모도 늘고 있음을 <표 3-17>에서 볼 수 있다.

2) 문중조직에 관해 상세한 것은 제 4 장 참조

표 3-16 임차면적의 변화

	1985	1986	1987	1988	단위 : 평 '88/'85
논	22,940	23,240	20,909	28,151	1.23
밭	8,510	10,060	9,820	9,820	1.15
계	31,450	33,300	30,729	37,972	1.21
임차율비율	35.5	37.3	34.4	42.8	-

표 3-17 임대차에 의한 농가구분

	1985	1986	1987	1988	단위 : 호
임 대 농	1 (2.1)	0 (-)	0 (-)	1 (2.4)	
자대농(지주겸 지작)	2 (4.2)	3 (6.5)	1 (2.3)	2 (4.9)	
자작농(자작농)	17 (35.4)	12 (26.1)	11 (25.0)	9 (22.0)	
자차농(자작겸 소작)	20 (41.7)	26 (56.5)	26 (59.1)	25 (61.0)	
임차농(순소작)	8 (16.7)	5 (10.9)	6 (13.6)	4 (9.8)	
계	48(100.0)	46(100.0)	44(100.0)	41(100.0)	

표 3-18 임차농의 임차면적 규모

	1985	1988	단위 : 호(%)
0.5ha 미만	22(45.8)*	19(46.3)	
0.5~1.0	5(10.4)	8(19.5)	
1.0~1.5	1(2.1)	1(2.4)	
1.5~2.0	-	1(2.4)	
20ha 이상	-	-	
계	28(58.3)	29(70.7)	

* 백분율은 전체농가수에 대한 비율임.

지주의 성격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중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지주의 소유지는 작은 편이다. 부재지주소유지의 비율은 23.2%이다. 양면도 사이에 구성비는 큰 변화가 없으나 재촌지주의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노령 가구의 비농가화(탈농) 진행과 관련된다.

부재지주의 농지취득경위는 마을내에서 농사를 짓다 이촌한 가구의 농지가 4건에

2,510 평, 도시에 나가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가 5 건에 3,560 평, 외지인이 구입한 것이 3 건에 2,721 평이다.

임대차 관행을 보면 논은 정조와 타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소유자는 '어우리'라고 하여 수확량의 $1/2$ 을 현물로 지불하며, 종답은 평균생산량의 $1/3$ 수준에서 현물, 또는 현금(정부미 2등품 수매가 기준으로 환산)으로 지불한다. 밭은 정조가 일반적이며, 종토는 평당 100원, 개인소유자는 250 ~ 300원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타조가 점차 정조로, 그것도 현금지불로 바뀌는 경향이다. 그러나, 논에 있어서의 임차료는 그것이 현금으로 지불되더라도, 수확후에 지불하며 현물 기준량을 환산한 액수로 현물지대의 범주로 파악된다. 이 밖에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묘소관리, 제사준비만을 부담하는 위토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임차료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988년의 경우 논은 개인소유지가 684원, 종종토가 304원, 밭은 개인소유지가 287원, 종종토가 104원이다. 종종토의 임차료가 낮은 것은 그것이 사경제와 다른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곡간답, 경사지로 생산성이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표 3-19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단위 : 평 (%)

	1985 (A)	1988 (B)	B / A
재촌지주*	3,450 (11.0)	5,900 (15.5)	1.71
부재지주	7,600 (24.2)	8,791 (23.2)	1.16
종 중 토	20,160 (64.1)	23,041 (60.7)	1.14
국공유지	240 (0.8)	240 (0.6)	1.00
계	31,450(100.0)	37,972(100.0)	1.21

* 지주가 조사부락의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지주에 포함시켰음.

표 3-20 부재지주의 농지취득 경위, 1988

단위 : 평 (%)

	면 적 (%)	건 수	전 국 (%)
이 촌	2,510 (28.6)	4	} 65.9
상 속	3,560 (40.5)	5	
구 입	2,721 (31.0)	3	34.1
계	8,791 (100.0)	12	100.0

표 3-21 임차료 지불형태

단위 : 건(%)

구 분	년 도 지 목	1985		1988	
		논	밭	논	밭
정 조	현 금	3 (10.0)	8 (42.1)	8 (25.0)	19 (67.9)
	현 물	9 (30.0)	12 (10.5)	3 (9.4)	2 (7.1)
타 조 (현물)		14 (46.7)		11 (34.4)	1 (3.6)
제사·선산관리등		4 (13.3)	9 (47.4)	10 (31.3)	6 (21.4)
계		30(100.0)	19(100.0)	32(100.0)	29(100.0)

표 5-22 임차료 지불액, 1988

단위 : 천 원

	임 차 료 액 (%)
재 촌 지 주	4,523 (33.7)
종 중	4,838 (36.1)
부 재 지 주	4,042 (30.2)
계	13,404 (100.0)

2. 작목조직과 생산기술

증촌마을은 대도시근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근교농업적인 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즉 낙농, 시설원예, 과수, 축산의 발달이 매우 낫다. 그 이유는 첫째, 호당 경지면적이 작아 원래 자급위주의 영농을 해온 점, 둘째, 밭이 대부분 문중산의 기슭에 위치한 경사지로서 필지당 면적이 작고, 토양이 척박하며, 관수가 어려워 시설원예가 불가능한 점, 세째, 대전과의 교통이 편리해 진 것은 최근의 일로 그전에는 상업적 영농을 하더라도 시장성이 불리했던 점, 그리고 마을내에 적극적 기술도입의사를 가진 계층이 적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낙후된 농업은 앞으로도 이 마을이 근교지대의 특성을 살려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가. 주요 작목의 변천

증촌마을의 관행적인 논의 작부체계는 수도 단작과 수도+마늘의 이모작이다. 중요한 밭작물은 고추, 참깨, 콩이며 이들은 대부분 단작의 형태로 재배된다. 이와같이 특별한 경제작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복합영농을 비롯한 몇가지 정책추진이 정착되지 못한 것도 보다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증촌마을은 전통적인 작목, 즉 논에서는 수도, 밭에서는 콩, 팥, 그리고 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돼지 1~2마리 사육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작목체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1983년에 도입된 복합영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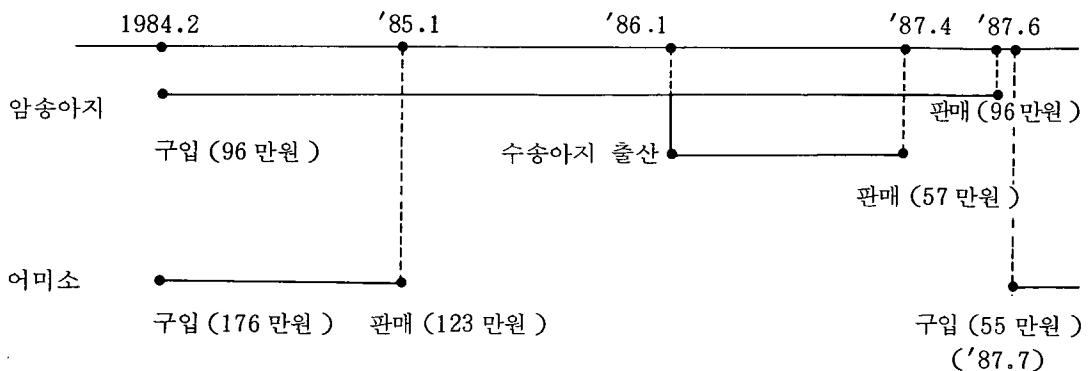
복합영농회는 농협의 지도로 17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다.³⁾ 특화작목으로는 행정계통으로 양잠이 선정되었으나, 마을내에서 논의를 거쳐 시설원예와 비육우로 결정하였다. 비육우는 마을에 자연생 초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시설원예는 대전이 가까워 시장조건이 유리하고 적은 면적을 극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설원예에 참여한 농가는 4호에 불과하여 1985년에는 참깨를 추가지정하였다.

한우입식자금은 1984년 2월에 17호에 호당 2마리씩 총 34마리분 2,04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이중 4호⁴⁾가 입식을 포기하고 5호가 1마리씩 추가로 배정받아 총 31두를 입식하였다. 이들은 1984년 2~3월 사이에 논산 우시장을 통하여 송아지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송아지가격이 마리당 80~90만원으로 융자금(60만원) 이외에 20~30만원씩 별도 자금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85년이후의 소값 하락으로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어 대부분 중도에서 처분하였으며 '86년 이후 사육두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그중 한 농가(유병현)의 사례를 보면〈그림 3-1〉과 같다. 이 농가는 1984년 2월에 272만원을 주고 2마리를 구입하여(부족액 152만원은 사채 차입), 1마리를 출산시켰으나, 3마리의 판매대금은 276만원에 불과해 노동력, 사료비의 손해는 물론 융자액과 사채의 이자만 해도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이중 융자액 이자의 일부는 정부 조치로 경감됨).

3) 이 회원 구성은 1,500 평 미만의 영세농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병걸, 유병복, 유병돈, 유현봉, 박성기, 유택봉, 유병태, 곽중선, 심재덕, 유병현, 유사봉, 유성봉, 유병국, 유병구, 유병직, 유병호, 유병수.

4) 유병구, 유병직, 유병호, 유병수

그림 3-1 사례농가의 소 사육 상황



이와 함께 시설원예에 참여한 농가는 4호⁵⁾로 이들은 호당 300평 기준으로 270만원씩의 융자를 받아 비닐하우스를 짓고 상치, 쑥갓, 알타리무우, 고추묘, 딸기 등을 재배하였으나 대부분 2년 내에 중단하여 실패하였다. 예를 들어 보면 이중 한 농가는 융자금중 150만원을 투자하여 (하우스 시설 130만원, 종자, 비료대 각 10만원) '84년 9월 상치와 쑥갓을 각각 150평씩 심어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장에 출하(대전에 판당 400~700원)하여 3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이듬해 4월부터는 무우를 재배하여 2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7월에 장마로 하우스가 침수되어 실패하자 하우스 철재를 이웃 부락 주민에 32만원에 팔고 시설원예를 포기하였다. 결국 이자를 제외하고도 68만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이들의 시설원예농업이 실패한 것은 농사기술의 수준이 낮아 작황이 좋지 않았고, 가격이 낮았으며 그나마도 규모가 적어 수집상들이 오지 않음으로써 개별적으로 대전에 출하해야 하는 제약 등이 작용한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때의 실패로 시설원예에 대해서 아직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참깨는 자급, 또는 판매용으로 가구마다 소량씩 재배하여 왔는데, 1985년에는 복합영농회원을 중심으로 3인⁶⁾이 참깨작목반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마을사람의 밭 2,400평을 임차하여 (임차료는 수입액의 1/3로 후불기로 함) 참깨를 심었으나 고사병으로 실패하여 수확량은 3가마(판매액 90만원)에 불과하여 손해를 보고 작목반을 해체하였다.

5) 유병국, 유병태, 유현봉, 유성봉.

6) 유현봉, 유병목, 유성봉.

답리작 마늘은 1976년에 유성봉씨가 200평을 심어 80만원의 수익을 올린 이래 확대되어 10,000~15,000평을 재배하게 되었으나 1985년 이후에는 가격이 떨어져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돼지는 1970년까지는 30호 이상에서 부업적으로 1~2마리씩 사육하여 왔으나 70년대에는 점차 감소하고, 1978년의 돼지파동으로 양돈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1979년에 유성봉이 마늘재배에 필요한 구비를 얻을 겸 20마리의 새끼돼지를 입식하여 점차 확대시켰다(1988년 100두 수준). 이외에도 4~5호가 10마리 내외의 부업양돈을 시작하였으나 1~2년 정도 키운 후 모두 포기하였다. 한편 '84년에는 유성봉과 유병혁이 공동으로 양돈을 하여 규모도 확대시켜 2년간은 많은 소득을 올렸으나 '86여름 돈코레라 발생으로 손해를 보자 유병혁이 탈퇴하고 지금은 유성봉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조사기간중 작목구성의 변화

1985~1988년간의 작목별 식부면적의 변화를 보면 미곡의 식부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채소류, 특용작물 등 전작물의 면적은 줄어들어 미곡단작으로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 식부면적 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의 68.5%에서 1988년에는 74.5%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밭작물의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는데 있으며, 그 결과 이촌, 또는 탈농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소유, 또는 경작하던 농지 중 논은 타농가에 의해 임차 경작되는데 비해, 밭은 묵혀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증촌마을의 밭의 대부분은 종산을 개간한 것으로서 자급용 채소, 콩 등과 시장판매를 위해 참깨, 들깨 등을 자가노동력을 감안하여 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답리작으로 재배하던 마늘은 1987년에는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크게 감소하였다. 경지정리사업 후에는 오히려 토질변화로 배수조건이 나빠져 '88년의 마늘재배는 더욱 감소하였다.

이 마을의 농산물 상품화는 그것이 소량인 관계로 판매에 더욱 애로를 느낀다. 마을에 정미소가 있기는 하지만 미곡상인과 연결이 되지 않아 이 마을 주민들은 자급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전에 직접 몇 말 또는 몇 가마씩 가지고 나가 미곡소매상에 판매한다. 친지를 통한 판매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마늘은 주로 흑석리(1988년까지는 면소재지, 현재는 동사무소가 있음)의 5일 시장에 직접 가지고 나가 판매하며, 참깨, 들깨 등을 대전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가축사육에 있어서는 한우가 1986년에 감소하였다가 '88년에는 1가구가 22두를 사육함으로써 약간 증가하였다. 이 농가는 젖소 숫송아지 10두를 구입하여 1988년 한해에만 약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1월 30일 10두를 500만원에 구입하여 비육시켜 12월에 2,000만원에 판매하였음. 따라서 조수입은 1,500만원이고 사료비 500만원을 제외하면 소득은 1,000만원임. 판매대금중 1,200만원으로 연말에 다시 20두 구입). 소 판매는 상인이 직접 와서 가져간다.

양돈농가 1호의 사육규모는 1987년부터는 80두에서 100두로 약간 늘어났다. 과수는 1호에서 포도밭 300평을 가지고 있으며, 감나무는 주택주변을 중심으로 600여주가 산재해 있다.

표 3-23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단위 : 평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B)	호당평균	B/A (%)
미	곡	66,111	67,411	68,550	66,459	1,621	100.5
맥	류	900	800	220	100	2	11.1
잡	곡	0	350	0	750	18	-
두	류	9,260	7,040	9,200	9,016	220	97.4
서	류	610	430	100	0	0	0
채	고 추	4,985	4,020	2,724	2,884	70	57.9
소	마 늘	4,920	7,010	3,520	2,854	70	58.0
류	기 타	1,760	950	1,867	807	20	45.9
특	참 깨	4,018	3,713	1,983	1,543	38	38.4
용	들 깨	2,280	3,820	3,190	3,750	91	164.5
작	담 배	1,600	1,900	800	1,000	24	62.5
총	식 부 면 적	96,444	97,444	92,134	89,163	2,175	92.5

표 3-24 경종작부체계, 1986

유형	작부시기												면적(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5	1986
벼 + 마늘				○		○				▨			4,920	6,860
고추 단작		○		○					▨		○		4,885	4,020
참깨 단작				○			▨						3,568	2,713
들깨 단작				○		○	○	○		▨			1,630	2,620
참깨 + 들깨				○		○	○	○		▨			200	700
콩 단작				○					▨				7,235	5,480
담배 단작	○		○			▨							800	600
담배 + 들깨	○		○			▨				▨			800	500

* ○ 파종, … 묘포재배, — 본포재배, ▨ 수확

표 3-25 가축 사육두수

구분		단위: 마리			
		1985	1986	1987	1988
한우	총두수	69	50	50	59 ¹⁾
	호당평균	1.44	1.09	1.14	1.44
돼지	총두수	80	80	100	100 ²⁾
	호당평균	1.67	1.74	2.27	2.44

1) 젖소 수송아지 20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1호 있으나 비육용으로 사육하므로 편의상 한우 두수에 포함시켰음 (1987년 6두)

2) 돼지 100 마리는 1호가 사육하는 규모임.

다. 농업기술의 변화

증촌마을은 수도작 중심으로 밭작물의 비중이 적어 농업기술도 미작을 중심으로 변해왔다. 아래에서는 미작의 작업과정을 중심으로 기술수용과 변천을 살펴본다.

경운작업에 기계가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그 이전까지는 역우를 이용하여 2~3회 논갈이를 하였다. 경운작업의 동력화는 특히 경지정리 이후 확대되어 현재에는 85% 이상이 경운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밭에서는 아직 역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밭이 주로 산비탈의 경사지로서 기계작업이 어렵고 농로가 잘 나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양은 해방전후가 되어서야 출모를 사용한 정조식을 하였으며 주로 남자들이 작업

에 참여하였다. 여자가 모내기에 참여한 것은 1980년 전후이며, 기계이양은 1987년에 비로서 시작되어 기술도입이 늦은 편이다.

제초는 호미를 이용한 중경제초를 하다가 1973년경부터 제초제를 사용하였다. 제초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내기가 끝난 후 10~20일 간격으로 세번 김매기를 하였다. 초벌과 두벌매기는 호미를 이용하여, 세벌매기(만물)는 보통 손으로 하였으며 제초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⁷⁾ 밭작물의 제초도 1973~1974년까지는 호미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제초제의 사용과 멀칭재배(1973년 이후)의 확대로 호미작업은 많이 줄어 들었다.

방제작업은 1967년 수동식분무기가 보급되었으며, 1977년부터는 고성능분무기(경운기 부착)와 고압식분무기가 들어와 같이 사용되었다. 1980년부터는 고압식분무기의 사용은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도 수동식분무기는 밭작물이나 소규모의 미작 방제작업시 이용되고 있다.

예취작업은 1986년까지 낫을 사용하였으나 1986년에 평촌2구에 콤바인이 들어오면서 기계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경지정리후 현재 절반정도가 콤바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탈곡작업은 1976년까지는 족답식 탈곡기(호롱기)에 의해 이루어졌다.⁸⁾ 1977년에는 경운기에 부착한 동력탈곡기(반자동)가 도입되어 점차 대체해 갔으며, 콤바인의 도입으로 작업면적이 줄어 들고 있으나 아직 절반정도의 작업을 분담하고 있다.

도정은 마을내에 정미소가 있어 이를 이용한다. 도정기의 동력은 원래 수차였으나 1956년 석유원동기로 대체되었고, 1986년에는 다시 버스엔진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정료는 1950년까지는 6%, 그 이후에는 5%를 받고 있다.

현재 운송수단으로는 경운기, 우마차, 리어카, 지게 등이 있다. 경운기는 1972년에 처음 들어와 처음에는 운반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 작업분담율은 60% 정도이다. 경운기는 그 전까지 중요한 운반수단이던 우마차를 대체하였으나, 일부 농가는 아직 우마차를 사용하고 있다. 소량 운반수단으로 리어카(1977년 도입), 지게가 있다. 리어카가 들어오면서 지게의 역할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농로가 나있지 않은 산비탈의 밭이나 논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

7) 두레의 작업범위는 초벌, 두벌매기에 한정되었다.

8) 원래는 밭로 밟아 동력을 얻었으나 1972년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 동력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밖에 관배수시설로 1980년에는 관정이 1982년에는 양수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조제작업에는 키를 사용하다가 통일벼 보급후 작업물량이 늘어나자 '77년부터는 풍구를 사용하고 있다.

밭작물은 모두 노지재배이며, 1973년 이후 멀칭을 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1984~5년 사이에 4농가에서 800평을 하였으나 실패한 후 다시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증촌마을은 규모가 영세하고 상업화가 뒤쳐진 탓으로 농업기술도 낙후된 편이다. 이는 역으로 치열한 상업화의 경쟁 속에서 이 마을 농업의 발전에 다시 악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동력 구조와 이용

가. 농업노동력 구조

마을주민 전체를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표 3-25>와 같다. 1985년과 1988년 사이의 가장 큰 변화는 비농업부문 취업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농업에만 전업적으로 취업한 사람은 3명(1.3명%)에서 12명(6.2%)로 증가하였고, 농업과 비농업을 겸업하는 사람도 7명(3.1%)에서 13명(6.7%)으로 늘어났다. 이와 반면 농업에만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105명(46.9%)에서 70명(36.1%)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마을은 대전 근교에 위치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비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1989.1월 대전시에 편입된 이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영농종사자수는 198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3년간 총 28명이 감소하여 해당 영농종사자수는 2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노동력 증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증가요인이 7명, 감소요인이 35명이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전출인데 이중 4명은 가구전출(2가구), 9명은 단신전출이다. 이외에 비농업부문에의 취업에 따른 재촌탈농이 10명, 노령화로 인한 탈농이 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농종사자의 연령별 구성변화의 특징은 40세 미만이 크게 감소하여 노령화가 진전된 점이다. 특히 35세 미만은 '85년의 13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이 연령층에서 단신이총이 집중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탈농이 진행되었고, 자연적 연령

표 3-26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단위 : 명(%)

구 분	1985			1988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201	23	224(100.0)	158	36	194(100.0)
15 세 미 만 인구	66	8	74 (33.0)	48	10	58 (29.9)
15세 인구	농 업	104	1*	105 (46.9)	70	70 (36.1)
	농 업 + 비 농 업	7		7 (3.1)	13	13 (6.7)
	비 농 업	2	1	3 (1.3)	6	12 (6.2)
	소 계	113	2	115 (51.3)	89	95 (49.0)
이상 인구	실업(취업대기)	4		4 (1.8)	4	6 (3.1)
	학 생	6	3	9 (4.0)	5	6 (3.1)
	주 부	1	2	3 (1.3)	3	3 (1.5)
	노 령	9	6	15 (6.7)	8	21 (10.8)
	기타(질병.군복무)	2	2	4 (1.8)	4	5 (2.6)
	소 계	21	13	35 (15.6)	21	41 (21.1)

* 농업노동자임 (48세 : 여자).

표 3-27 영농종사자수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농 가 호 수	48	46	44	41
농 가 가 구 원 수 (A)	201	188	170	158
영 농 종 사 자 수 (B)	111	96	91	83
호 당 평균영 농 종 사 자	2.31	2.11	2.07	2.02
영 농 참여율(B/A%)	55.2	51.1	53.5	52.5

상승으로 상위 연령층으로 이동하는 반면 신규 농업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의 노동력은 33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그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중 70세 이상의 노동력이 '88년에는 12명이나 됨으로써 노동력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 3-28 영농종사자 증감 원인

단위 : 명

구 분		'85/86	'86/87	'87/88	계
증가 (A)	전 입	1		1	2
	전업(재촌)	2	1	2	5
	소 계	3	1	3	7
감소 (B)	전 출	8		5	13
	노령화	6	1	1	8
	재촌탈농	3	3	4	10
	사망	1	2	1	4
소 계		18	6	11	35
순 증감 (A-B)		15	5	8	28

표 3-29 영농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증 감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60세 이상	16	17	33 (29.7)	17	17	15	17	17	13	30 (36.1)	△ 3
50~59	11	16	27 (24.3)	12	16	11	10	12	11	23 (27.7)	△ 4
40~49	7	6	13 (11.7)	5	6	8	6	8	6	14 (16.9)	1
30~39	15	10	25 (22.5)	10	9	10	12	5	10	15 (18.1)	△ 10
30세 미만	5	8	13 (11.7)	1	4	0	3	0	1	1 (1.2)	△ 12
계	54	57	111(100.0)	45	52	44	48	42	41	83(100.0)	△ 28

표 3-30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1988

단위 : 호

구 분		0.5ha 미만	0.5~1.0	1.0~1.5	1.5~2.0ha	계 또는 평균
영농 종사자수	1	2	4			6
	2	6	16	5	2	29
	3	1	4			5
	4		1			1
호 수		9	25	5	2	41
평균종사자수 (A)		1.89	2.08	2.00	2.00	2.02
평균경작면적 (B)		750	2,078	3,459	5,319	2,113
M/L 비율 (B/A)		397	999	1,729	2,660	1,046

경작규모계층별로는 <표 3-30>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노동력과 경작규모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노동력의 이질성이 커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비교가 어렵고, 또 영농참여가 가족구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나. 고용노동과 노동관행

증촌마을에서 공동체적 농작업집단인 두레는 1960년대 초에 소멸되었다. 그 이전에는 농가, 비농가를 포함하여 모든 주민이 호당 1명씩 참여하여 7월 말경 두레를 조직하였으며 논 김매기작업을 2회 함으로써 완료되었다. 두레의 하루 작업량은 80~90 마지기였고 두레품은 마지막 당 쌀 1 되였으며 불참자는 2 되의 벌칙금(궐)을 내었다 한다. 두레가 끝나면 7월 7석이나 백중날 두레먹이를 하며 휴식을 취했는데 지금 이러한 풍습은 사라졌다.

증촌마을은 <표 3-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용노동관계가 매우 미약하며, 외부노동력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마을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노동력 고용관계가 작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미곡 위주의 자급적 농업으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노동력 부족은 어느 정도 품앗이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둘째, 주민의 대부분이 유씨인 씨족부락(班村)으로서 '품을 파는 것'에 대한 기피성향을 가지고 있다.⁹⁾ 그 결과 고용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공식적인 노임수준과 실제임금 사이에 격차가 생기기도 한다.

세째, 경지가 없거나 영세한 가구들은 다소간 종토를 임차함으로써 생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점이 한편으로는 영세농의 이촌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품팔이에의 압박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1985~1988년간에 고용노동일수는 47%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87년에 시행된 경지정리후 수도작의 기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노동력의 여유는 미작 외의 농사에서도 고용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단지

9) 지금과 경지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제말기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가구에 머슴이 있었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도 머슴이 있었다. 이 머슴은 가족노동력의 보완이라기보다는 대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77세인 유봉○씨는 농사일을 배운 것이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표 3-31 고용노동일수

단위 : 연인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총 고용 노동 일 수(A)	659	729	367	307	0.47
미 작	450	517	199	168	0.37
미 작 외	209	212	168	139	0.67
피 고용 노동 일 수(B)	444	192	172	122	0.27
순고용일수 (A-B)	215	537	195	185	0.86
호 당	총 고용	13.7	15.8	8.5	7.5
평 균	순 고용	4.5	11.7	3.8	4.5
외부노동력고용일수(C)	10	0	0	40*	4.0
A / C (%)	1.5	-	-	13.0	-

* 1 호가 담배농사를 위해 옆마을 사람을 고용한 것임.

표 3-32 농업노동 고용관계에 따른 농가 구분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경작규모별)				
				계	0.5 ha 미만	0.5 ~ 1.0	1.0 ~ 1.5	1.5 ~ 2.0 ha
피 고 용	200일이상	0	0	0				
	100 ~ 199	1	0	1	0			
	50 ~ 99	2	1	3	0			
	20 ~ 49	5	2	6	3	3		
자급 (-19 ~ 19)	31	28	29	33	9	20	3	1
고 용	20 ~ 49	4	10	3	4		2	2
	50 ~ 99	4	4	0	0			
	100 ~ 199	1	1	1	1			1
	200일이상	0	0	0	0			
계	48	46	43	41	9	25	5	2

담배를 경작하는 1 호가 100 명의 품을 산 것이 예외적 사례다.

고용, 피고용관계에 따라 농가를 구분해 보면 대부분의 농가가 자급수준에 있고, 피고용농가와 고용농가가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앗이 일수도 기계화와 함께 점차 감소해 1986년의 377개에서 1988년에는 240개로 줄어 들었다. 품앗이는 대부분 모내기 (185개)와 수확 (37개) 때 이루어지며

비슷한 연령층에서 서로 교환된다.

개별적 품앗이 외에 공동노동조직으로 놀이계가 발전된 형태의 모내기조직이 198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30~40 대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며, 1988년에는 6가구가 공동으로 자경지 8,900평외에 노령가구의 3,000평을 추가로 이양하였다.¹⁰⁾ 이외에 노동력은 있으나 노령화로 남들이 품앗이를 꺼리기 때문에 모내기가 어려운 50대후반~60대의 9가구는 1988년에 별도의 작업단을 만들어 본인들의 경작지를 이양작업하였다. 1986년까지는 텔곡기 소유자를 중심으로 2개의 작업단이 있었으나 콤바인의 이웃마을에 보급되면서, 텔곡기가 없어져 해체되었다. 이들은 6명(자동식) 또는 7명(반자동식)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으며, 5~6%의 텔곡료를 받아 그중 50%는 기계소유 및 운전자가 나머지 50%는 참여자들이 균등분배하였다(식사는 기계소유자가 부담).

노임은 연초에 마을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985년의 경우 모내기때 5,000원, 기타의 경우는 여자 3,000원으로 타부락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는 씨족부락으로서의 특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남의 품일을 꺼리기 때문에 추가지불이 필요했다. 그러나, 농외취업기회가 늘어나면서 1987년부터는 노임이 급속히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여자 밭일의 경우에 노임은 낮은 수준이다.

표 3-33 농업노임

단위: 원/일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남	모 내 기	5,000	5,000	8,000	10,000
자	기 타*	5,000	5,000	8,000	10,000
여	모 내 기	5,000	5,000	8,000	8,000
자	기 타	3,000	3,500	4,000	4,000

* 실제로 남자를 모내기 외의 농사일에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10) 이는 '도급'으로 불리우며 일종의 청부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 농업기계화

증촌마을은 호당 경지면적이 작아 기계화의 수준이 낮다. 그러나, 1986~87년 경지정리의 결과로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 주민의 기계보유상태를 보면 '88년 현재 경운기가 6대, 동력분무기가 4대 외에 다른 농기계는 없다. 동력탈곡기는 2대가 있었으나, '86년에 그중 한 농가가 비농업부문에 취업함으로써 처분하였고, 이듬해 나머지 1가구도 처분하였다. 앞으로도 수확작업과 함께 콤바인작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탈곡기는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앙기, 콤바인, 트랙타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앙, 수확작업은 평촌 2리, 오리(五里) 주민의 기계임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표 3-34 농기계 보유

단위 : 대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경 운 기	6	6	6	6
이 앙 기	-	-	-	-
콤 바 인	-	-	-	-
동 력 탈 곡 기	2	1	-	-
동 력 분 무 기	3	3	4	4

표 3-35 수도작 기계작업률

단위 : 평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미 곡식부면적	66,111	67,411	65,958	66,459
기계면적				
이 앙 (%)	0 (-)	0 (-)	1,200 (1.8)	23,859 (35.9)
작업면적				
수 확 (%)	0 (-)	0 (-)	11,098 (16.8)	32,631 (49.1)
정 지 (%)	-	-	57,648 (87.4)	55,759 (83.9)
경 운 (%)	-	-	57,648 (87.4)	57,553 (86.6)

이양, 수화은 1986년까지는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경지정리후 기계작업이 늘어 '88년에는 이양면적의 35.9%, 수화의 49.1%가 기계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경운, 정지는 85%내외가 경운기로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역축을 이용한다.

농기계작업에 따르는 수수료는 4년간 거의 변동이 없어 평당 경운이 25원, 써래질이 75원(2회), 수화은 50원이다. 이양은 다른 부락에 비해 비싼 편으로, 육묘까지 포함하면 100원, 제외하면 50원으로 되어 있다.

4. 겸업화와 농외활동

평촌3리는 대도시인 대전 근교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농업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1985년에 대전과의 시내버스가 12회에서 20회로 운행횟수를 늘리면서부터 대전과의 접근도가 더욱 좋아져 비농가와 겸업농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1986년 경부터 이웃 평촌1리에 직물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체들이 들어나면서 공장취업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비농업가구는 1호에서 6호로 겸업농은 9호에서 16호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비농업종사자는 10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마을에서 전통적인 비농업활동으로 단청기술이 있다. 단청기술은 20여년전 이 마을 출신 승려 유○봉에 의해 보급되어 상당수가 이에 참여하였는데 최근에는 더욱 늘어나 1988년 현재 6명(비농업가구 2명, 겸업농가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3월~12월 사이에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단청작업이나 행화제작에 종사

표 3-36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단위 : 호, 명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비농업 가 구 *	호 수	1	2	4	6
	종사인원	1	2	7	6
겸업 농	호 수	9	15	15	16
	종사인원	9	15	17	19

* 비농가중 비농업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따라서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지주)나 농업노동자 가구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기타 가구는 제외.

하고 있다. 이들중 1인은 독립기술자로서 밑에 몇명의 기술자를 고용하여 사찰에서 작업을 도급받아 운영하며, 나머지 5인은 피고용인이다. 피고용시 임금수준은 기술에 따라 일당 15,000 ~ 30,000 원을 받는다.

공장 취업자는 1985년 1명(비농가)에서 6명(농가 4명, 비농가 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외에도 사기업체의 사무, 경비직이 4명으로 늘어나 비농업 취업기회에의 접근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공장취업자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5 km 떨어진 평촌 1리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부분 40 ~ 50대 여성의 단순노동력으로 월 13 ~ 15 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32번 가구의 취업자는 61세의 여성으로 대전의 봉제공장에서 08:00 ~ 19:00 까지 실밥 따는 일(속칭 시아게)을 하는데 월 9 만원의 저임을 받고 있으나 특별히 다른 소득원이 없어 다니고 있다. 회사 경비직은 격일제 24시간 근무로 그 노동강도의 여하간에 농업과의 겹업이 가능하여 30 ~ 40대 경영주의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철도공무원 1명, 농협직원이 2명 있어 이들은 마을 내에서 상위 소득자에 속한다.

인조진주가공은 소규모의 가공기계를 가옥내에 설치하고 대전의 공장에서 원료를 받아 구슬을 가공하는데 월 10 ~ 15 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전에는 여러 가구가 하였지만 현재는 25번 가구만 참여하고 있다.

비농업종사자의 연령은 3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 50대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의 2배이며 여자는 마을내 가게를 운영하는 1인, 간호보조원 1인을 제외하고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공장에 취업하고 있다.

표 3-37 비농업가구의 내용, 1988

가구 번호	경 지 소유면적	비 농 업 활 동 종 사 자						
		관계	성	연령	직업	종사일수	취업지	연간소득(만원)
4	1,206	아들	남	35	단 청	200	전 국	300
32	0	본인	여	61	봉제공장	330	대 전	99
33	895	딸	여	20	사 무 원 (택시회사)	-	대 전	-
55	0	본인	남	43	단 청	270	전 국	300
57	0	"	여	51	공 장	365	평촌 1리	160
59	0	"	남	49	제화공장 (경비직)	300	대 전	300

표 3-38 경업농의 농외활동 내용, 1988

가구 번호	경지면적(평)		농 외 활 동 종 사 자								
	소 유	경 작	농외활동내용	관계	성	연령	종사일수	취업지	연간소득(만원)	비 고	
2	3,600	3,600	철도공무원	본인	남	56	365	연 산	720	영농참여	
5	1,745	1,945	공 장	처 여	58	330	평촌1리	150	"		
12	1,500	2,840	정미소	본인	남	63	50	마 을 내	250	"	
19	303	1,903	공 장	처 여	44	330	평촌1리	130	"		
20	1,000	3,700	날품노동	본인	남	47	100	부근마을	200	"	
21	1,180	1,380	단 청	본인	남	49	90	전 국	200	"	
25	1,468	1,568	인조진주가공(하청)	본인	남	63	180	마 을 내	70	"	
28	1,949	3,249	부동산중개대리행정	본인	남	54		면 내	200	"	
			간호보조원	딸 여	22	270	대 전	400	영농불참		
29	1,914	1,914	단 청	본인	남	53	260	전 국	420	영농참여	
31	0	1,600	회사(사환)	아들	남	19	365	대 전	200	"	
37	766	1,966	공 장	처 여	31	300	평촌1리	110	"		
39	1,500	300	농협(노무직)	본인	남	37	365	혹 석 리	360	영농불참	
			가계(마을내)	처 여	32	365	마 을 내	60	영농참여		
41	1,707	1,707	회사(경비직)	본인	남	36	100	대 전	60	"	
			단 청				180	전 국	270		
42	445	845	단 청	아들	남	36	270	전 국	400	영농불참	
50	1,000	0	농 협	본인	남	37	365	평촌1리	500	영농참여	
61	0	1,500	날품노동(미쟁이)	아들	남	33	365	대 전	손해		
			공 장	며느리	여	30	90	평촌1리	54		

표 3-39 비농업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1988

단위 : 명

연 령 층	남	여	계 (%)
10 ~ 19	1		1 (4.0)
20 ~ 29		2	2 (8.0)
30 ~ 39	7	3	10 (40.0)
40 ~ 49	3	1	4 (16.0)
50 ~ 59	3	2	5 (20.0)
60 ~ 69	2	1	3 (12.0)
계	16	9	25 (100.0)

5. 가계구조

자급자족적 경제구조하의 농가가 상품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 매년마다의 농가의 수입과 지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된다.

생산측면에 있어서 주요 지출항목인 종자, 비료, 농약 등의 투입이 증가되고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기계화 등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음식, 의복, 광열 등의 소비지출도 점차 구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냉장고, T.V, 세탁기, 가스렌지 등 생활편익시설과 정보전달매체, 자녀 교육비 등은 농가의 자금수요를 확대하고 그 운용을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농가가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는 가에 따라 농가발전 지향이 다양화 된다.

본절에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수입, 소비지출, 투자 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나, 조사의 한계로 인한 자료의 제약상 농가의 농업고정자산투자, 내구소비재 구입, 농업 외 투자, 교육비, 이전 수입 및 지출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의 부채 및 저축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한정 한다.

가. 농업투자

증촌마을의 농업고정자산투자는 타부락에 비해 매우 작은 편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업에 대한 태도를 짐작하게 해 준다. 4년간 총 투자액은 3,482 만원으로 호당 78만 원에 불과(전국 평균 1988년, 160 만원)하며 이중 절반 이상이 1986/87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의 부담금이었다. 특히 4년간 마을내 농가의 농지구입은 1건도 없었으며 (경지정리에 따른 면적 변동분에 대한 정산대금은 제외), 농기계구입도 총 7건 640 만원에 불과하였다. 농기계 구입은 경운기가 3대로 가장 많았고 분무기, 탈곡기, 양수기, 이앙기가 각 1대였다. 농지기반투자중 33건은 경지정리 부담금, 5건은 관정, 객토와 제방구축이 각각 1건이었다. 시설물중 1건은 비닐하우스, 1건은 양돈농가의 축사, 1건은 담배건조장이었다.

4년간 50만원 이상을 투자한 농가는 총 5호였다. 이들은 비교적 경영주가 젊은 편이거나 후계자가 있어 농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경지소유면적은 크지 않지만 일부는 임차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88년 임차면적 3번 910평, 14번 4,800평, 35번 4,100평)

표 3-40 농업고정자산 투자액¹⁾

단위: 건,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농지구입	0	0	0	0	0	0	0	0	0	0
농기계	3	1,230	2	1,100	0	0	2	4,070	7	6,400
농지기반	5	1,255	0	0	34	18,948	1	20	40	20,223
기타시설물	1	2,000	2	6,200	0	0	0	0	3	8,200
계	9	4,485	4	7,300	34	18,948	3	4,090	50	34,823
호당평균액 ²⁾	-	93.4	-	158.7	-	430.6	-	99.8	-	782.5 ³⁾

1) 대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투자로 분류되나 그 구입, 판매의 변동이 심하고 또 비육목적이 강하여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2) 농가만의 평균임.

3) 매년의 평균액을 합계한 것임.

표 3-41 농업투자 농가의 개황

가구 번호	경영주 연령 ¹⁾	경작규모 (평) ²⁾	투자종류	투자액 (천원)	비 고
3	35	3,052	이 양 기	3,400	상자 2,000개 포함, 임작업 목적
12	60	2,015	경 운 기 돈 사 탈 곡 기	1,050 5,000 700	후계자(31세) 같이 영농
14	44	1,925	경 운 기	670	중고구입, 임작업 목적
28	51	2,819	비닐하우스	2,000	딸기 등 재배, 1년후 해체
35	49	3,694	담배건조기	1,200	유일한 담배재배농가

1) 1985년 기준 연령.

2) 1985~88 평균.

나. 농업외 투자 및 내구소비재 구입

농가지출중 한 분야는 농업외의 부문에서 소득을 얻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거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지출부분은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민이 화폐경제에 편입되어 감에 따라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근교마을의 농업외 자산투자는 아직은 미약한 편이다. 조사기간중 주택증개축이 2건 신축이 2건 있었으며, 1988년에 실시된 국민주택정시 5가구가 123만9천원 상당의 주식에 투자하였다. 이 밖에도 1가구가 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외에 특별한 농외투자 사례는 없었다. 특히 농외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투자는 전무하였다.

주택을 신축한 가구는 17번, 50번 가구로 17번가구는 대전에 취업한 두 자녀가 송금해주는 돈이 있으며¹¹⁾ 50번 가구는 농협에 다니는 겸업농이다.¹²⁾ 이외에 증축자금으로 150만원을 투자한 36번 가구도 자녀송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¹³⁾ 주식에 200만원을 투자한 39번 가구는 37세의 젊은 경영주로 부부 모두 농외활동에 종사하는 겸업농이다.

내구소비재의 구입지출에서는 정보매체 및 문화·오락용품으로서의 T.V, 가정주부

11) 안채만 신축하였으며 비용은 550만원이며 우선 사채로 충당. 두 자녀는 공장에 다니며 각각 연간 50~100만원 정도 송금한다.

12) 단위부락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양옥식으로 신축하였으며 비용은 1,500만원.

13) '88년 송금액 84만원

표 3-42 농업외투자

단위 : 건, 천원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 지	—	—	—	—	—	—	—	—	0	0
건 물	—	—	2	1,900 ¹⁾	—	—	2	20,500 ²⁾	4	22,400
유가증권	—	—	—	—	—	—	6	3,239	6	3,239
기 타	—	—	—	—	—	—	—	—	0	0
계	0	0	2	1,900	0	0	8	23,739	10	25,639
호당평균	—	0	—	32.8	—	0	—	423.9	—	456.7

1) 개축 2건

2) 신축 2건

표 3-43 내구소비재 구입

단위 : 건, 천원

	1987		198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승 용 차	—	—	—	—
오 토 바 이	1	600	—	—
전 화	—	—	4	820
칼 라 T . V	1	170	4	1,680
냉 장 고	4	1,212	3	850
세 탁 기	1	330	1*	72
가 스 렌 지	5	625	7	750
장 농	—	—	1	180
기 타	3	250	6	887
계	15	3,187	26	5,239
호 당 평 균	—	54.0	—	93.6

* 털수기

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냉장고, 가스렌지 구입이 건수에서나 금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이다. 전화, T.V, 가스렌지의 보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으로¹⁴⁾ 앞으로 냉장고, 세탁기의 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14) 제 4장 4절 참조.

다. 교육 및 의료비

농가의 가계비 중에서도 교육비, 의료비 등은 그 절대액수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는 부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근교마을에서 중학교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988년 현재 모두 26명(호당 0.46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중 외지에 출타하여 취학한 학생은 9명으로 대학생 모두와 고등학생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중학교는 모두 면소재지에 있는 기성중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학비부담은 대부분 본가에서 하고 있으나 도시에서 취업하여 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부담한 경우가 2건, 양자로 입적한 친척이 부담한 경우가 1건 있다.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호당 교육비 지출액은 1987년의 30만원에서 1988년에는 2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농가의 평균은 75만원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1988년에 교육비로 백만원 이상 지출한 가구는 6호(1, 5, 11, 20, 28, 35번 가구)에 이른다.

1988년은 농촌에 지역 의료보험의 적용된 해로 농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의보가 실시되기 전에는 전에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가 21호 있었는데 이들이 지역의보의 실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영세민의료보호(2종), 의료부조(3종) 대상자가 30% 이상이며, 직장의보에 편입된 비중도 거의 비슷하다. 이중 출타하여 취업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

표 3-44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지출, 1988

단위: 천원

구 분	학 생 수		학비부담		학생 / 인당 연간비용 ¹⁾			마을전체의 교육비부담
	통학	출타	본가	기타	납입금	생활비 ²⁾	계	
중 학 生	15	0	15 ³⁾	0	129	83	212	3,185
고등학생	2	6	7 ⁴⁾	1	339	471	810	6,480
대 학 生	0	3	1	2	220	300	520	1,560
계	17	9	23	3	—	—	—	11,225

1) 농촌 본가에서 부담한 액수

2) 자택에서 통학하는 경우의 숙식비는 포함시키지 않음.

3) 이 중 6명은 영세민가구 자녀로 학비 면제(육성회비 연 47,000 원 납부)

4) 이 중 1명은 영세민가구로 학비 면제(공업고등학교)

표 3-45 교육비 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1987			1988		
	총 액 수	호당평균	부담호당	총 액 수	호당평균	부담호당
납 입 금	7,580	128	505	5,305	95	354
생활비	10,140	172	676	5,920	106	395
계	17,720	300	1,181	11,225	201	749

표 3-46 의료보험 여부

단위 : 호 (%)

구 분	1987		1988		
직장의보	경영주본인	3	(5.1)	3	(5.5)
	출 타 자녀	19	(32.2)	13	(23.6)
직장 + 지역	0	(-)	2	(3.6)	
지역의보	0	(-)	20	(36.4)	
의료부호	16	(27.1)	10	(18.2)	
의료부조			7	(12.7)	
일반	21	(35.6)	—		
계	59	(100.0)	55	(100.0) *	

* 1호는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이동하여 제외

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영주 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 가족(의보험자의 형제)은 별도로 지역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

의료비 지출은 1987년에는 호당 6만 2천원, 1988년에는 11만 8천원 정도이지만 가구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연간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가 '87년에는 2가구에서 '88년에는 6가구로 늘어났다.

1988년도중 2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의 지출내역과 병명을 정리한 것이 <표 3-48>이다. 총 20명의 환자 중 중풍을 포함하여 신경통 환자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소화기계통이 3명, 골절, 신경쇠약이 각각 2명씩으로 흔히 말하는 농부 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47 의료비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1987	1988
지 출 가 구 수		16	18
의 료 비 액 수		3,645	6,632
호 당 평 균		62	118
의 료 비 지 출 규 모	10 만원 미만	5	4
	10 ~ 20	1	1
	20 ~ 50	8	7
	50 ~ 100	2	4
	100 만원이상	—	2

* 의료보험료 제외 자부담액

표 3-48 상병과 의료비 부담 내역, 1988

가구 번호	환자		의료비 (천원)	병 명	가구 번호	환자		의료비 (천원)	병 명
	성	연령				성	연령		
1	남	55	240	위장(소화)	25	여	61	240	변비
2	여	55	200	관절염		남	63	100	신병*
4	남	70	700	교통사고후유증(골절)	28	남	54	500	위장
	여	34	430	귀		여	53		부인병
8	여	63	200	신경통	38	여	61	200	신경통
9	남	70	300	신경통	39	남	37	700	치아
	여	66		"	41	여	34	200	신경쇠약
10	남	73	500	신경통		여	7	150	신경쇠약, 폐염
	여	67		"		남	6	100	오줌소태
17	여	8	600	골절					
18	여	57	1,500	중풍					

* 신병이란 뚜렷한 증세없이 노환, 농부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적 질병을 총칭하고 있음.

라.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농촌가족중 도시로 나간 출타가족(도시분가)과 농촌본가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관계가 지속된다. 특히 취학출타자는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본가에 의존함으로써 농촌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취업 출타자도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본가에 송금을 하거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일시적 실직, 질병 등의 상황에서는 본가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향하기도 한다.¹⁵⁾ 이밖에도 분가한 형제, 자녀의 경우에 분가시 또는 분가후에 농촌가족과의 사이에도 증여 등의 경제관계가 성립한다(이것은 이전 수지로 처리). <표 3-49>은 출타, 분가가족과의 경제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취학출타자는 9명중 7명이 본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어 보조가구 호당 1,068 천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취업출타자는 총 46명중 4명이 본가에서 식량, 방세 등의 보조를 받는 반면, 7명이 송금을 하고 있다. 취업출타자와의 사이에서는 1988년에는 총 594만원의 순유입이 나타났다.

표 3-49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단위: 천원

		1985	1986	1987	1988
출타가족과의	보 조 (A)	17,580	17,874	13,970	7,504
경제관계	피 증 (B)	160	5,880	14,530	6,740
이전수지 ¹⁾	수 입 (C)	-	-	6,868	9,135
	지 출 (D)	1,240	1,390	4,440	39,882 ²⁾
순유입 (B+C-A-D)		-	-	2,988	31,511

1) 1985,86년도의 이전수입은 조사되지 않았음.

2) 이중 1건은 농지증여(상속몫, 28,352천원).

표 3-50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천원

취학 출타자수	그중 보조받는 수	총 보조액	학생 1인당 보조액	보조가구당 평균 보조액
9	7 *	7,476	1,068	1,068

* 이중 1명은 학비는 친척이 부담하고 식량만 보조.

15) 1988년 전입자 5명중 2명은 이러한 경우임.

표 3-51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 천원

	인 원	총 액	1 인 당액 수	가구당액 수
보 조 (A)	4	801	200	200
피증 (송금, B)	7	6,740	963	1,123
A - B	-	5,939	-	-

표 3-52 이전수지, 1988

단위 : 건, 천원

	현 금	농 산 물	농 지	기 타	계
이전수입	건 수 액 수 (A)	13 7,270	0 0	0 0	10 1,865
이전지출	건 수 액 수 (B)	3 6,400 ¹⁾	10 5,130	1 28,352 ²⁾	0 0
순수입 (A - B)	870	- 5,130	- 28,352	1,865	- 30,747
호당평균	수 입 지 출 순 수 입	130 114 16	0 92 - 92	0 506 - 506	33 0 33
					163 712 - 549

1) 이중 2건, 600 만원은 분가시 비용.

2) 여자 가구주로 아들에게 상속, 아들이 판매 (886 평):

분가자녀, 형제와의 이전수지를 보면, 이전수입은 현금이 13건에 727 만원이고, 기타 냉장고, TV, 가스렌지 등의 가전제품이 10건 있다. 이전지출은 분가시 비용과 농지상속 등 3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쌀을 보내주는 것으로 총 10가구에서 61가마를 보조하였다. 분가·상속 뜻을 제외한 총 이전지출은 553 만원으로 이전수입의 60% 수준이다.

마. 저축 및 부채

농가의 연간 총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부채 및 저축의 증감으로 나타난다.

증촌마을은 부채액이 타부락에 비해 작은 편이고 특히 사채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1988년 8.6 %). 그러나 부채총액은 계속 증가하여 3년간 47.8 % 가 늘어났다. 또한, 이 마을에는 마을금고가 조직되어 주민을 대상으로 예대금을 취급하고 있다.¹⁶⁾ 1988년의 마을금고 총대출은 19건 14,672 천원으로 주민 총부채의 10.7 %에 달한다.

부채규모별로 가구를 분류해보면, 상당수의 가구가 부채가 전혀 없으나 이들은 대부분 비농가이거나 경업농, 경지규모가 작은 영세농층에 속한다. 1988년도에 부채가 없거나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개황은 <표 3-55>, <표 3-56>과 같다.

표 3-53 호당 평균 부채

단위 : 천원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B/A×100 (%)
농 협 *	1,593	1,652	1,748	2,232	140.1
사 채	59	63	82	210	355.9
계	1,652	1,715	1,830	2,442	147.8

* 마을금고 포함 (1988년 18건 14,672 천원, 호당 평균 262 천원)

표 3-54 부채규모별 가구수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농 가	비 농 가
0	25	25	22	9	12
50 만 원 미 만	3	5	9	7	-
50 ~ 100	9	6	4	1	-
100 ~ 200	8	6	10	7	2
200 ~ 300	5	3	2	4	1
300 ~ 500	0	3	4	7	-
500 만 원 이 상	8	8	8	6	-
계	58	56	59	41	16

16) 이에 대해서는 4장 참조.

표 3-55 부채없는 가구의 개황, 1988

구분	가구 번호	경영주 연령	가구원 수	경지면적		농외활동		비고
				소유	경작	내용	연간수입	
농 가	5	86	2	1,745	1,945	공장취업	150 만	부인 (58세)이 공장 취업
	9	70	2	2,581	2,581	-	-	농업수입으로 기계비 충족, 교육비 부담없음
	10	72	2	900	900	-	-	"
	25	63	2	1,468	1,568	인조진주 가공	70 만	농업, 농외소득으로 기계비 충족
	40	56	3	1,092	2,031	-	-	
	42	69	6	445	845	단청	400 만	아들의 농외소득으로 기계비 충족
	47	60	3	980	1,540	-	-	농업소득, 출타자녀 송금 (180만원)
	49	81(여)	2	500	500	-	-	
비 농 가	61	70	6	0	1,500	공장취업	54 만	아들의 농외취업
	4	70	6	1,206	0	단청	200 만	농외소득, 지대수입
	13	77	2	0	0	-	-	자녀보조 (연 60만원) 로 생활
	22	67	2	0	100	-	-	자녀보조 의존
	33	56(여)	3	895	0	회사사무원	-	딸 농외취업, 지대수입
	43	57(여)	1	700	0	-	-	지대수입 의존
	51	74(여)	1	0	0	-	-	영세민 구호대상
	53	64(여)	1	886	0	-	-	지대수입, 자녀보조 (연 50만원)
	54	73(여)	1	0	200	-	-	자녀보조 의존
	56	37	1	0	0	-	-	거택보호자
	57	51(여)	4	0	0	공장취업	160 만	경영주 농외소득
	58	71(여)	1	0	0	-	-	자녀보조 의존
	59	39	4	0	0	공장취업	300 만	경영주 농외소득

가구별 저축액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1988년에는 26 가구가 총 5,925 만원의 저축을 하여 부채액의 43.3%에 이르고 있다. 저축의 증가는 교육보험을 비롯하여 각종 보험의 판매가 농촌지역에까지 확산된 것에 연유하며, 농가목돈마련 재형저축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축수단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이용하며 사채는 없다.

저축과 부채를 합하여 순저축, 순부채 액수로 가구를 구분한 것이 <표 3-58>이다. 55.4%의 가구가 부채·저축이 상계되는 수준에 있는 반면, 순부채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10호, 순저축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호로 나타났다. 전업농의 많은 수가 순부채 상태인데 반하여 오히려 경업농과 비농가는 순저축 상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6 고액부채 가구의 개황, 1988

단위: 천원

가구번호	부채액	비고
12	10,250	소입식 400만(복합영농실패), 경운기 구입, 딸 결혼(300만)
17	10,830	복합영농실패(소입식 200만), 주택신축(550만)
21	6,500	복합영농실패(소입식 180만, 시설원예 270만)
35	8,600	복합영농실패(소입식 120만), 경지정리 면적변동 정산금
46	26,470	복합영농(소입식 120만, 시설원예 134만), 돈사시설 800만, 후계자 600만
50	20,120	주택신축 1,500만, 복합영농(소입식 120만)

표 3-57 호당 평균 저축액

단위: 천원

구분	1985(A)	1986	1987	1988(B)	B/A × 100(%)
금융기관	165	237	-	1,058	641.2
계	0	0	-	0	-
사채	36	36	-	0	-
계	201	273	408	1,058	526.4

표 3-58 순부채·저축 규모별 가구수, 1988

단위 : 호

구 분		계	전업농	겸업농	비농가
순 부 채	500 만 원 이 상	5 (8.9)	4	1	-
	300 ~ 500	5 (8.9)	4	1	-
	200 ~ 300	3 (5.4)	2	1	-
	100 ~ 200	6 (10.7)	4	1	1
중간 (-100 ~ 100 만)		31 (55.4)	10	9	12
순 저 축	100 ~ 200	2 (3.6)	1	-	1
	200 ~ 300	0 (-)	-	-	-
	300 ~ 500	2 (3.6)	-	2	-
	500 만 원 이 상	2 (3.6)	-	1	1
계		56 (100.0)	25	16	15

제 4 장

사 회 구 조

증촌마을의 사회구조는 전체가구의 87.7%를 차지하고 있는 무송 유씨의 씨족 집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증촌마을의 사회집단의 큰 흐름은 무송 유씨의 문 중계와 종중조직이며, 이와같은 혈연집단의 조직·운영에 마을의 자치행정과 각종 사회집단활동이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의 자치행정을 위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개발위원회와 반장 등 조직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을 위한 각종 사회집단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혼 상제 등의 사회적 통과의례에 마을사람들끼리 상호 부조하는 계조직이다.

마을의 墓事는 明倫契를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대처해가고 있다. 명륜계는 마을의 전 가구주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엄격한 규범을 갖추고 마을의 상사에 대처하고 있다. 명륜계외에 상사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위친계 등이 있다.

마을의 결혼도 1970년대까지는 혼사계를 조직해서 공동체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마을구성원의 결혼이 대부분 마을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자 이러한 조직이 사라졌다. 이외에 마을주민들은 동갑계, 친목계 등을 조직하여 상호 정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애경사에 상호 부조하는 메카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증촌마을의 정치구조는 무송 유씨의 씨족간 堂內의 세력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사회망은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교환망의 존재와 또래집단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는 비공식집단으로서의 의사교환망이 동시에 존재한다.

소시오메트리에 의해서 확인된 마을의 지도자는 대부분 현시적인 지도자와 일치

하고 있다.

증촌주민들의 중요한 종교는 불교로 나타나고 있지만 불교적 신앙생활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불교신도들의 상당수가 전통적인 무속적 고사와 계절제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세시풍속도 1960 ~ 70년대의 산업사회화의 물결 속에서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식·가치관의 변화, 주민들의 이촌으로 인한 인적구성원의 부족 등으로 사라져 버리고 일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식·가치관의 변화는 전기·전자식 생활용품의 보급으로 더욱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교통, 통신수단의 확대보급으로 증촌마을은 빠르게 도시화의 흐름속에 합류하고 있다.

1. 사회집단

증촌마을의 사회집단은 협연집단, 지역집단, 이익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86년 현재로 총 20개의 공식적인 사회집단이 파악되고 있다.

협연집단으로는 무송 유씨 문중계가 있다. 무송 유씨 문중계는 마을주민 56호 중 49호가 참여하는 대종중, 중종중,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중계는 대종중, 중종중이 각각 1개씩 조직되어 있고 소종중은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조직 운영되고 있다.

지역집단으로는 정부의 지방자치조직법 및 지방정부 조례에 의거 설치된 비자생적 집단인 행정리가 있다. 행정리의 구성원은 평촌3리 주민전체이지만 전체가구의 87.7%가 무송 유씨이기 때문에 행정리의 운영은 자연히 무송 유씨들의 씨족구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증촌마을은 3개의 반으로 구분된다. 지역공동체로서 증촌마을은 里행정의 집행기관으로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와 개발위원회를 둔다.

이익집단은 다시 경제적 이익집단과 사회적 이익집단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는 수리계, 마을금고, 저축계가 있다. 수리계는 증촌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이익집단이다. 증촌보라고도 불리는 수리계의 봉리구역은 23ha¹⁾에 이른다. 마을금고는

1) 1986년 경지정리 이전까지는 증촌보의 봉리구역은 17ha, 계원은 43명이었다. 그러나 경지정리로 봉리면적이 23ha로 증가했고 계원도 13명이 증가하여 56명이 되었다.

표 4 - 1 사회집단의 조직 현황

구 분	혈연집단	지역집단	이 익 집 단		계
			경 제 적	사 회 적	
자 생 적	무송유씨문중계 (1)		수 리 계 (1) 마을금고 (1) 저 축 계 (2)	상사계 (10) 친목계 (3)	18
비 자생 적		행 정 리 (1)		새마을부녀회 (1)	2
계	1	1	4	14	20

1973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새마을금고는 성장하여 1983년에 법인격화 됐었으나 1983년 부실금고로 판정을 받아 법인이 해체되고 현재는 마을 자체의 마을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저축계는 마을부녀자들이 소량의 금액을 적금식으로 운영하는 계집단이다.

사회적 이익집단은 상사계, 친목계, 새마을부녀회 등으로 구분된다. 상사계는 마을 내에喪이 발생할 때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로서 마을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명륜계와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구성한 또래집단 성격의 위친계로 구분된다. 친목계는 동갑 또는 또래의 연령집단이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것으로 이들 집단은 타집단과 달리 친밀도와 응집력이 강하고 남녀혼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에 기존의 여러 부녀자집단²⁾을 통합하여 조직한 것이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추진 과정에서 절미저축운동, 공동작업 등을 통해서 공동 기금을 마련했으며 구판장 운영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그 활동이 미약하다.

가. 혈연집단

증촌마을의 혈연집단으로는 무송 유씨집안의 문중계가 있다. 무송 유씨 문중계의 조직년대에 관한 기록은 없다. 현재의 문중계는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 炳字 행렬의 14대조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조직한 것으로 무송 유씨 진잠파에 속한다. 무송

2) 1977년 이전의 부녀자 대상 사회집단으로 생활개선 구락부, 부녀교실, 부녀회, 가족계 회 어머니회 등이 있었으나 국무총리의 지시로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되었다.

유씨 문중계는 증촌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를 비롯하여 인근 마을인 오리 등에 거주하는 동족 80여호로 구성하며 대종중, 중종중 각 1개와 소종중 2개 집단으로 구성 된다.

무송 유씨 문중계는 1945년 이래 조직상의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에 의한 사회변동의 물결은 이 마을 문중계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로, 문중 구성원의 이촌에 따른 문중계 구성원의 변동이다. 1960~70년대에 나타난 공업화, 도시화로 짊은 연령층의 대량적인 이촌은 문중 구성원의 노령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중 구성원의 결속과 문중활동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손 등 문중의 핵심적인 인물의 이촌에 따라 문중의 의사결정은 종손 중심에서 문장이나 선출된 문중대표인 공사원으로 바뀌었다.

둘째로, 산업사회화와 경제발전으로 나타난 시장경제체제의 확대로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현물재산³⁾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되었고 재산증식도 어렵게 되어 문중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과거 1960년대까지만 해도 長利에 의한 재산증식이 손쉽게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연 2할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재산증식 속도가 더딜 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확대에 따라 계원에 의한 대출희망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위토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져 종중이 쓸 수 있는 연간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근교에 있는 임야, 대지 등 토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의 경제적 가치상승은 문중계 활동과 조직원의 응집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이주한 동족원들의 소가족중심의 사고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강화로 문중활동에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가치관을 갖는 동족원으로 문중계의 구성원이 대체되는 가까운 장래에 혈연집단으로서의 문중계는 그 조직과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조직목적

문중계는 동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공동 집전하기 위하여 조직된 제사집단이다. 따라서 무송 유씨 문중계는 조상의 묘역을 관리하고 매년 가을에 시제를 지내는 일을 중요한 업무로 삼는다. 또한 이들은 문중의 공동재산인 임야, 농지, 대지 등을 관리하며, 문중 구성원의 친목과 공동관심사를 협의·조정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3) 주로 쌀을 의미한다.

② 구성 원

무송 유씨 문중계는 유씨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14 대조의 묘역이 있는 증촌마을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1988년 현재 증촌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무송 유씨는 49호가 있다.

문중계의 구성원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그 구성원의 자격이 특정한 조상들의 후손들로 구성되므로 그 후손들은 누구나 문중계원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종중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문중계의 구성원은 명시적으로 명단을 작성하지도 않는다. 현재 문중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증촌부락내 거주자 49명과 오리와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무송 유씨 진잠과 雄字 후손 약 30명 등 80여명이다.

무송 유씨 문중계는 대종중 중종중 각 1개씩 조직되어 있고 소종중은 2개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종중집단의 구분은 그들이 모시는 공동선조에 따른 구분이다. 대종중은 현재 炳자 돌림의 14 대조의 후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증촌마을 유씨들은 모두 雄자 조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종중에 속하게 된다. 중종중은 炳자의 10대조의 후손들로 구성된다. 이 경우는 32번 가구를 제외한 유씨 전 가구가 중종중에 해당된다. 소종중은 炳자의 8대조인 権의 후손과 櫺의 후손으로 구분되는 2개의 소종중 집단으로 구분된다. 権의 후손은 8호로 구성되며 櫺자의 후손은 37 가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櫺자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종중이 증촌마을에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소종중에 속하지 않는 무송 유씨들은 4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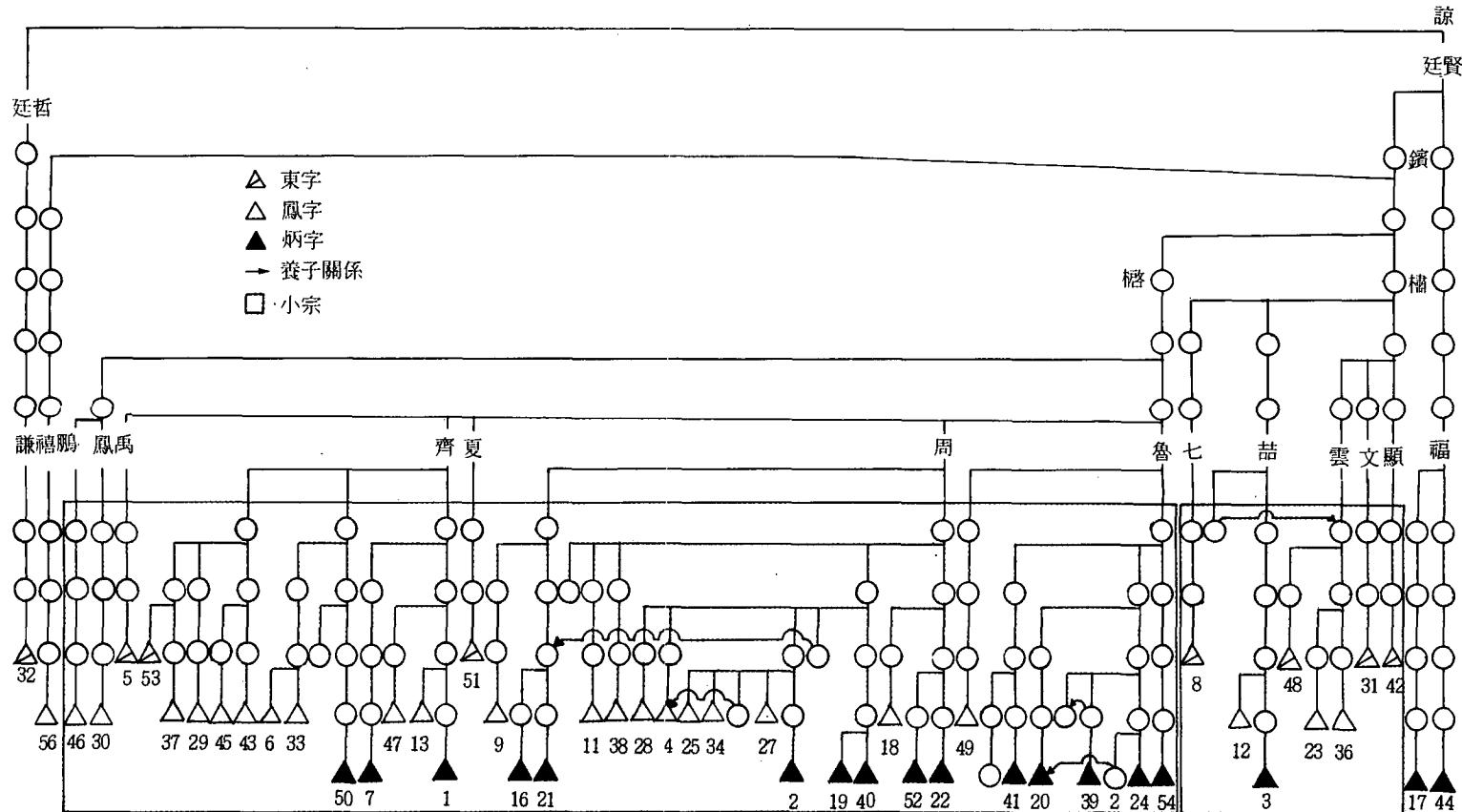
樺자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은 다시 3개의 당내집단으로 구분된다. 즉, 魯자, 周자, 濟자의 후손들이 그들이다. 이중에서 가장 번창한 당내집단은 周자의 후손들로서 현재 15호가 여기에 속하며 다음이 濟자의 후손들로서 11호가 있고 魯자의 후손들은 5호가 있다.

표 4-2 종종별 구성과 구성원 수

종 종 별	구 성 원 구 분	구 성 원 수 *
대 종 중	炳자의 14 대조 후손	49 호
중 종 중	〃 10 대조 후손	48 호
소종중(갑)	權자의 후손	8 호
소종중(을)	樺자의 후손	37 호

* 구성원수는 증촌마을에 거주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그림 4-1 무송 유씨의 문중조직



③ 기 구

무송 유씨 문중계의 기구는 종손, 문장, 공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중계의 최고 지위는 종손이 차지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무송 유씨의 경우 대종중과 중종중 종손⁴⁾의 혈통이 승계되지 않고 있으며 소종중의 종손도 모두 마을밖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문중계의 운영은 문장과 공사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지위는 낮아졌지만 종손은 아직도 형식상 종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며 문중소유의 재산권에도 대표자가 된다. 또한 시제 등 각종 제례의 주재자로서 예외없이 초헌을 한다.

문장은 문중의 고행렬자 중에서 최고령자로 결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문장은 문중 구성원들로부터 덕망을 갖춘 존장으로 존경의 대상이 된다. 무송 유씨의 문장은 두 소종중에서 각각 한사람씩 인정되고 있으나 그중 한사람은 평촌 2리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죽촌마을의 유씨 문중계의 실질적인 문장은 権자 후손 소종중의 후손인 36번 농가로 인정되고 있다.

문장은 종손과 함께 문중의 두 핵이다. 그러나 종손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오늘날 마을에 거주하는 문장은 실질적으로 문중계를 대표하는 원로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종회 등 각종 회의에서 그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례에 있어서도 종손 다음가는 지위를 갖는다.

공사원은 종회에서 선출하며 종회의 종토관리와 제수기의 작성, 묘제의 준비, 종회 개최 및 각종 기록문서의 보관 등 문중계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원은 종회에서 선출되는 두 사람의 유사의 보조를 받아 종회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다. 중종 중겸 権자 후손의 소종중 공사원은 9번가구이고 또 다른 공사원은 12번가구다.

④ 회의 및 의사결정

시제와 종회 등은 문중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들이다. 무송 유씨 문중계의 시제일은 <표 4-3>과 같이 종중별로 구분되어 있다. 문중계의 모임은 시제를 전후해

4) 종손은 문중의 적장자로 승계되며 종중별로 종손의 계보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문중을 대표하고 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지손과 달리 우대를 받으며 종중의 의사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종손은 제사 등 각종의례를 주관하며 문중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보수적 가치관에 의해서 진취적인 행동과 사고에 제한을 받게되어 사회변동에 따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이들은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종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표 4-3 시제일과 종회일

종종별	시제			종회
	일시	장소	대상	
대종중	음력 10.15 ~ 16일	흑석, 오리, 증촌	14, 13, 12, 11代祖	음력 10.30 일
중종중	음력 10.17 일	증촌	10, 9, 8 代祖	음력 11. 1 일
소종중(갑)	음력 10.18 일	"	7, 6, 5 代祖	음력 11. 3 일
소종중(을)	음력 10.18 일	"	6, 5 代祖	음력 11. 3 일

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로 제수기⁵⁾를 작성하기 위한 모임이 있다. 제수기 작성 모임은 문장이 주관한다. 문장은 공사원, 유사 등과 함께 시제를 지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중계의 예산⁶⁾ 범위 내에서 제물과 그 비용을 산출한다. 제수기의 작성은 음력 9월 30일까지는 완료되며 제수기 내용을 위토를 경작하는 작인들에게 통보해서 제물을 준비시킨다.

시제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선대에서 후대의 순으로 지낸다. 따라서 시제는 종종별로 별도의 날을 잡아서 지내게 된다. 시제에는 종손이 참석하여 제를 주재하고 초헌을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종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문장이 제를 주재하고 초헌자가 된다. 공사원은 시제의 제반 진행을 담당한다.

宗會는 시제가 완료된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갖는다. 즉, 대종중의 종회는 음력 10월 30일에, 중종중의 종회는 11월 1일에, 소종중의 종회는 소종종별로 각각 11월 3일에 별도로 갖는다. 종회의 모임은 시제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고 묘역 관리, 종회업무에 대한 공사원의 보고와 토론을 있으며, 종중의 재산관리, 종회활동 등 사항을 논의하고 다음 공사원과 유사 등을 선출한다.

무송 유씨 문중계는 시제와 종회 이외에도 묘역 관리, 종토관리 등을 위해서 수시로 종종별로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은 주로 문장의 뜻을 물어 공사원이 주관

5) 제수기란 시제에 소요되는 제물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6) 문중계 예산은 임야로부터의 임산물 수입, 위토 임대수입, 기타 재산증식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다.

무송 유씨 문중계에서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손이나 문장, 그리고 종종 원로들의 의사는 존중된다. 따라서 대부분 문중계의 실무협의는 공사원과 문장 및 문중 원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정은 큰 무리가 없는 한 문중 구성원들의 추인으로서 합법성을 지닌다.

5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무송 유씨 문중계는 100 ha의 임야와 논 10,700 평, 밭 3,550 평, 대지 1,055 평의 비교적 많은 종중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문중계 유지와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경비는 종중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종중 구성원의 추가적인 경비부담은 거의 없다. 다만, 묘역관리에 있어서 특정의 石物 등을 설치할 경우 소요경비를 책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성원별로 의무적으로 균등 부담하기보다는 구성원의 경제력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증촌의 무송 유씨들은 문중이 소유한 토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구성원은 종중토를 경작⁷⁾하며, 이때 임차료는 일반 임차료보다 낮다. 문중계가 소유한 임야는 씨족원들의 중요한 공동 연료림 채취장이다. 또한 개간 가능한 임야는 개간되어 종종 구성원들이 나누어 경작하고 있으며, 이의 임차료⁸⁾도 일반 토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된다. 그러나 연료가 점차 연탄, 가스, 석유 등으로 대체되면서 문중소유 임야에는 종종에서 리키다 소나무와 낙엽송을 조림하여 경제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6 규범과 통제

무송 유씨 문중계의 문중 구성원은 그들 조상들의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후손들이라는 점에서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구성원 상호간에 강한 연대의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무송 유씨 문중계는 문서화된 규범과 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 등에 관한

7) 무송 유씨들이 경작하는 종토 면적은 약 1.4 ha에 달 한다.

8) 종중토의 임차료는 매년 종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료율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논의 경우는 수확량의 1/3 수준을 유지한다.

규정은 없으나, 문중 구성원간의 서열의식과 강한 혈연적 유대로 인해 문중계의 전통적인 규범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나. 지역집단

증촌마을은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직할시 기성동 13통⁹⁾으로 개칭되었지만 행정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사회조직이나 행정구역의 공간적 범역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역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다.

① 공간적 범위

지역집단으로서 증촌은 1989.1.1 이전의 평촌 3리의 리행정 구역이다. 따라서 증촌마을은 증촌 뜰과 메통골, 방아재의 계곡을 포함하는 공간을 하나의 조직 단위로 한다

② 구성원

증촌마을의 구성원은 증촌에 거주하는 가구 56호로 구성한다. 증촌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새로 이주해 온 가구가 마을내에서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입주신고 행사를 갖는다. 신규전 입자는 전입 후 적당한 일자를 택하여 마을주민을 초청하여 술과 떡 등 음식을 대접하고 입주신고를 하며 마을주민들은 신규 입주자 집에서 이와같은 음식을 들고 인사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입주자를 마을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가구로부터 분가한 자가 마을에 정착하여 새로운 가구를 이룰 때에도 이와 비슷한 신고행위가 있게 된다.

③ 기구

증촌마을은 지역사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이장¹⁰⁾을 두고 있으며, 그 아래

9) 과거의 대덕군 기성면 평촌 3리가 대전직할시 기성동 13통으로 바뀌었지만 조사 당시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한 내적 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988년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10) 1989년 이후 이장의 명칭은 통장으로 바뀌었으나, 마을내에서는 이장으로 통한다.

개발위원회와 반장을 두고 있다. 증촌마을은 3개반으로 나누어져 있어 반당 가구수는 19호 정도가 된다. 반장은 이장을 도와 반의 제반업무 연락과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개발위원회는 1972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마을 개발과 마을행정 수행에 따르는 제반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이장을 지원한다. 1988년 현재 개발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 반장 등 마을의 직능별 지도자와 이와 별도로 선임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증촌마을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된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임시총회 또는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사안들을 처리한다. 정기총회는 연말에 개최되며 여기에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지도자를 선출하고 일년간의 회계결산 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마을개발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사항들, 예를 들면 마을의 노임단가기준 등을 협의 결정한다.

마을총회의 의사결정은 합의제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를 한다. 마을 이장을 선출하는 경우, 먼저 주민총회에서 이장후보를 선출할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전형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의 구두 추천에 의해서 5~6명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별도의 모임을 통해 이장 후보 2명을 정하여 주민총회에 상정한다. 주민들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2인에 대해 투표하며 이중 최고득표자를 이장으로 선출한다. 주민총회에서 이장이 선출¹¹⁾되면 이장은 각 반원의 추천을 받아 반별로 반장 1인과 개발위원 2인을 임명 한다.

5 경비부담

마을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¹²⁾과 이정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적십자회비, 각종 의연금, 지원금 등이 있으며 이와같은 공

11) 실질적으로 이장 선출은 주민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장은 군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민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다. 반장과 개발위원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하는 공식적 절차를 밟는다.

12) 여기서 공과금은 주민들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공통적으로 부과 되는 것을 말한다.

과금은 각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이장이 부과한다. 이때 생활보호자 등은 부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세는 이 행정을 담당하는 이장, 반장들에게 사례하기 위한 부과금이지만 증촌의 경우 이장은 이정세를 받지 않고¹³⁾ 대신 반장들에게만 봄, 가을로 각각 2만원씩 지급한다. 공과금 부담과는 달리 주민들은 이정세를 각호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와 영세민은 이정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재산관리

증촌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산은 마을회관과 대지이다. 이 회관은 1979년도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새마을운동 하사금 300만원으로 무송 유씨 종중에서 회사한 대지 226평에 건평 25평으로 건립되었다. 마을회관은 이장외 2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한편, 새마을회관 내부에 설치된 마을 구관장은 회관 설립 당시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했으나 운영난으로 39번 가구에 임대¹⁴⁾해 주고 있다.

다. 이익집단

① 경제적 이익집단

가) 수리계

(1) 조직목적

증촌마을의 수리계는 일명 増村洑라고 부르며 마을 앞을 흐르는 벌곡천의 물을 이용하여 증촌 뜰 약 23ha의 논에 관수하기 위하여 보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농민들의 자생적 집단이다.

보의 설립연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이 마을이 약 300년 이전에 형성되었고 보운영의 오랜 전통으로 볼 때 보의 연대도 마을의 역사와 같이 오래된 것

13) 이장의 이정세는 1982년부터 받지 않고 있다. 이정세는 전통적으로 가구당 쌀 1斗, 보리 1斗씩 부과하였으나 지금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14) 구관장 임대조건은 마을내 가로등 10개소에 소요되는 전기료(월 1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다.

으로 추측된다. 증촌보는 1985년도에 돌보에서 시멘트보¹⁵⁾로 개축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막이, 배수로 공동작업 등 공동작업이 약 1/5로 줄었다.

(2) 구 성 원

증촌보의 구성원은 보의 몽리구역안에 경지를 갖고 있는 作人들로 구성한다. 1986년 이전까지 증촌보는 증촌마을에 거주하면서 보의 몽리구역안에 경지를 갖고 있는 농민 4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86/87 경지정리사업으로 몽리구역이 늘어나 증촌과 오리의 주민 13호가 포함되어 증촌마을을 비롯한 3개 마을 56호의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계원이었던 주민이 경지를 판매하여 몽리구역내에 경지를 갖지 않게 되면 그는 자동적으로 脫契되며 새로 경지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승계한다. 그러나 몽리면적내의 경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새로 입계하는 작인들은 입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는다. 다만, 몽리구역이 확대되어 입보하는 경우 새로운 입보자는 기존 수리시설의 기득권에 상응하는 입계금을 계에 납부해야 한다.

(3) 기 구

증촌보의 내부 기구는 계장, 부계장, 총무, 감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계장은 洨主라고도 불리며 수리계를 대표하고 계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계장직은 명예직에 가깝고 실무는 부계장과 총무가 주로 담당한다.

부계장(2인)은 하보주라고도 부르며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의 유고시에 그를 대신하여 계의 일을 총괄한다. 부계장은 수리계의 작업계획 수립 및 이의 추진과 작인간의 연락 등을 담당한다.

총무는 보의 운영에 관한 각종 서류의 처리와 회계를 담당한다. 그의 업무중 중요한 것은 수세를 고지하고 이를 수납하는 일이며,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을 담당하는 일이다.

감사는 수리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계의 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수리계의 정기회의는 연 1회 풋보막이라는 이름으로 보막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풋보막이는 3월 말경(못자리 만들기 전)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를 정비하거나

15) 1985년도 시멘트보 개축시에 정부보조금 46,000,000 원과 자부담 52,000,000 원이 투입되었다.

나 또는 돌보¹⁶⁾일 경우 이를 새로 막는 작업을 말한다. 풋보막이는 보막이와 물도랑 보수작업을 마치고 작인회의를 갖는다. 작인회의는 임시의장 선출, 계장선출,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연간 예산의 승인, 기타 협의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풋보막이는 일종의 작인회의로서 수리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된다.

보막이 작업은 오전중에 끝나고 회의는 12시경에 시작되며 회의가 끝나면 계장 등 임원들이 준비한 술을 마시고 회의를 마친다.

수리계는 보막이 이외에 수시로 물도랑치기(배수로 정비작업) 작업을 한다. 이러한 공동작업에 모든 작인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만약 불참하였을 때에는 계가 정한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수리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계장의 선출은 전형위원회에 의해 후보자를 세우고 투표로 결정한다. 즉, 풋보막이 모임에서 작인들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전형위원회를 5~6인 선정한다. 이들 전형위원회는 대부분 영농규모가 큰 계원 중에서 선출되며 이들 전형위원회는 합의에 의해 계장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계장은 전형위원회들이 선정한 계장후보 2인중 작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다수 득표자가 선출된다.

부계장 이하 총무·감사는 작인들의 구두 추천과 전체 작인의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작인회의에서 논의하는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물관리 방법이다. 보에 가둔 물이 충분한 때 물대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뭄이 심할 때 물대기 순서와 적정 물 관리는 수리계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물대기 순서는 전체 경작지를 삼등분해서 상뜰, 중뜰, 아래뜰로 나누고 상뜰, 중뜰, 아랫뜰 순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종촌 보는 대부분 상뜰, 중뜰, 아랫뜰 순서로 물을 대며 가뭄 때에는 상·중·하→하·중·상 등의 순서로 반복하기도 한다.

가뭄이 심할 때에는 차랫물보기¹⁷⁾를 한다. 즉, 모든 필지에 물대기 순서를 정하

16) 보가 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보가 여름철 장마에 항상 붕괴되므로 매년 봄에는 이를 새로 막을 필요가 있었으며 연중 10여회의 보막이 또는 보수공사를 해왔다. 그러나 1985년 시멘트보로 바뀐 후로는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은 크게 줄었다.

17) 차랫물보기를 “팻물보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차랫물보기는 주로 뜬자리 때 또는 가뭄이 심할 때 많이 실시한다.

고 그 순서에 따라 물을 대며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정확히 물꼬를 막고, 다음 필지의 눈에 물을 대는 방법이다. 차례물보기에는 부계장 2인이 상근¹⁸⁾을 해야 하며 작인들 중에서 순서대로 물꾼을 정해서 물꼬를 감시하게 된다. 이러한 물관리 규정은 수시로 작인회의를 개최하여 이들의 합의에 따라 계장이 결정하며 계장이 결정한 물대기 규정은 엄격히 시행된다.

(5) 경비 부담과 이익 분배

수리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몽리구역안에 있는 작인들의 경작면적의 비례에 의해서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들 작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수리계의 연중 총예산액을 경지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이 된다. 1986년도 증촌보의 총 몽리면적은 230 두락¹⁹⁾이었으며, 연간 예산액은 138,000 원이었다. 따라서 모든 작인들은 두락당 600 원씩의 수리세를 부담하였다.

증촌수리계의 예산액은 계장, 부계장에 대한 사례금으로 일부 지출되고 잔여액은 대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접촉에 따른 회의비, 여비 등으로 사용된다. 1989년도 기준으로 계장에게는 연간 쌀 5 말의 사례를 하고 부계장에게는 쌀 2 가마씩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리계에 계원들이 부담하는 수세와 노력부담의 반대급부는 농사에 필요한 용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돌보에 의해서 관개하던 1985년 이전에는 증촌보 작인들의 물 이용이 불안전한 상태였으나 시멘트보의 개축으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6) 재산관리

증촌보의 공동재산은 보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1986/87 경지정리로 인해서 몽리구역이 100 두락 증가함에 따라 새로 입보하는 작인들로부터 入狀金으로 두락당 20,000 원씩을 징수했다. 따라서 이들이 부담하는 입보금 2,000,000 원은 증촌보의 공동재산이 되며 이는 보의 개보수 또는 새로운 수리시설물을 설치 등에 사용하게 된다.

(7) 규범과 통제

공동 보막이와 물관리는 수리계 운영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보막이와 물관리에는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고 이를 어기는 계원에게는 별과금이 부과된다.

18) 차례물을 보는 경우는 수리계에서 부계장에게 일당을 계산해서 지불한다.

19) 1 두락은 200 평으로서 이 마을의 기준으로 보면 한마지기에 해당된다.

보막이에 동원되는 노동력은 작인들의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노동력 배분은 논 3두락당 성인남자 1품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을 상회하거나 못미칠 때 이를 증감 적용한다. 즉 6두락의 논을 경작하는 작인은 공동작업에 성인남자 2품을 제공해야 하고 2두락을 경작하는 작인은 한품을 제공해야 한다. 기타 이 기준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 즉 5두락의 작인은 품 하나를 제공하는 이외에 술이나 담배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공동작업에 배당된 품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과금을 제공해야 한다. 벌과금은 배당된 품삯이 되며 이 벌과금 징수액은 수리계의 수입으로 예산액에 포함된다.

물대기에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못자리 때나 이앙 때 또는 가뭄으로 본답에 물을 댈 때 수리계원은 계장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관리의 감시를 위해서 작인들 중에서 순번으로 정해진 물꾼을 두고 부계장 2인은 물관리 책임을 진다. 작인들이 계장이 정한 물대기 순서를 무시하고 물을 댈 경우 그 작인은 물대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순위를 갖게 되거나 물리적 제재를 받기도 한다.

나) 저축계

(1) 조직목적

저축계는 주로 부녀자들이 조직·운영하는 계로서 전통적인 계에 현대화된 제도 금융의 특성을 가미하여 조직한 것이다. 즉 모임의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계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계원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이때 계원들은 일정한 금액을 매회 약출하여 이를 제도권 금융에 저축하며 저축액은 개인별 저축통장에 기록된다.

따라서 저축계의 조직목적은 첫째로 계 활동을 통해서 저축을 장려하고 둘째로는 성원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 구성원

저축계의 구성원은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주부가 주축이 되어 있다. 구성원의 최소 연령은 27세에서 최고 52세까지 있으나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각각 33세와 36세로서 30대 주부들의 또래집단 성격이 강하다.

증촌마을이 무송 유씨의 씨족마을이지만 저축계원 중에는 씨족원이 아닌 주부도 가입하고 있다. 저축계 A의 경우 씨족원이 아닌 주부는 13명중 2명, 저축계 B의 경우는

17명 중 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축계 B의 계원 17명 중 13명은 저축계 A의 계원 명단과 일치한다.

(3) 기 구

저축계는 타집단과 달리 계장 등 임원이 없고 매월 모임을 주관하는 유사만을 두고 있다. 유사는 마을의 집 배열순서²⁰⁾에 따라서 윤번제로 담당한다.

유사의 임무는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들 계원들에게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수를 대접하며 계원별로 저축금액을 거두어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일이다.

이와같은 조직은 두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로 개인별로 저축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월 1회 농협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하나 대표자인 유사 1인이 이를 취합하여 대행함으로써 많은 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구조화된 조직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집단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균등하게 유사역할을 담당하여 모임을 책임지는 민주적 조직 운영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저축계는 매월 한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의 저축금을 거둔다. 저축계 A의 계날은 매월 27일이다. 이 모임은 겨울철 한가한 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나 농사철에는 모임을 갖지 않고 매월 저축액을 유사집으로 갖다주면 유사는 이를 모아서 계원의 개인별 통장에 저축한다.

표 4-4 저축계의 조직현황

집 단 명	설립년도	구성원수	구성원의 연령	구성원의 성	계의 규모	계의 지속기간
저축계 A	1983	13	평균33세	여	월 2,000원 저 축	저축기간은 1년이나 저축이 만료되면 새로운 저축계가 시작됨.
저축계 B	1985	17	평균36세	〃	월 1,000원 저 축	〃

20) 이러한 순서에 따르는 것을 삽짜돌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저축계 B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유사가 계원들에게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수를 대접한다. 매월 15일을 정기적인 회의날로 정하고 있는 저축계 B는 다음날 유사가 계금을 거두어 농협에 개인별로 저축한다.

저축계는 계의 내부조직도 없고 저축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으므로 특별한 의사 결정 메카니즘을 갖지 않는다. 다만 계의 저축금액 결정, 새로 시작되는 저축계의 저축금액 결정, 새로 시작되는 저축계의 날짜, 신규 계원의 추가가입 등은 모두 전체 계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5) 경비 부담과 이익 분배

저축계는 계 활동을 위한 특별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다만 모임에 필요한 음식물비나 음료수 경비는 당월의 유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계의 활동으로부터 받는 이익도 각 계원이 저축한 저축액을 저축만기에 찾아 목돈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만기 저축으로 찾은 목돈은 가계비나 영농비로 사용되나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이 높은 그릇 등 가재도구의 구입에 쓰인다.

(6) 규범과 통제

저축계는 성문화된 규약이 없다. 그러나 계의 운영에 관한 규범 즉 매월 윤번제로 유사를 맡는 일, 매월 정해진 계날에 모여 계돈을 내야하는 일, 그리고 유사는 당월의 계원 개인별 저축통장을 관리해야 하는 일 등은 성문화된 규약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규범이다. 마을단위의 적은 대면 사회에서 더우기 대부분이 씨족원으로 맺어진 혈연집단에서 이와같은 규범을 어기는 일은 드물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탈자를 제재하는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다) 마을금고

(1) 조직목적

마을금고는 마을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새마을금고는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입과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하며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성원

증촌마을 새 마을금고는 증촌주민 58명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다. 회원이 증촌마을을 떠나 타지방으로 이사를 할지라도 본인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잔류할 수 있으며 증촌마을로 새로 이사와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추후로 본 회에 가입해도 본인의 출자금 이외의 별도 부담금은 없다. 회원의 자격은 탈퇴, 사망 등에 의해서 상실된다.

(3) 기 구

증촌마을 새 마을금고는 집행부로 이사장을 두고 있다. 또한 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및 감사를 두고 있다.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새마을금고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사장은 마을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원을 1명 고용하고 있으나 월급은 지불하지 않고 연말에 10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지불한다. 한편,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6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는 반별로 2명씩 반원이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는 새마을금고의 연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금고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감사의 주요업무는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새마을금고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된다. 총회는 연 1회 연말에 개최한다. 총회에 부의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관의 변경
- ② 해산,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일
- ③ 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④ 기본재산의 처분
- ⑤ 결산보고서의 승인
- ⑥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과 변경
- ⑦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 ⑧ 기타 중요사항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때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만약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이사장을 대신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①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이의 폐지
- ②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 ③ 소요자금의 차입
- ④ 직원의 임면과 정계
- ⑤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새마을금고가 임원의 선출과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산보고와 예산승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 방법은 전통적인 사회집단이 채택하고 있는 합의제보다 투표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총회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새마을금고가 전통적 사회집단과는 달리 기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분명한 기록과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경비 부담과 이익 분배

새마을금고의 기금은 회원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1973년부터 증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부녀회의 절미저축운동 결과로 얻어진 기금을 개인별 출자금으로 전환했으며 구판장 구매사업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여 새마을금고의 회원 출자금으로 출자했다. 1980년부터는 월회비 제도를 도입하여 출자금 증식을 도모해 왔다. 1986년 도말 현재로 회원의 출자금 총액은 2,807,960 원으로서 1인당 평균 출자액은 48,413 원이 된다.

증촌 새마을금고는 1985년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즉, 1985년도에는 회원별 출자금의 14%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회원이 희망할 경우, 이는 다시 출자금으로 재투입해서 새마을금고의 기금을 증식시켰다.

(6) 재산관리

증촌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은 2,807,960 원에 불과하지만 회원 예탁금을 포함한 총 자산액은 1986년말 현재 13,927,690 원에 달하며 485,600 원의 순이익금이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이익금은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및 예탁금리는 농협 등 시중은행보다 높다. 따라서 회원들은 농협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보다 새마을금고에 예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대출금리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금 대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할 때 사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새마을금고 대출은 회원들에게 매력 있는 상품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큰 예탁금은 보안과 안전성 때문에 농협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출되며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적은 액수의 예탁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출금보다 예탁금이 많아 대출금리에 의한 수익보다 예탁금리 지출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사업의 적자계정이 우려되기도 한다.

(7) 규범과 통제

새마을금고는 일종의 금융사업으로서 많은 액수의 자본금을 다루고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서 정관과 새마을금고법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1980년부터 '83년 까지 증촌 새마을금고가 법인격으로 있을 때 새마을금고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았으나 1983년 부실금고 판정으로 법인이 해체된 이후로 현재는 증촌 마을 자체의 마을금고로서 주민들이 정한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표 4-5 마을금고의 부채 및 자본현황, 1986. 12

항 목	금 액
1. 부 채	
○ 보 통 예 탁 금	137,260 원
○ 정 기 예 탁 금	10,982,470 원
2. 자 본 금	
○ 출 자 금	2,342,760 원
○ 특 별 적 립 금	465,200 원
3. 순 이 익	485,600 원
계	14,413,290 원

표 4-6 마을금고와 농협의 예탁 및 대출금리의 비교, 1987

구 분	마 을 금 고	농 협
1. 예 탁		
○ 보 통 예 탁	연 5 %	
○ 정 기 예 탁		
— 3 ~ 6 개월	연 10 %	연 4 %
— 6 ~ 1 년 미만	연 12 %	7 %
— 1 년이상	연 14 %	11.0 %
2. 대 출 (일반자금)	연 18 %	연 11.5 %
3. 연체대출 이자율	연 24 %	연 19 %

② 사회적 이익집단

가) 명륜계

(1) 조직목적

신분제가 붕괴되고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마을의 지배적 씨족인 무송 유씨와 기타 성씨간의 내면적 갈등이 표출되면서 마을의 상사 등 중요한 마을 일에 대한 상호협동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위계적 질서를 버리고 보다 평등적인 입장에서 마을 상사에 공동체적인 의무감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6년에 조직되었다.

(2) 구 성 원

명륜계의 구성원은 마을을 구성하는 각 가구의 가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명륜계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이지만 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상을 당했을 때 마을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모두 가입한다. 1986년 현재 명륜계의 계원은 71명이다. 계원수가 마을 가구수보다 많은 것은 마을에 거주하다 이촌한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탈퇴하지 않고 계속 계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가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계원자격을 상실한다. 명륜계의 계원자격은 계원 본인이 사망할 시 그 적장자에게 승계되며 차남 이하는 신규가입 절차에 의해서 신규계원이 된다. 명륜계에 신규 가입하는 자는 쌀 2말을 계에 납부해야 한다.

(3) 기구

명륜계의 기구는 계장 1인, 부계장 2인, 총무 및 재무 각 1인으로 구성한다.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계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 유고 시 계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계의 실질적인 업무는 총무가 수행한다.

喪故時에 총무는 계장, 부계장과 상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원의 소집과 보좌의 지급 및 상례에 따른 제반 절차의 집행을 주관한다. 총무는 계의 소집과 계에 관한 제반기록을 보관하며 재무는 계의 재정 및 재산을 관리한다.

명륜계는 계운영을 위해서 유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사는 전 계원이 순번으로 담당하며 당해 연도의 계의 개최, 계 쌀의 관리, 喪具의 관리, 계무에 관한 기록 등을 담당한다. 명륜계의 유사 담당순서는 삽짜돌림으로 한다. 유사는 계쌀 증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날 계의 행사장소를 제공하며 참석하는 계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이날 유사의 계경비는 계가 부담한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명륜계는 매년 음력 11월 10일을 계날로 정하고 있다. 계는 당년도 유사집에서 개최하며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되어 오후 1시경에 끝난다. 오후 1시까지 참석하지 않는 계원은 불참으로 간주되어 별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계날 논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간 계의 결산보고
- ② 계쌀의 대출과 수납에 관한 사항
- ③ 계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보좌 지급에 관한 사항
- ⑤ 계의 규정 개정과 계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계 운영에 관한 사항

명륜계의 의사결정방법은 합의제이다. 계장과 부계장은 연령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맡는다. 그러나 총무와 재무는 계원들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계장 및 기타 임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계장, 부계장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연로해져 계활동에서 은퇴할 때 또는 사망, 탈퇴 등으로 계원자격을 상실할 때 다음 고령자에게 인계된다. 그러나 총무와 재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총무와 재무는 실제로 계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계원중 청장년층이 담당하게 되고 이들이 수년간 봉사한 후 계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음 연령층에게 직무를 넘긴다.

(5) 경비 부담과 이익 분배

명륜계는 창설 당시 각 계원들로부터 쌀 1 말씩 각출하여 계의 자산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원들이 증식시켰다. 이와같이 증식된 계자금은 계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보좌로 지급되며 그 일부는 계날 유사경비로 사용된다.

계원이 상을 당했을 때 계는 계가 정한 보좌로 탁주 1말을 지급하고 상여와 식기, 상, 산역용 연장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계원은 모든 개인 용무를 중단하고 3일간 상가에 모여 상례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지원한다. 이와같은 공동체적 지원은 계원의 직계존속과 비속에 한하여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된다.

(6) 재산관리

명륜계는 계설립 후 계쌀의 증식을 위해서 계원들이 장리변으로 대출받아 오다가 1970년을 고비로 년리 4 할, 3 할로 낮아졌고 1981년 아래 년리 2 할씩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융자금 확대공급으로 계쌀의 대출희망이 줄어들자 1981년 이후 계쌀을 현금화하여 년리 20%로 계원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1986년 12월 현재 명륜계는 91,800 원을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7) 규범과 통제

명륜계는 계원을의 상사에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규범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즉, 모든 계원은 상사가 발생하면 즉시 개인의 용무를 중단하고 상가에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3일간 무조건의 노력봉사를 해야한다. 만약 이 기간중에 참여하지 않는 계원은 불참 1일당 1일의 품값을 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계날에 불참했을 때에도 불참 1일당 1일의 품삯을 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계와 상사에 3회간 연속 불참할 때에는 제명의 사유가 된다.

또 모든 계원은 계장과 총무의 지휘아래 배분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즉 상포 등 장례물품을 구입하는 일, 상사를 친척, 친지에게 알리는 일, 상여의 운구, 산역 등의 일을 수행한다. 총무는 30~40대의 계원중에서 기혼자들에게 상여를 메도록 하며 산역은 경험을 중시해서 50~60대 계원들에게 배정한다. 상주는 상여 기구를 사용하고 파손되었을 때에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상례가 끝난 후 계원들의 협조에 감사하는 뜻으로 현금 30,000 원을 명륜계에 기부한다.

나) 위친계

(1) 조직목적

마을에서 함께 성장해온, 또는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또래들이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친상 등에 경제적, 사회적 협동을 통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직했다. 증촌마을에 구성된 위친계는 장수위친계, 위친상포계 등으로도 불린다.

표 4 - 7. 위친계 조직현황

집단명	대표자	설립년도	집단의 성	구성원 수	보좌조건	집단의 재산
위친계	유혁봉	1958	남	21	쌀 10 말, 노력지원	쌀 1.8 가마
위친계	유동정	1958	남	28	"	쌀 0.8 가마
장수위친계	유사봉	1966	남	23	"	쌀 1.15 가마
장수위친계	유규봉	1966	남	23	"	쌀 1.1 가마
친목위친계	유증봉	1971	남	19	"	쌀 1.5 가마
위친상포계	유병돈모친	1963	여	19	쌀 10 말	-
위친상포계	전우양	1963	여	23	"	-
위친상포계	전우양	1963	여	21	"	-
위친상포계	이길립	1963	여	27	"	-

(2) 구성원

위친계는 마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계원들의 연령차이²¹⁾는 10~20세 이내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대부분 30대에 부모상에 대비하여 위친계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촌에서 위친계를 조직할 때 구성원의 자격은 향후 친상을 맞이해야 할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위친계가 또래적 성격이 크지만 증촌에서는 또래적 성격보다는 친상을 맞이할 대상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 같다.

위친계는 명륜계와는 달리 계원수가 평균 20명 정도로 적으며 구성원간의 친목과

21) 증촌마을의 위친계 계원들은 연령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유대가 강하다. 따라서 계는 대외적으로 폐쇄성이 강하다. 즉, 계원은 사망, 탈퇴 등으로 계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추가적인 계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기 구

위친계도 명륜계와 같이 계장, 부계장, 총무, 재무 등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그 기능도 비슷하다. 다만, 명륜계는 공동체적으로 상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위친계는 집단 고유의 규정에 의해서 상사를 지원하고 있다.

위친계의 계장과 부계장은 연령순으로 담당하며, 총무, 재무 등은 계원의 합의에 따라 선출한다. 이들 임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계장 유고시에는 자동적으로 부계장 또는 차고령자가 그 직을 승계하며 총무, 재무도 변경될 수 있으나 본인의 사임 또는 계원의 불신임이 없는한 계속 담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유사는 2명으로 전 계원이 1년마다 윤번제로 담당한다. 유사를 담당하는 순서는 계원명부 순이며, 이는 연령순과 일치한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위친계는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계를 갖는다. 즉,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계가 정기총회가 된다. 계날은 가을추수후 대부분 음력 10월과 11월중 정해진날에 개최한다.

계는 당해년도 유사집에서 개최된다. 계는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어 오후 1시경에 마치며 계가 끝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는 계원은 불참자로 간주된다. 계에 상정되는 안건은 명륜계와 대동소이하다. 계가 끝나면 유사가 준비한 음식을 들고 계를 끝낸다.

(5) 경비 부담과 이익 분배

증촌마을 위친계중 남성이 조직한 위친계는 계 창설시 계원별로 쌀 1말씩 각출하여 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증식시켜 이를 토대로 계원의 상고시에 보좌를 지급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조직한 위친상포계는 상사시마다 쌀을 각출하여 보좌를 지급한다. 위친계가 지급하는 보좌내역은 표 <표 4 - 7 >과 같다.

증촌마을의 위친계는 타마을과 달리 보좌대상이 1인이다. 즉, 계원별로 1회에 한하여 보좌를 지급한다. 따라서 대부분 계원들은 부모양친을 위해서 2개의 위친계에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보좌대상은 부모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처가 또는 친척 중의 어느 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위친계는 명륜계²²⁾와 달리 전 계원이 지정된 보좌를 지급받으면 계를 완료하고 해체한다.

(6) 재산관리

위친계는 계 창설 당시 각 계원이 출자한 쌀 1 말을 기금으로 하여 이를 증식시켜왔다. 계쌀은 1960년대까지 년 5 할의 장리변을 적용해 오다가 1970년대초부터 4 할, 3 할을 적용했고 1981년부터는 연 2 할을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계쌀이 늘거나 양이 커지면 계원들의 부담²³⁾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쌀 2 가마가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계쌀 증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개인별 대출이 없으면 농협이나 마을금고에 예금하고 있다.

(7) 규범과 통제

위친계는 그 구성원이 또래들이기 때문에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범과 강력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로 상사 발생시에는 전 계원이 3일간 상례에 참석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상례에 불참시에는 불참 1일당 성인 1일 품에 해당하는 별금을 부과하고 3회 불참하면 제명한다.

둘째로 계모임에 불참시에도 불참 1일당 성인 한 품에 해당하는 별금을 부과하며 3회 불참시에는 제명한다.

셋째로 계원이 보좌를 타고 이사를 하거나 탈퇴할 경우 불입한 계금은 되돌려 주지 않으며 지급한 보좌금에 대해서는 보좌액에 대해 배상토록 한다.

다) 친목계

(1) 조직목적

친목계는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며 부차적으로 부모의 친상시 상호부조, 기타 기금조성 등에 의한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직한다. 증촌마을의 친목계는 동갑계, 친목계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계의 특징은 자신들을 보좌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애경사에 보좌를 지급한다.

(2) 구성원

친목계의 구성원은 구성원들간의 친밀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

22) 명륜계는 계원이 끊임없이 次代로 승계되므로 마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23) 1960년대에는 계쌀의 장리변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컸다. 특히, 계가 성한 마을에서는 계쌀의 부담이 과중해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표 4-8 친목계 조직현황

집단명	대표자	설립년도	집단의 성	구성원수	집단의 재산	보좌조건
친목계	유성봉	1968	남	11	-	경사시 쌀 1 가마
친목계	전우대	1969	남	10	현금 100 만원	애경사시쌀 1 가마 본인사망시쌀 10 가마
친목계	유병혁	1970	남	6	-	-
동갑계	유병묵	1977	혼성	12	쌀 1 가마	봄, 가을놀이 2회
경사친목계	유정옥	1983	여	11	-	경사시 쌀 1 가마

문에 구성원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친목계원은 연령격차가 적은 또래 또는 동갑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집단의 친밀도와 응집력은 위친계나 혼사계보다 높다. 동갑계는 나이가 같은 동갑나기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나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는다. 기타 친목계도 계원의 개방성에 있어서 비교적 폐쇄적이다. 계원의 자격은 사망, 탈퇴, 제명 등으로 상실되나 이촌 등으로 친목계에서 탈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촌의 친목계 중에서 유성봉, 전우대, 유병혁 등이 계장으로 있는 친목계는 마을 친구 / 동창생들간의 결혼계로 출발했다가 결혼이 끝나자 친목계로 재조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계원들은 현재 30 대에 있으므로 대부분 이촌하고 마을에는 1 ~ 3인 정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촌한 계원들도 계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김없이 참석 한다.

유병묵의 동갑계는 혼성집단으로 동갑인 6명이 구성하였으나 그들의 배우자가 참석하는 부부동갑계로 발전하여 현재 구성원이 11명²⁴⁾이다. 유정옥의 경사친목계는 마을부녀자 11명으로 구성한 친목계로 자녀의 결혼, 부모의 회갑 등 경사에 쌀 1 가마씩을 보좌하는 친목계이다.

(3) 기구

친목계의 임원은 공식적으로 계장, 부계장, 총무가 있으며 매년 계를 주관하는 유

24) 계원중 1명은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 참석 한다.

사를 두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다른 계와 유사하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증촌 친목계는 연 2~12회의 계모임을 갖는다. 동갑계와 경사친목계는 봄, 가을로 연 2회 계모임을 가지나 나머지 친목계는 월 1회씩 계모임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월별로 유사를 두고 있으며 계모임도 대전 등지에서 갖는다. 친목계의 계경비는 유사가 담당한다.

친목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이다. 계장, 부계장은 연령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총무는 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친목계가 결정하는 제반 사업과 운영계획도 합의제에 의한다.

(5) 경비 부담과 이익 분배

증촌의 친목계도 초기에는 계쌀을 거두어 계자금을 마련하고 증식해 왔으나 계원들의 부담이 커져 대부분 자금증식을 폐지하고 동갑계와 친목계 중 하나만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동갑계는 봄·가을 놀이기금으로 쌀 1 가마를 갖고 있으며 전우대 친목계는 다른 계와 달리 자녀들의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는 목표아래 기금을 증식시키고 있어 100 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친목계는 출발이 본인들의 애경사에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으므로 보좌대상이 대부분 본인들이 된다.

(6) 재산관리

친목계는 대부분 1960년대말 이후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계의 자금증식에 있어서 현물인 쌀의 증식보다는 현금에 의한 금융기관 저축 또는 계원 개인에 대한 대출 등으로 증식시키고 있다. 계원에 대출할 때 대출이자는 연 20%를 적용한다.

(7) 규범과 통제

친목계의 구성원은 매우 원초적이기 때문에 친밀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규범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 첫째로 계원에 대한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참계원에 대한 벌과금이 강하게 적용된다. 친목계중 하나인 전우대계는 계원의 친상에 계원이 불참할 때 5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로 친목계는 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는다.

셋째로 탈계할 경우, 계가 정한 보좌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에 기여한 원금만 반환해주며 제명시에는 기본 기여금도 반환해주지 않는다.

넷째로 보좌조건 중 본인에 대한 보좌규정이 타 조항보다 우위에 있다. 즉, 전우

대 친목계의 경우 친목계 존비속의 계 보좌액이 쌀 1 가마인데 비하여 본인의 사망시에는 쌀 10 가마로 정하고 있다.

라) 새마을부녀회

(1) 조직목적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141호에 의거, 당시 이 마을에 조직되어 있던 주부교실, 가족계획어머니회, 생활개선구락부, 부녀회 등 조직을 통합하여 재조직 하였다.

새로 조직된 새마을부녀회는 정부에서 하달된 다음과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 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교양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 ②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 ③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업
- ④ 환경 및 의·식·주 생활개선(공동취사장 운영, 고정가구 부설 등) 및 가정의례 간소화에 관한 사업
- ⑤ 농촌영 양개선사업
- ⑥ 부녀자 영농지도사업
- ⑦ 농기계 조작 사용 훈련사업
- ⑧ 국민건강 및 국민영양사업
- ⑨ 가족계획 및 국민영양사업
- ⑩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사업(예: 구판장 운영)
- ⑪ 농촌 복지문화사업
- ⑫ 협동 봉사사업(공동작업실시, 공동작업장 운영)
- ⑬ 농번기 유아원 운영
- ⑭ 저축사업(금고사업, 절미저축, 폐품수집)
- ⑮ 가정부업 및 공동부업 개발
- ⑯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부녀새마을 사업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구성원

증촌 새마을부녀회는 마을에서 별도로 정한 구성원 규정이 없다. 따라서 농협 등에서 정한 예규에 의한 20세이상 60세이하의 부녀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상 새마을부녀회는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을 비치하고 있다.

(3) 기 구

새마을부녀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임원들의 역할은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장은 농협, 농촌지도소, 면 등으로부터 업무연락 등의 필요에 의해서 접촉하고 있어 대외적인 활동이 나타날 뿐이다.

(4) 회의 및 의사결정

새마을부녀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신년도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새마을부녀회 사업은 외부의 유관기관이 수립한 사업의 집행 즉, 부녀회원교육, 공동구관사업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5) 경비 부담과 이익 분배

1977년 이전의 부녀회는 각종 봉사활동, 절미저축운동, 공동작업 등을 통해서 공동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1979년 마을회관 준공후 마을구관장을 개설했으며 나머지는 회원별로 분배하여 마을금고에 개별 출자했다. 그러나 마을구관장 사업은 곧 판매종사자의 확보가 어려워져 1986년부터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6) 재산관리

1986년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30,000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금은 마을금고에 적립중이다.

(7) 규범과 통제

새마을부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범은 예규 또는 준칙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사실상 증촌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사회망과 지도력 구조

가. 사회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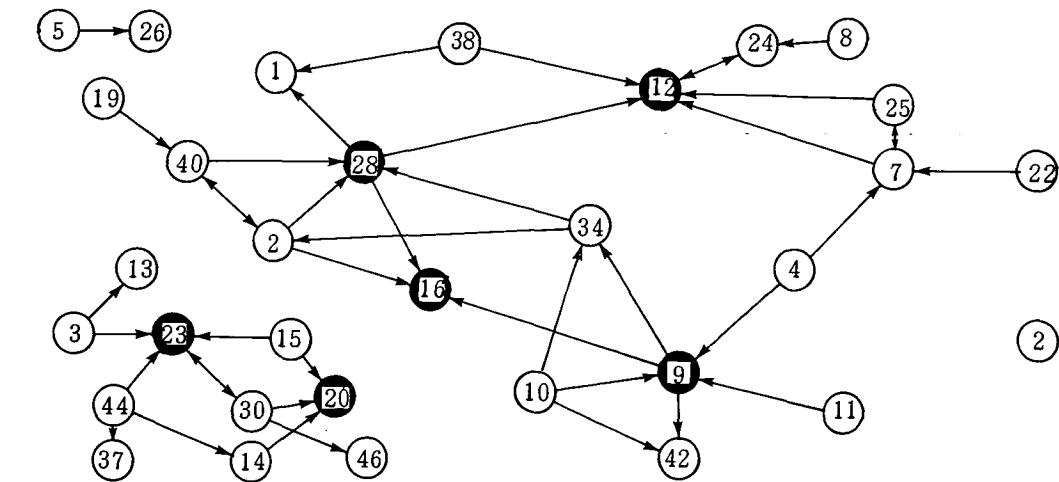
증촌마을 주민들의 사회망 (social network)은 씨족마을이라는 특성에 따른 혈연집단과 구성원의 연령에 따른 또래집단 및 그들의 경제활동상의 동질성 등 마을

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마을주민 중 남성경영주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의사교환망 (communication network)²⁵⁾을 조사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즉 증촌마을에는 크게 세개의 의사교환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은 마을 전체 의사교환망 중에서 9번, 16번, 28번 가구를 중심으로 한 의사교환망을 분리한 것이다. 이 집단의 특성은 이들 구성원의 대부분이 당내간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10번, 42번 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錫字周字의 후손들로서 8촌이내의 가까운 친척들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동, 문중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친밀한 유대를 구성하고 당내의 대소사를 9번과 28번 가구를 중심으로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협연집단이다. 9번 가구의 경영주는 무송유씨 문중계의 대종중, 중종중 그리고 檻자 후손으로 구성된 소종중의 공사원이다. 따라서 그는 그가 속한 당내와 소종중은 물론 대종중에 이르기까지 문중활동의 핵심적 인물중의 한 사람이다. 28번 가구의 경영주는 현직 새마을지도자겸 수리계장과 명륜계 총무를 겸하고 있으며, 전직 이장도 역임했다. 또한, 그는 기성면 단위농협의 현직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마을의 유지다. 현재 이들은 증촌마을 무송 유씨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당내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림 4-2 증촌의 사회망 구조



25) 의사교환망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한 남성경영주는 총 44명 중 24명이다.

그림 4-3 사회망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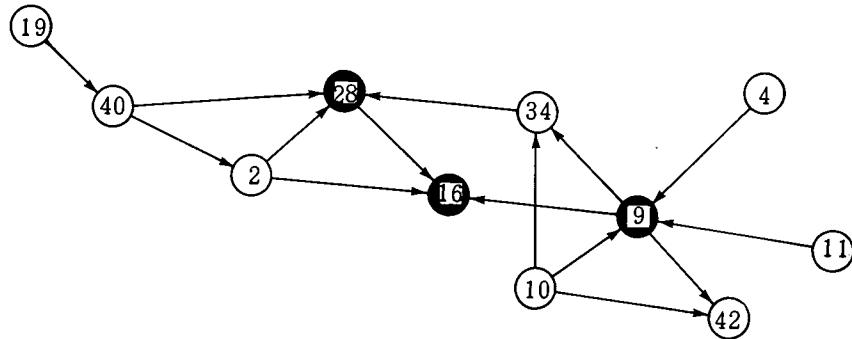


그림 4-4 사회망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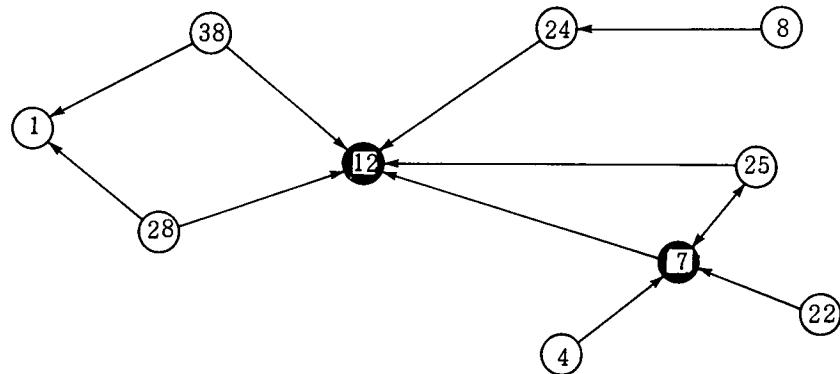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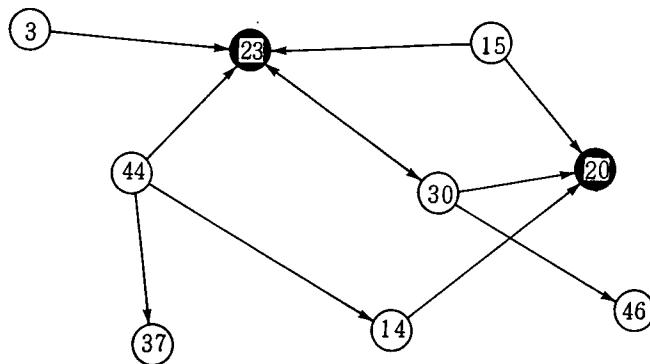


그림 4-5 사회망 III



〈그림 4-4〉에 나타나는 의사교환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특징은 이들이 마을의 전·현직 지도자이며 마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들이라는 점이다. 12번 가구의 경영주는 1960년대에 이웃마을인 오리에서 정미소를 경영하기 위해 이주해온 무송 유씨이다. 또, 그는 樓자의 후손으로 구성된 소종중의 핵심인물이며 7번, 24번, 28번, 38번 가구주 등 마을유지와 지도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여론지도자이다. 24번 가구는 협직 이장이며 무송 유씨 문중계의 총무이고 종촌마을금고의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다. 38번 가구주는 전직 이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정치적 의견이 뛰어난 여론지도자이다. 7번 가구주는 현재 마을내에서 두번째로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농으로서 자녀들을 교육시켜 육군소령, 한전, 산업기지개발공사 등에 취업케 하는 등 소위 자식들을 출세시킨 집안이다.

〈그림 4-5〉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교환망의 구성원들은 주로 40대의 장년층이다. 이들 구성원 중에서 14번과 37번²⁶⁾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무송 유씨 대종중의 구성원들이지만 이 마을에서 구성원의 대부분이 무송 유씨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종중은 의사교환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 구성원의 공통적인 특성은 연령 이외에 영세농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7번과 46번 가구를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0.5ha 미만의 극히 영세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이용한 농업 이외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들중 5명은 자신들의 모내기와 수확작업은 물론, 이웃농가의 모내기와 수확작업을 위탁받아 작업하는 공동작업반²⁷⁾을 구성하고 있는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 집단에서는 23번 가구와 20번 가구의 경영주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집단에서는 이들이 영향력있는 여론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26) 14번과 37번도 결혼으로 무송 유씨와 인척관계를 맺고 있다.

27) 이 작업반의 대표는 44번 가구로서 14번, 15번, 23번, 17번, 37번 가구의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9 또래적 의사교환망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특성

가 구 번 호	연 령	학 력	경 지 규 모 (평)		작업반원 여 부	농기계 보유상황
			소 유	임 차		
3	38	국 졸	1,248	910	-	경운기, 이앙기, 분무기
14	47	중 퇴	-	4,800	○	경운기
15	40	국 졸	723	700	○	
20	47	중 졸	1,000	2,700	-	
23	40	국 졸	600	1,719	○	
30	40	전문대출	3,002	100	-	경운기, 분무기
37	41	국 졸	766	1,200	○	
44	50	국 졸	400	1,660	○	
46	38	중 졸	1,650	-	-	경운기

나. 지도력 구조

증촌마을의 지도력 구조는 두 핵이 병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그 핵의 하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당내를 이루고 있는 錫자, 周자의 후손인 28번 가구주이다. 그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수리계장, 명륜계 총무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면농협의 이사직도 맡고 있다.

또 다른 핵은 24번 가구주로서 현직 이장이다. 그는 무송 유씨 문중계의 총무와 증촌마을금고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들 두 지도자는 각각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로서 9번 가구주와 12번 가구주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주민들로부터 마을지도자로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두 지도자로부터 각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마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권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9번 가구와 12번 가구는 각각 두 소종중의 공사원이라는 점에서 문중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도자들이다. 9번 가구가 대종중을 포함한 문중계의 지도자로 인식되는 반면 12번 가구주는 문중계의 지도자와 함께 마을내의 경제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외부의 정치집단²⁸⁾과도 연

28) 여기서 정치집단은 군단위 이상의 정당조직을 의미한다.

결되어 있다. 한편, 7번 가구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지로 차하위의 작은 핵을 이루고 있다.

그림 4-6 증촌의 지도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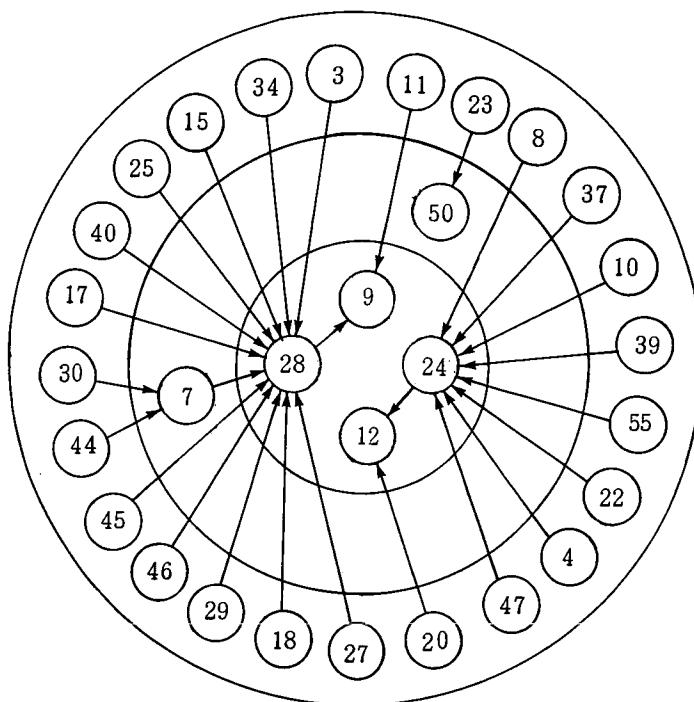


표 4-10 소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지도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가구 번호	연령	학력	경지 규모		문중내치위	주요 경력	
			소유	경작		전 직	현 직
9	70	국졸	2,500	2,500	대종중, 중종중 소종중 공사원		
12	63	국졸	1,500	1,500	소종중 공사원	○○당원	
24	56	국졸	600	3,200	대종중 총무	이 장	마을금고이사장
28	54	고졸	2,000	3,250	-	이 장 새마을지도자	수리계장 명륜계총무 면농협이사

증촌마을의 지도력 구조는 양립된 두 핵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혈연집단인 당내간의 세력 표출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증촌마을과 같은 집단적인 씨족마을에서 당내간의 세력의 차이는 왕왕 의사결정, 지도력 등에서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기 쉽다.

증촌마을에서의 지도자의 요건은 경제적 지위보다는 문중내의 지위 등 사회적 지위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쏘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마을내에서 중간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소시오메트리에 의해서 나타난 지도자는 현시적인 마을지도자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사회망, 의사교환망의 여론지도자들은 곧바로 마을의 공식·비공식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

3. 종교 및 문화

가. 종교생활

증촌마을 주민들에게 중요한 종교는 불교다. 불교를 신봉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56호 중에서 26호로 46%를 차지하며 기독교 신자는 5호로 전체 가구의 8.9%를 차지한다. 반면에 종교가 없다고 답변한 가구가 23호로 전체의 41.7%나 된다.

기독교 신자들은 5가구 중에서 4가구가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만큼 신앙심이 깊다. 1가구는 월 1회정도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횟수가 매우 적다. 불교신자 26호 중에서 연 10회이상 불공드리는 가구는 1호, 5~10회 불공을 드리는 가구는 3호에 불과하며, 신자가구의 61.5%가 연 5회미만 절에 불공을 드린다. 불교신자라고 답변한 가구 중 6호는 전혀 절에 가지 않고 불공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교신자의 46.2%는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조상신 등 家神에게 기원하는 시월고사와 용왕제나 칠석제 등 무속제를 지내고 있다. 즉, 가구전체의 32.1%가 고사를 지내고 있다.

10월 고사를 지내는 대상은 대부분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조상신으로 한정해서

표 4-11 종교별 가구수와 신앙생활

종교별	가구수	예배(예불) 횟수별 가구수				
		주 1회	연 10회 이상	연 5~10회	연 5회 미만	하지 않음
기독교	5	4	1	-	-	-
천주교	-	-	-	-	-	-
불교	26	-	1	3	16	6
기타	1	-	-	-	-	-
무종교	23	-	-	-	-	-
무응답	1	-	-	-	-	-
계	56	4	2	3	16	6

간소화된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에 더해서 업신, 축간신, 우마신, 수문신, 삼신 등 모든 가신에 고사를 지내는 가구도 2호가 있다.

10월 고사를 지내는 가구는 대부분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에 분포되어 있다. 고사를 지내는 가구 18호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12호로서 66.7%를 차지하며 50~59세의 연령층에 있는 가구는 3호로 16.7%를 차지한다. 나머지 3호는 30~39세의 연령층에 있는 가구가 2호, 40~49세의 연령층 가구가 1호이다. 이와같은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시월고사나 무속제는 연로한 가구주가 젊은층으로 대체되면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촌마을에서 무속을 대체할 외래종교인 기독교나 불교신자가 적으면서도 무속적 관습이 약한 것은 이 마을이 소위 반촌으로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무속을 미신화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평촌 2리에 있는 교회에 다닌다. 반면, 불교 신자들은 주로 마을에 있는 화개사에 다니고 있다.

나. 문화와 세시풍속

증촌은 무송 유씨의 집촌으로서 문중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옛부터 조상을 모시는 예절이 특히 승상되어 왔다. 따라서 마을에 건립된 무송 유씨 사당과 뒷산의 조상들의 묘와 묘석 등은 이 마을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다

마을 주민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예절로 제사를 으뜸으로 삼아왔다. 조상의 제사는 4대까지는 장손이 각 가정에서 모시지만 5대 이상의 조상은 묘소에서 시제를 모신다. 시제는 10월 보름부터 웃대에서 차례대로 지낸다. 시제 이외에 설, 한식, 단오, 추석 때에는 節祀를 지낸다. 절사는 각 가정에서 지내고 묘소에서도 지낸다. 그러나 많은 씨족들이 떠나고 산업사회화에 의한 의례의 간소화에 따라 절사는 사라지고 10월 시제만을 모신다.

무송 유씨들은 약 100년전부터 사당을 건립하여 조상의 위폐를 모셔놓고 각종 시제와 절사를 지내는 장소로, 또는 출타했던 씨족원들이 귀향하여 조상의 위폐에 배례하는 장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절사가 사라지고 시제는 일년에 한번 묘소에서 지내게 되면서 사당의 활용도가 줄었으며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건물이 퇴락했다. 현재는 무송 유씨 문중에서 이 사당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마을 뒤 선산 있는 雄자 조상의 孫으로서 조선조에 통정대부 병조참의 벼슬을 지낸 조상의 묘석을 주민들은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화개사는 약 100여년 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개사에는 불상을 모신 불당과 칠성당이 있다. 1937년까지 외지에서 온 스님이 기거하면서 화개사를 운영해 오다가 그 뒤로는 마을 주민들이 절을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다. 1942년 까지는 21번 가구주의 부친이 대처승으로 화개사를 운영했으며, 1971년 까지는 46번 가구주의 조모가, 그리고 1972년부터 현재까지는 10번 가구주의 부인이 인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화개사를 찾는 신도들은 주로 증촌마을과 인근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며 사월초파일을 제외하면 화개사를 찾는 신도들은 개별적인 치성을 드리는 정도에 그친다.

증촌마을에 전해오던 세시풍속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를 지나면서 였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급격히 사라졌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증촌마을에는 정월의 안택, 춘축, 다리놓기, 이월달의 넝등제, 삼월의 한식, 화전놀이, 사월초파일, 오월 단오절, 칠월칠석과 백중놀이, 팔월 추석, 시월 고사, 동짓달의 동지제 등이 지켜졌으나 오늘날에는 그 일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1950~60년대에 증촌 주민들이 실행해 왔던 세시풍속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 월

■ 설 날

설날에는 각 가정별로 4 대조까지의 다례를 당내의 장손집에서 지낸다. 지손의 조상에 대한 다례는 장손집에서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 지손별로 별도로 지낸다. 다례가 끝나면 당내간 씨족원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을 끓여먹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이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다. 이러한 조상에 대한 행사가 끝나면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풍물을 치고 하루를 즐긴다.

■ 안 택 굿

정초에 가정마다 날을 잡아서 단골을 불러다가 독경을 읽고 터주신, 조상신 등에게 일년동안 집안의 액운을 면하게 해달라고 고축하고 기원한다. 굿이 끝나면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정초의 안택굿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라졌다.

■ 춘 축

입춘날 春聯을 대문이나 장광, 부엌문 기둥 등에 써붙이고 송축하는 행사다. 흔히 “立春大吉 建陽多慶” 또는 “雨順風調 時和豐年” 등 문귀가 많았다. 이러한 춘축행사는 한학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자연히 1970년대초 이후 사라졌다.

■ 다리놓기

정월 14일 날 밤에 당년의 신수가 나쁜 사람들은 냇가에 나가 개천에 돌다리를 놓는 습관이 있었다. 이는 남을 위해 적선을 하면 한해의 액운을 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유래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도 벌곡천에 다리가 가설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사라졌다.

■ 윷놀이와 농악

윷놀이는 보름을 전후해서 적당한 날을 잡아 마을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놀이를 한다. 윷놀이는 사전에 희망하는 부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이 돈으로 설탕, 밀가루 등 생활용품을 상품으로 정하여 편을 갈라서 논다. 부녀자들의 윷놀이에 남자들은 윷판의 말을 놓아주고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윷놀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농악은 정월초, 추석 등 큰 명절에 남·녀가 함께 즐기는 놀이다. 마을에는 징, 팽과리, 북, 장고 등으로 구성된 사물을 비치하고 있으며, 큰 명절외에도 각 가정의 회갑 등 경사에 주민들이 사물을 치며 함께 즐기는 놀이다. 현재 증촌마을에는 남·녀가 모두 사물을 치며 놀이하는 풍습이 남아있다.

② 이 월

■ 영등제

영등제는 가정주부가 부엌이나 장독대에 음식을 차려놓고 風神에 기원해서 가구원의 무병안택과 집안의 풍년을 빌며 액운을 면하기를 비는 풍신제였다. 그러나 이 풍속은 1960년대 중반부터 사라졌다.

■ 경침먹기

경침날을 전후해서 서당풀과 매통풀의 꽃짜기 논에서 개구리알을 건져다 소주에 타마시는 풍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③ 삼 월

■ 화전놀이

마을 주위의 산에 진달래꽃이 만발할 때 부녀자들이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화전을 지져먹고 하루를 즐기며 놀이하는 풍속이다. 화전놀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지고 놀이계의 봄, 가을 놀이로 대체되었다.

■ 한식

한식은 절기 중의 하나로 한식날 술, 과일, 포, 떡, 탕, 적 등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냈다. 오늘날 이 제사는 간소화 되었고 한식날 성묘한다.

④ 사 월

■ 초파일

초파일에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에 있는 화개사를 찾아 불공을 드린다. 초파일 날 절을 찾는 사람들은 불교신자만은 아니다.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치성을 드리러 절을 찾기도 하며 초파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에 가는 것 자체가 놀이이기도 하다.

⑤ 오 월

단오는 큰 명절로 인식되어 조상에 제사를 지내왔으나 1970년대초부터 단오제사는 사라졌다. 단오날 부녀자들은 매통풀에 있는 옷샘에 가서 머리를 감고 남·녀 노소가 모여 그네뛰기를 하였으나 이러한 풍속도 1970년대 초부터 사라졌다.

⑥ 칠 월

칠월 칠석에는 마을공동행사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재앙과 병을 막고 소원성취를 비는 칠석제를 지냈다.

마을공동행사로는 공동우물을 깨끗히 청소하고 질병을 막아달라고 용왕제를 지냈다. 이 날은 마을길 등을 고치며 주민들이 함께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농악놀이를 하며 즐긴다.

각 가정별로 드리는 칠석제는 칠성단이나 장독대에 치성을 드리며 가족들의 무병과 재앙을 막아달라고 빈다. 칠월 칠석날 마을공동으로 행하던 행사는 공동우물이 수도물로 바뀌면서 사라졌으며 각 가정별 칠석제도 일부 노령층 가구에서만 지내고 있다

■ 백 중

백중날은 농사일을 다 끝내고 주인이 머슴이나 일꾼들에게 용돈을 주고 하루를 즐기도록 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머슴들은 주인한테 용돈을 받아 두계나 흑석리의 장에 가서 음식을 사먹고 씨름판을 구경하곤 했다. 백중날놀이는 1970년대 이후 사라졌다.

⑦ 팔 월

■ 추 석

추석에는 햇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순서는 설날과 같으며 당내간 친척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식사후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한다.

⑧ 시 월

시월은 상달이라 하여 초 사흘날경에 각 가정마다 햇곡으로 떡을 빚어 가신들에게 고사를 지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성주신, 터주신, 조상신, 삼신, 업신, 측간신, 수문신 등 가신에게 두루 떡을 바치고 정성을 드리는 고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18가구만이 고사를 지내고 있고 그것도 성주신이나 터주신, 조왕신, 조상신 정도로 간소화되고 있다.

⑨ 동 짓 달

동짓달의 동짓날은 작은 설이라고 해서 명절로 삼아왔다. 동짓날 붉은 팔죽을 쑤

어 대문이나 벽에 뿌리는 것은 역귀가 붉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죽을 뿌리면 귀신을 쫓아 액운을 면할 수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동짓날에도 가신들에게 치성을 드려 왔으나 1960년대 말에 없어졌고 현재는 동짓날 팥죽만을 쑤어먹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4. 문화생활 및 에너지이용

가. 전기·전자식 생활용품의 보급

증촌마을에 전기가 보급된 것은 1972년도의 일이다. 전기의 보급은 일상생활은 물론 농업생산 등 경제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전기의 보급으로 나타난 대표적 변화는 동력이 석유와 디젤에서 전기로 바뀐 것이다. 생산현장에서도 전기모터를 이용한 양수, 탈곡작업 등이 보급되었다.

전기의 보급은 자가수도의 보급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마을공동우물을 사용하던 불편을 덜어 주었다. 즉, 각 가정에서 전기모터를 이용한 자가수도의 보급은 공동우물의 필요성을 상실케 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공동우물은 식수용에서 빨래를 위한 세탁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우물의 세탁용 전환은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있던 칠석제 등 마을공동행사를 사라지게 했다.

전기보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전기, 전자식 생활용품의 보급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이다. 라디오와 TV의 보급은 외부사회로부터 전달되어온 정보가 우물가 또는 사랑방모임 등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이곳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오던 메카니즘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즉, 마을주민들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정보를 직접 수신하게 되고 사랑방 모임에서도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담지한 정보를 토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함으로써 여론형성의 주체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TV의 확대보급은 가족원들을 TV 앞에 모이게 하여 저녁이면 자연히 형성되던 마을 사랑방을 사라지게 했다.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렌지 등 생활용품의 확대보급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생산여가활동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자동화된 전기밥솥, 밥통의 보급은 가정주부

의 일손을 크게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작업의 시간상 제약을 덜어주고 있다. 냉장고의 보급은 생선, 고기, 우유 등 고단백 식품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조리·가공기술의 보급과 함께 음식의 신선도를 높혀 주민들의 보건위생이 향상되었다.

1985년 당시 가장 높은 보급율을 나타낸 것은 전기밥솥으로 전체 가구의 71.2%인 37호가 전기밥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냉장고는 17호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라TV는 2호, 가스렌지는 4호, 전축은 1호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1988년 까지 가장 괄목할 만한 보급율을 보인 것이 가스렌지와 칼라텔레비전, 냉장고 등이다. 특히, 가스렌지의 보급은 정부의 에너지구조 조정정책에 따라 가스보급소가 읍·면 단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급격히 확대되었다. 가스렌지가 급격히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이후부터다.

냉장고, 칼라텔레비전, 가스렌지 등의 확대보급은 마을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며 문화적인 충족감을 갖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 첫째는 이와같은 전기, 전자제품의 활용이 전반적인 경제수준과 일치하지 않아 과시소비적인 경향이 있다. 둘째로는 칼라텔레비전 등으로부터 쏟아지는 도시의 현란한 색상과 과장된 도시생활풍조는 농촌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열등의식을 갖게하고 탈 농촌을 서두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4-12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구 분	1985 *		1988 **	
	보유대수	비율	보유대수	비율
칼라TV	2	3.8	24	42.9
냉장고	17	32.7	41	73.2
전기밥솥	37	71.2	42	75.0
가스렌지	4	7.7	47	83.9
VTR	-	-	2	3.6
전자렌지	-	-	-	-
전축	1	1.9	1	1.8

* 1985년도의 조사대상 가구수는 52호였음.

** 1988년도의 조사대상 가구수는 56호였음.

나. 교통·통신수단의 보급

증촌마을에 전화가 가설된 것은 1975년이다. 처음에는 정부가 마을 전화기 1대를 행정용으로 공급하여 이를 행정전화라고 불렀다. 이 행정전화는 이장집에 설치하였다가 구판장으로 옮겼다. 1982년도에 증촌마을에 대전전화국의 일반전화선이 확대 가설되었으며 1985년도의 개인별 전화대수는 22대였다. 1988년 현재 전화는 모두 32대가 가설되어 57%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가정이 전화를 가설하게 되자 가구간의 의사교환에 전화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새마을운동 이후 가설된 마을앰프시스템은 마을의 각종 공지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촌마을은 개인용 교통수단이 별로 없다. 오토바이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자가용자동차는 한대도 없다. 1985년도에 오토바이가 3대 있었으나 1988년도에는 두 대로 줄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대전 시내버스가 마을앞까지 연장운행되어 교통조건이 개선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농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겸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어갈 때 개인별 교통수단은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촌 주민들의 신문구독은 1985년과 비교해 볼 때 별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85년도에 6호의 가구가 일간지 일반신문을 구독하고 있었고, 9호가 농업관련 전문신문을 구독하고 있었으며, 1988년도에도 일반신문 구독자가 7호, 농업관련 전문지의 구독자가 6호였다. 월간지²⁹⁾를 구독하고 있는 가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증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TV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층에서 신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있다.

다. 에너지 이용

1985년 증촌마을의 가구별 난방용 연료사용을 보면 전체가구의 69.8%가 화목을 이용하고 있고, 가구의 28.3%가 연탄을, 그리고 1.9%인 1가구만이 석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1988년도에는 화목연료가 감소한 대신 연탄사용이 증가했다. 즉, 전체 가구의 41.1%가 화목연료를 그리고 57.1%가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9) 면사무소, 농협, 지도소 등지에서 무료로 배분하는 월간지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취사용 연료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85년도까지 취사용 연료로 화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도에는 취사용 연료로서 가스가 화목이용을 앞지르게 되었다. <표 4-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5년도에는 여름철에 화목을 주연료로 이용하는 가구가 47.2%였고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비율은 37.7%였으며, 연탄, 석유, 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불과 3~5%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8년도에는 화목연료 사용가구가 14.5%로 감소하고 가스가 49.1%로 증가했으며, 전기사용도 29.1%로 약간 감소 했다. 이와같은 추세는 겨울철 취사용에너지 이용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겨울철 취사용 에너지원으로 화목은 1985년도에 86.8%의 가구가 사용하고 있었으나 1988년도에는 20.0%로 감소했다. 반면, 가스를 주 취사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는 39.5%로 나타나며, 전기는 38.2%로 여름철보다 사용하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가용 난방연료로 화목이 연탄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화목을 채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탄을 구입하는 것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의 감소로 잠재실업인구가 사라지고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 상승하게 되자 연탄구입보다 화목채취가 더 비싸졌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성의 추구와 화목채취와 같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생활양식과 의식의 변화도 화목보다는 연탄, 그리고 연탄보다는 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13 난방 및 취사연료

구 분		1985	1988
난 방	화 목	37 (69.8)	23 (41.1)
	연 탄	15 (28.3)	32 (57.1)
	석 유	1 (1.9)	1 (1.8)
취 사	여름 화 목	25 (47.2)	8 (14.5)
	연 탄	2 (3.7)	1 (1.8)
	석 유	3 (5.7)	3 (5.5)
	가 스	3 (5.7)	27 (49.1)
	전 기	20 (37.7)	16 (29.1)
	겨울 화 목	46 (86.8)	11 (20.0)
	연 탄	2 (3.7)	3 (5.5)
	석 유	-	1 (1.8)
	가 스	-	19 (34.5)
	전 기	5 (9.5)	21 (38.2)

제 5 장

공 간 구 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적한 오지의 농촌마을로 남아 있던 증촌은 1970년대의 새 마을운동과 산업화, 도시화, 공업화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시장, 교육, 의료권이 점차 대전으로 편입되어 도시근교마을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88년은 증촌마을이 대전직할시로 편입되고 대전의 시내버스가 마을까지 연장 운행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생활권은 완전히 대전으로 편입되었다. 산업사회화와 공업화에 의한 도로와 교통 및 통신수단의 확충은 대전시내와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마을중심의 인근 5일시장권(두계, 벌곡, 흑석)으로부터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생활권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마을내의 공간구조를 현저히 변화시킨 것은 1972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86/87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의 영향이 크다. 1972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 농로 등이 확장 또는 개설됐고 정부의 세멘트지원으로 각 가정의 부엌과 아궁이, 지붕 등이 개량되었으며 상수도와 하수망이 개설되었다. 1979년도에는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었으며 새마을구관장이 회관내에 개설되었다. 마을안길의 포장은 1979년도에 착수해서 1985년도에 완료했다. 1972~88기간중에 추진된 주요 새마을운동 실적은 <표 5-1>과 같다.

1986/87기간에 실시된 경지정리는 마을진입로와 농로, 수로 등 마을의 도로순환체계는 물론 경지의 모습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촉진한 것이지만 설계와 환지작업에 이르기까지 증촌수리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다.

표 5-1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1972~88

사업명	물량	기간	정부지원	주민부담
마을진입로	350m 확장	1972-73		도로부지 및 노동력 (폭 2~3m를 4m로 확장)
마을안길	250m "	"		도로부지 및 노동력 (3m로 확장 및 개설)
농로	100m	"		농로부지 및 노동력
지붕개량	58호	1973-76	용자	
부엌개량, 아궁이개량	58호	1972	세멘트	
담장개량		1973-76	"	노동력 부담
공동세탁장	1개소	1973	"	"
하수도		1975-76	"	"
새마을회관	1동 (25평)	1979	하사금 300만원	부지 226평, 건축비, 노동력
새마을구판장	1개소	1979		새마을부녀회의 운영자금
가로등	10개소	1980		
상수도	45호	1982	150만원 보조, 세멘트,	수도꼭지등 부대시설, 노동력

1. 주민생활권

증촌마을 주민들의 주 생활중심지는 대전이다. 대전은 시청, 도청, 지방법원 등 직할시 및 도단위 행정기관이 있고 대학교, 고등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과 전문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있어 마을 주민들의 행정,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특히 대전은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주요 농산물을 판매하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결혼식, 계보임, 동창모임, 문중모임 등 사회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흑석리는 기성동의 소재지로서 증촌마을에서 4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보조적 중심지 역할을 한다. 흑석리에는 동사무소, 경찰서지서, 보건소지소, 우체국, 단위농협, 농촌지도소지소등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기관이 있으며 흑석중학교와 국민

표 5-2 증촌주민의 생활중심지별 주요시설

구 분	공공기관 및 시설	시 장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문화시설
대전시	도 및 시 행정에 관련된 각급 정기관 은행,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백화점, 수 페마켓, 상 설시장	종합병원, 보 건소, 의원, 한의원, 약국, 약방	대학교, 전 문대학, 중 고등학교	도서관, 공연장, 음식점, 호텔, 여관, 다방, 이미용업소
흑석리	동사무소, 경찰서지서, 농촌지도소지소, 농협, 우체국	5 일시장, 연 쇄점	보건지소, 약국, 약방	중학교, 국민학교	음식점, 다방, 이미용업소
신평	농협출장소, 농협창고, 버스정류장			국민학교	

학교가 있다. 흑석리는 매 2,7 일마다 5 일장이 선다. 흑석리 5 일장은 7 ~ 8년 전만 해도 12 시까지 장이 설만큼 장세가 컸으나 요즈음에는 오전 10 시만 되면 파장되는 반나절 장으로 쇠퇴했다.

평촌 1 리인 신평마을은 증촌마을에서 1.3 km정도 떨어져 있다. 신평에는 기성농협 평촌출장소와 농협연쇄점이 있고 농협창고와 시내버스정류소가 있으며 대전에서 이전해 오고 있는 소규모 영세제조업체들이 들어서고 있는 점에서 증촌마을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하는 보조적 중심지가 되고 있다. 신평에 입주한 제조업체로서 중요한 기업은 아진산업(알미늄 샷시 가공업)과 조택스(봉제업), 한발타올 등 5 개 정도의 직물업체들이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종업원이 50 여명에 이르는 중소기업(조택스)에서부터 5 명에 이르는 영세 수공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 시 장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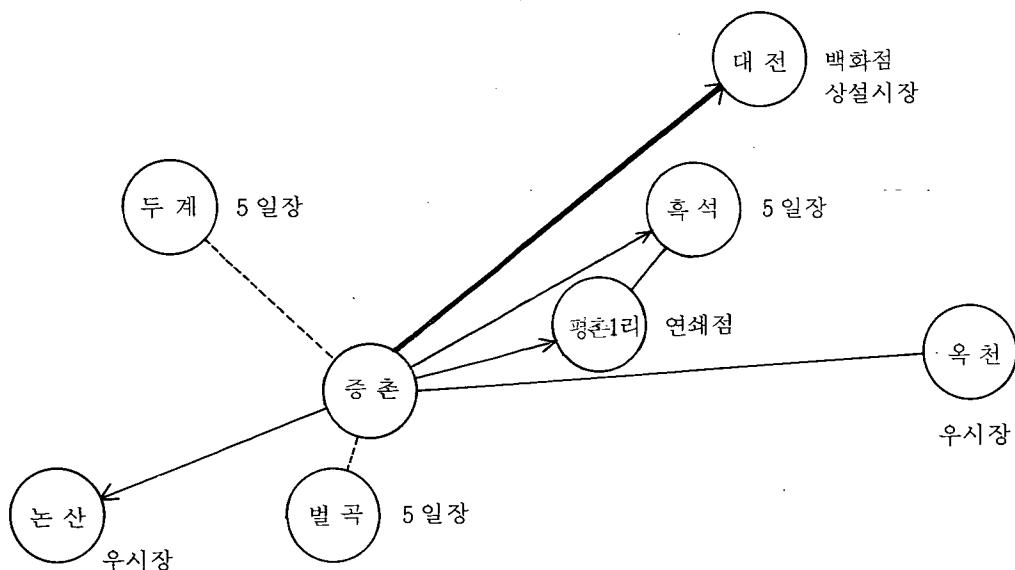
별곡-대전간 도로인 639번 지방도로가 확장·포장되고 시내버스가 통행되기 이전인 1970년대까지 증촌마을 주민들이 이용했던 중요한 시장은 두계장과 벌곡장이었다. 두계장은 증촌마을에서 5 km정도 떨어진 논산군 두마면 소재지에 열리는 5 일장이다. 1970년 때까지 증촌주민들은 농산물을 사고 팔거나 식료품구입 특히 소를 팔 때 두계장을

주로 이용했다.

별곡장은 논산군 별곡면 소재지에 열리는 5일시장이다. 증촌주민들은 두계장을 주로 이용하면서도 별곡장을 보조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1972년부터 대전-별곡간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증촌주민들의 흑석장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대전에의 접근도도 용이해지자 점차 두계장에서 흑석장으로 그리고 대전시장으로 시장권을 이동시켰다. 특히 1980년부터 두계장의 우시장이 폐지되자 주민들은 우시장을 논산, 옥천장 등으로 옮겼으며 농산물판매와 식료품의 구입도 흑석 및 대전시장으로 옮겼다.

1988년 현재 증촌주민들은 두계장과 별곡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반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은 흑석장과 대전시장이다. 마을에는 구판장이 하나 있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주요상품은 주류와 마른식품, 어린이용 과자, 치약, 비누 등 일상생활용품들이다. 평촌1리에는 농협연쇄점이 있지만 급한 경우가 아니면 마을까지 연결된 시내버스를 타고 흑석리장이나 대전시장을 이용한다. 그러나 상품의 다양한 품질, 신선도, 가격 등에서 흑석리장이 대전과의 경쟁에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내구성 생활용품은 물론 식료품 예를 들면 고기, 생선, 야채 등 까지도 대전시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림 5-1 증촌주민의 시장권



1960년때까지 증촌주민들의 시장권은 마을과 두계·별곡을 잇는 공간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증촌마을 주민들의 시장권은 두계·별곡·흑석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1980년도의 두계 우시장 폐쇄로, 그리고 대전시장에의 접근도 향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시장권은 논산, 대전, 옥천을 연결하는 광역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다.

나. 교육권

1930년대까지 증촌주민들은 논산군 두마면에 있는 두마소학교에 도로로 걸어서 취학하고 있었다. 당시의 소학교통거리는 5km정도였다. 그러다가 1940년대초 웨정말기에 기성면에 기성소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육권은 대덕군 기성면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소학교통학거리는 4km정도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67년도에 평촌1리 와촌에 길현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국민학교 통학권은 마을에서 1.3km거리로 크게 축소되었다.

중학교교육은 1967년도까지 대전에서 받았다. 따라서 중등교육권은 마을에서 20km거리의 대전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67년에 기성면 소재지에 기성중학교가 설립되면서 중학교 교육권은 통학거리 4km로 크게 축소되었다. 1967년 이전에 대전으로의 중학교통학은 원정역을 이용한 기차통학이 대부분이었다. 여유있는 학생은 대전에서 하숙하거나 친척집에 기숙하기로 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1972년부터 대전-별곡간 시내버스가 운행되자 시내버스를 이용한 통학인구가 늘었고 남학생들의 자전거통학도 늘어났다.

고등학교 학구는 대전시내에 속해 있다. 시내버스가 대전까지 다니기 이전에는 원정리역을 이용한 기차통학 또는 대전에서의 하숙이나 자취가 보편화 되 있었으나 1972년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되자 시내버스 통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8년 시내버스가 증촌마을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증촌주민자녀들의 고등학교 통학은 매우 편리해져 자취나 하숙보다는 버스통학을 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3 학생들의 취학실태

구 분	1985			1988		
	총 학생 수	재촌취 학생수	재촌취 학률	총 학생 수	재촌취 학생수	재촌취 학률
국민학교	35	35	100	34	34	100
중학교	18	18	100	15	15	100
고등학교	13	4	30.8	8	2	25.0
대학교	11	-	0	3	-	0
계	77	57	74.0 %	60	51	85.0

다. 진료권

근대화된 의료시설이 보편화되기 이전 충촌주민들의 간단한 진료나 질병치료는 마을내에 있었던 침술사와 대전, 별곡, 두마 등지에 있었던 한의사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확실한 병명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무당의 힘을 빌어 살풀이, 푸닥거리, 굿 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당이 하던 살풀이나 푸닥거리, 굿 등은 미신이라고 인식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사라져 버렸다.¹⁾

1960년대 까지 마을에는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²⁾이 있어서 간단한 침시술로 치료도 하고 단순한 한방처방도 했다.

또한 1950~61년까지 평촌2리에 의료시술면허를 가진 의원이 있어서 간단한 질병은 평촌2리의 의원을 많이 이용했다. 그러다가 그가 1962년부터 면소재지인 흑석리에서 한지의원으로 개원하여 의원에 대한 진료권이 멀어졌다.

기성면 소재지인 흑석리는 충촌주민들에게 1차진료권의 역할을 해왔다. 흑석리에는 보건지소가 있어 의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약국 1개소, 한의원 1개소가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충촌마을에서 대전을 직접 연결하게 되면서 흑석리 보다 대전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1) 그러나 최근에도 종종 푸닥거리를 하는 가구가 있다고 한다. 마을내 푸닥거리는 절을 운영하는 10번 가구의 부인이 주로 담당한다.

2) 4번 가구주의 부친으로 한의학을 독학으로 수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에는 종합병원, 병원, 전문의원, 의원, 약국, 약방, 한의원 등 진료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증촌주민들의 1차 및 2차 진료권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라. 통혼권

1985년 이전에 결혼한 증촌주민을 대상으로 통혼권을 살펴보면 78.6%가 군외지역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내 지역사람들과 혼인한 사례는 21.5%로 낮으며 면내 사람들과는 3.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증촌마을이 무송유씨 집단촌이기 때문에 마을내의 족내혼인³⁾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반촌으로서 행세하는 증촌주민들이 혼처를 면 지역에서 선택해 온 결과로 보인다.

증촌마을의 통혼권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 이전에는 결혼한 주민들 중 90.9%가 군외지역 주민과 혼인했다. 이때 주 혼인처는 논산과 금산 등 지역으로 나타났다. 1950~60년대에는 군외지역 주민과의 혼인이 68.7%로 줄고 반면에 군내지역과의 혼인이 31.3%로 늘었다. 1970년대 이후의 혼인을 살펴보면 군외지역과의 혼인은 55.6%로 더 줄어든 반면 군내혼인이 44.4%로 증가했다. 즉, 1950년이후 부터 무송유씨 집안의 통혼권은 군산, 금산 등 군외지역에서 점차 군내지역으로 그 공간적 범위가 좁혀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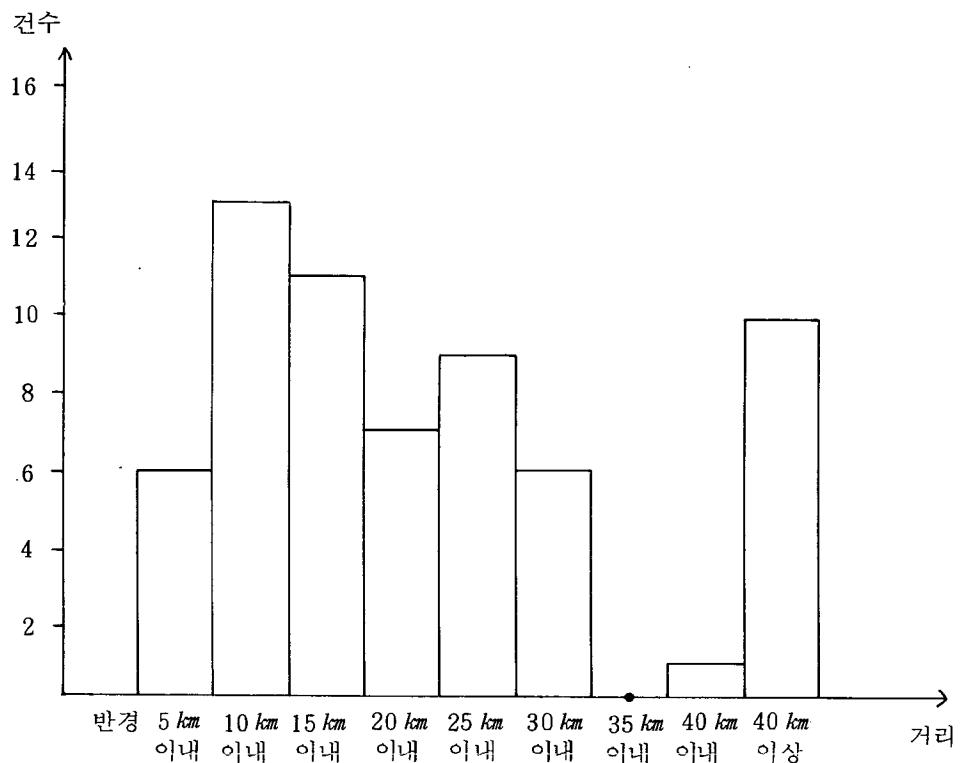
표 5-4 통혼권의 변화, 1945~88

단위 : 건 : (%)

구 분	1950년이전	1950~60	1970년이후	계
본 마을	-	-	-	-
면 내		1	1	2(3.6)
군내 (대전포함)	2	4	4	10(17.9)
논 산	10	4	3	17(30.4)
금 산	3	1	2	6(10.7)
기 타	1	1	2	4(7.1)
도 외	6	5	5	17(30.4)
계	22	16	18	56(100.0)

3) 그러나 14번가구와 57번가구는 타성을 가진 외지인으로 마을에 들어와 살다가 마을내 처녀와 결혼하였다.

그림 5-2 통흔거리별 혼인건수



2. 마을 공간구조

가. 주거공간

① 주택의 분포

증촌마을은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마을의 오랜 역사와 함께 마을은 마을도로를 경계로 하여 안대, 바깥대, 서당골, 방아재 등의 별도 지명을 갖고 있다.

안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집터가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따라서 안대에는 무송 유씨 집안중에서도 위세가 컷던 집안이 차지하고 있어 마을의 중심부로 인식되고 있다. 안대에는 무송 유씨 집안의 사당이 있기도 하다. 바깥대와 서당골은 안대에 길 하나로 연이어 있다. 그러나 마을의 중심이 안대에 있는 만큼 안대에 가까히 자리잡은 집일수록 그 집안의 위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유씨가 아닌 가구는 바깥대와 서당골 및 방아재의 주변부에 자리잡고 있고 유씨라 하더라도 분가자나 지순들의 집은 바깥대나 서당골 및 방아재의 주변부에 입지하고 있다.

증촌마을은 용산을 마을 서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을 향이 동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방향도 67.0 %가 동향을 취하고 있으며 남향주택은 25.0 %, 북향은 8.0 %인 반면 서향주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마을은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농가경제사정의 개선 등에 따라 일부주택이 개축 또는 신축되었고 부속사 등이 건립되었으나 마을 내 주택배치나 도로구조 등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1970년 이후 신축된 건물 수는 26동에 이른다. 그러나 새로운 가구의 신설로 인해서 신축된 건물은 한 건(55번 가구)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 주택의 부속사로 신축된 것이다. 기존 건물의 개축은 22동으로 나타난다. 이를 개축된 건물은 모두가 안채 또는 사랑채로서 조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1970년 이후 신축 또는 개축된 건물은 총 49동이며 이는 안채 11동, 사랑채 12동, 축사 9동, 창고 및 기타 건물 16동, 공공건물(마을회관) 1동으로 나타난다.

그림 5-3 건축물별 주택배치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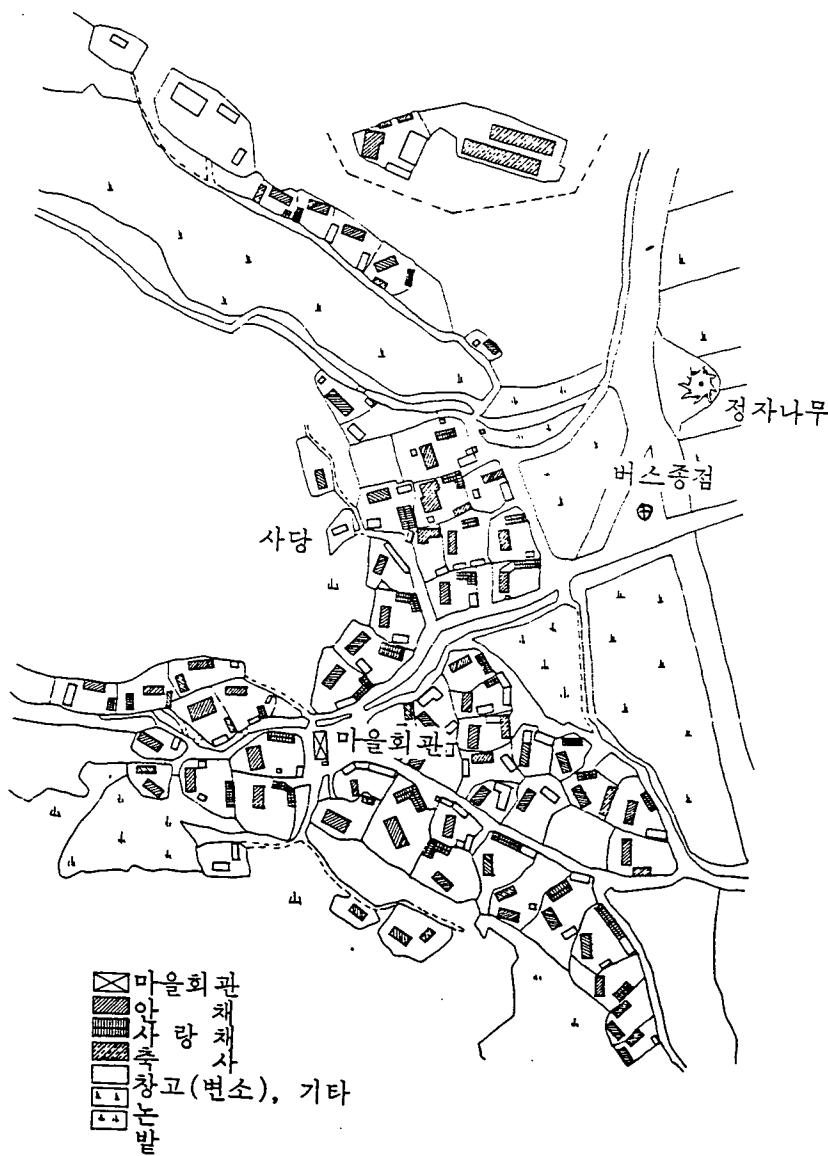


그림 5-4 1970년 이후 증가된 건축물, 1988



그림 5-5 성씨별 주택분포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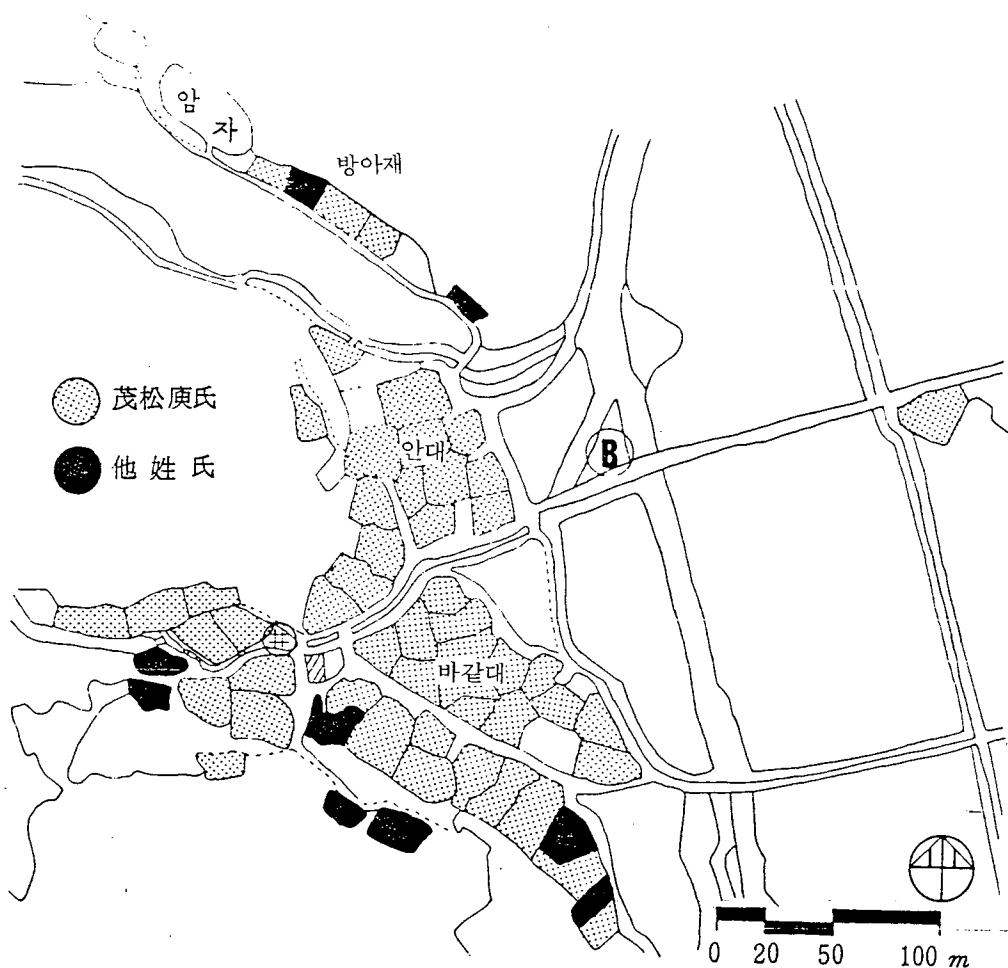


표 5-5 주택의 향배, 1988

주택의 향 배	호 수	비 율
동	40	67.0
서	-	
남	15	25.0
북	5	8.0
계	60	100.0

주: 주택의 총수 60채중에는 공가 2채가 포함되어 있음.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마을의 주택의 변화는 불량 또는 노후주택(안채, 사랑채) 개선을 목적으로 개축한 것과 부족한 창고, 불결한 화장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부속사의 신축으로 대별된다.

신축된 부속사 중에는 축사가 9동 있으나 돼지 50두 이상 사육가능한 돈사 2동, 소 10두 이상 사육가능한 우사 1동을 제외하면 모두 한우나 돼지 1~2두를 사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축사다. 이중에서 규모가 큰 돈사 2동은 본 부락에서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신축되어 있는 돼지사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직접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나 사육두수가 증가할 경우 농업용수와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우사는 24번 주택앞 20m지점에 신축되어 있어 사육두수가 증가할 경우, 분뇨로부터의 오염이 마을 주거환경을 조악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주택구조

증촌의 주택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이후 모두 기와와 슬레이트로 지붕이 개량되고 현대식 양옥구조의 주택이 2호나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은 노후화되어 있다. 전체 주택의 60.3%인 32호가 20년 이전에 건축되었고 80년 이상된 주택도 9호나 된다. 반면에 1970년대 이후 건축된 주택은 12호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의 쾌적성은 매우 불량하다. 화장실을 보면 수세식은 1호에 불과하고 삼조식 변소로 개량한 화장실은 4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이다. 주택에 온수를 시설하고 목욕실을 갖춘 주택은 1호에 불과하다.

표 5-6 연대별 주택 건축현황

연 대 별	주 택 수	비 율
1980년도이후	2	3.8
1970 ~ 79	10	18.9
1946 ~ 69	19	35.8
1910 ~ 45	13	24.5
1909년이전	9	17.0
계	53 호	100.0

* 5 호는 미조사

주택에 부수된 담장을 갖추지 않은 주택은 30%에 이르고 대문이 없는 주택도 40.2%에 이르고 있다. 담장의 대부분은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세멘트 블럭 또는 조립식 세멘트 담장(29호)으로 만들어져 있고 돌담 5호, 나무울타리 1호로 되어 있다. 대문은 철제로 된 것이 25호로 53.2%에 이르며 나무로 된 대문은 3호에 불과하다. 한편 증촌의 가구 58호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가 52호로 86.6%에 이르고 있으며 6호가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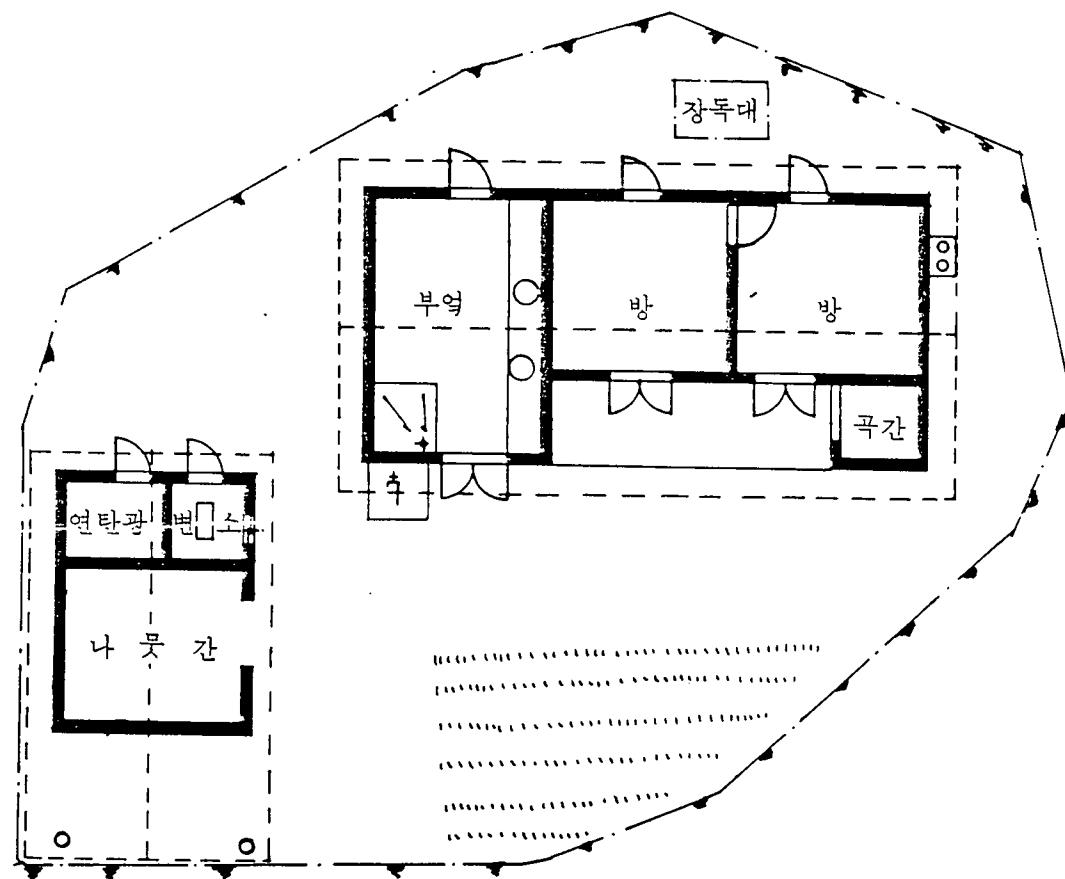
증촌마을주택의 기본형은 3칸주택이다. 증촌의 주택을 형태별로 A, B, C, D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A형주택

이 주택은 3칸 기본형으로 방2개, 부엌 및 쪽마루를 갖는다. <그림 5-6>은 가장 단순한 A형주택이다. 이 주택은 아랫방과 옷방을 잇는 곳에 마루를 놓지 않고 봉당을 만들어 시멘트로 미장을 했다. 아랫방은 안방으로 가장 부부내외가 거처하고 장지문 하나로 연결된 옷방은 자녀들이 기거한다. 봉당의 한 끝에는 곡식 등을 저장해 두는 곳을 만들어 두고 있다.

부엌은 봉당을 통하여 방으로 드나들도록 되어있고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온돌 아궁이 구조를 갖고 있으며 통고래를 통하여 아래·옷방을 동시에 난방한다. 부속사로는 화장실과 나뭇간 및 연탄광이 있다. 집 뒷문에는 장독대를 설치하여 부엌과 연결시키고 있다. 증촌마을에서 A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16호로서 26.7

그림 5-6 A형 주택, 1988



%를 차지 한다.

나) B 형주택

전통적인 3칸 구조에다 사랑채를 추가한 주택을 B형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B형주택은 당초 3칸 주택에 살던 가구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부모와 부부 성장한 자녀 등과의 독립된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로 확보한 경우이다. 이때 추가로 신축된 건물에는 주거용 방 뿐만 아니라 창고, 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건축하기도 한다. <그림 5-7>은 전형적인 3칸구조에 사랑채를 추가한 B형주택 구조다. 안채는 아랫방과 부엌 사이에 그리고 마루와 부엌 사이에 각각 출입문을 내어 부엌과 방을 연결하는 동선을 줄이고 특히 겨울철에 외부를 통하지 않고도 부엌을 드나들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그리고 쪽마루에 있는 곡간을 추녀 끝으로 옮겨 설치한 것은 3칸주택의 마루공간을 넓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사랑채는 현 가구주가 결혼하여 거주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축한 것이며 창고와 화장실 등이 추가 되었다. 현재 사랑채의 윗방은 가구주 부부가 사용하고 아랫방은 자녀들이 사용한다. B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현재 18호로서 전체주택의 30.3%를 차지한다.

다) C형주택

C형주택은 안채와 사랑채를 동시에 건축한 것으로서 주택 건축시부터 주거공간상의 분화가 일어난 상태다. <그림 5-8>에 있어서 안채의 아랫방은 가장부부가 사용하는 방이다. 윗방은 ⁴⁾ 둘로 나뉘어져 자녀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자녀들이 출가·출타 중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곡식 등을 저장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채의 방과 방은 모두 여닫이 문으로 통해 있다.

부엌은 마루를 돌아서 방으로 출입할 수 있고 부엌 내부에 나뭇간, 찬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엌앞 추녀를 내달아 헛간을 어린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사랑채는 방 둘과 외양간 및 헛간으로 꾸며진다. 사랑채의 아랫방은 가장의 부친이 사용하며 아랫방은 성장한 자녀들이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다.

4) 윗방이 둘로 나뉘어진 경우는 3칸 겹집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윗방이 둘로 나뉘어지면 자녀들의 성별로 나누어쓰기 편하므로 보통의 3칸 주택보다 주거공간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형태다.

그림 5-7 B형 주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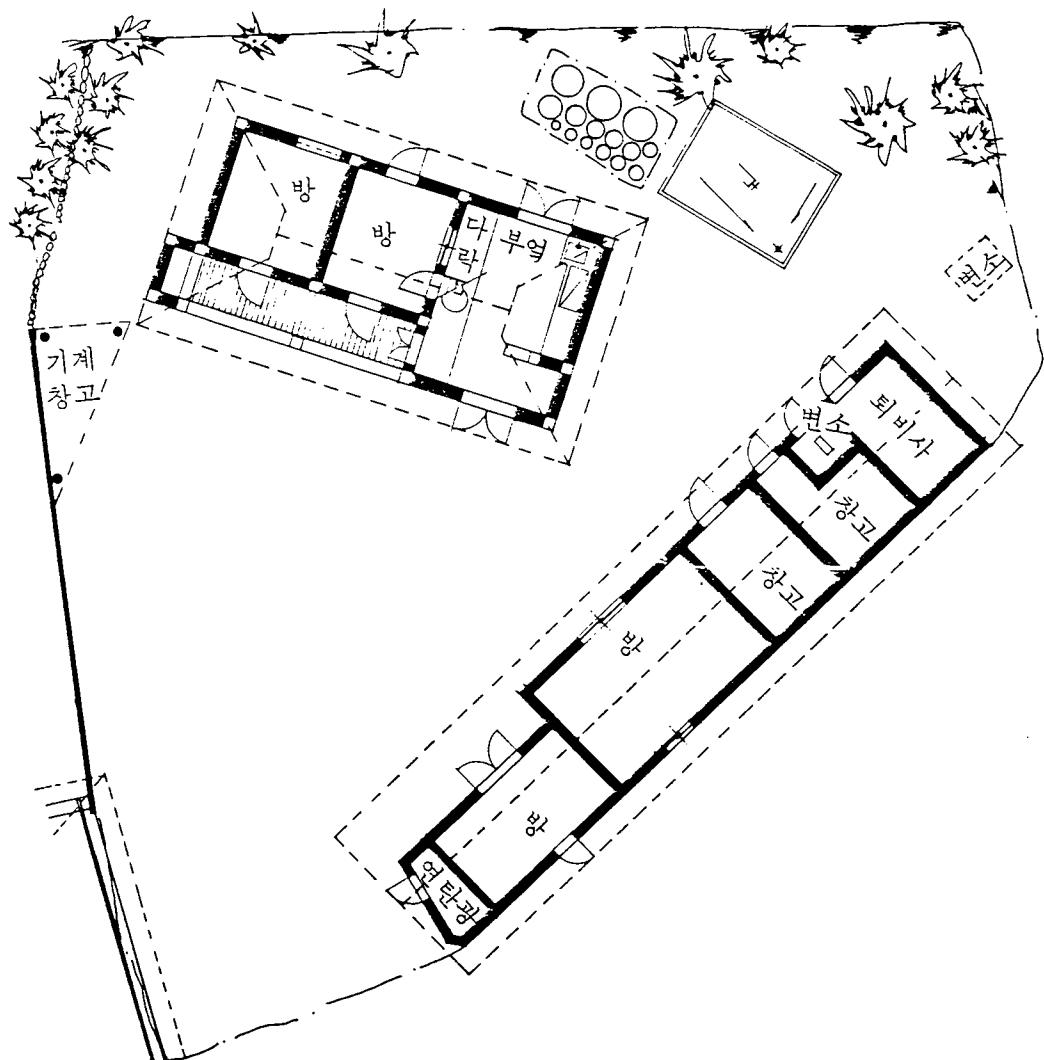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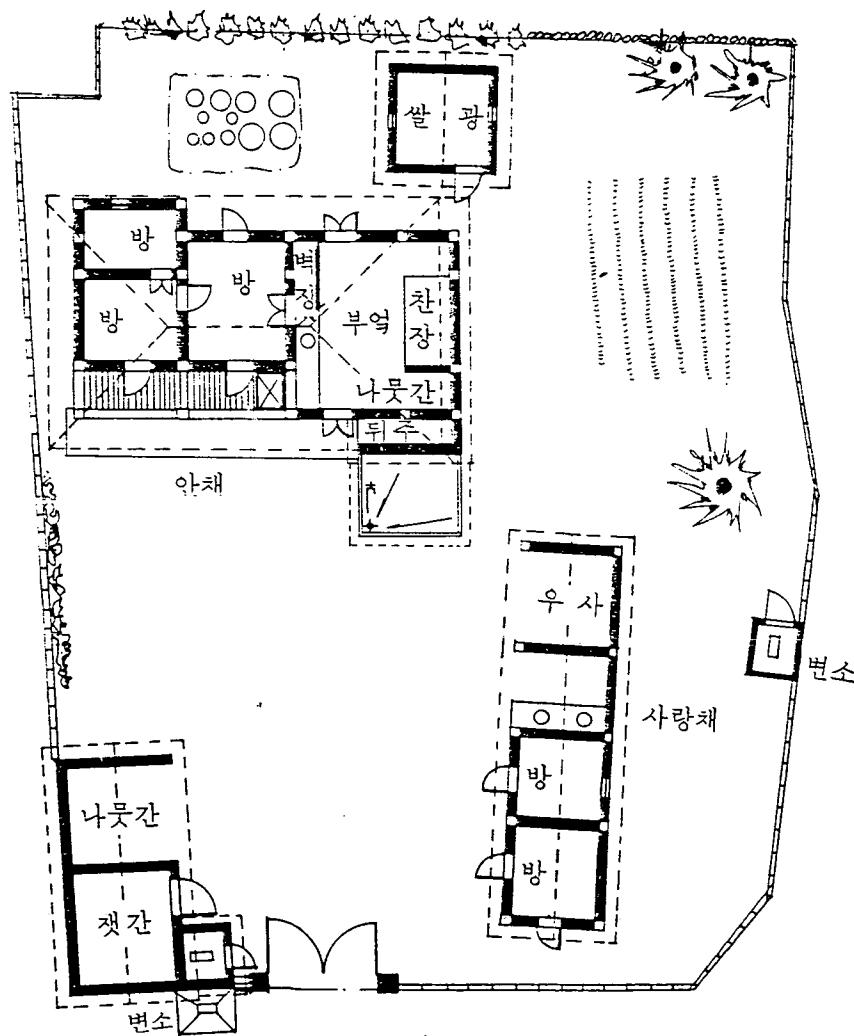


그림 5-8 C형 주택, 1988



부속사로 나뭇간, 잣간 등이 있다.

뒷뜰은 이집 주부의 활동공간이다. 작은 남새밭이 있고 쌀광과 장독대 등이 부엌과 연결되어 있다. 안마당과 사랑채는 가장의 활동영역이다. 나뭇간과 잣간을 건사하는 일과 소죽을 끓이고 소를 사육하는 일은 모두 가장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앞마당에 있는 화장실은 가장의 전용이고 뒷뜰에 있는 화장실은 주부의 전용이며, 대문밖 변소는 가장 부친의 전용이다. C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22호가 있어 전체주택의 36.7%를 차지한다.

라) D형주택

D형주택은 3칸을 기본구조로 하지 않고 새로운 설계에 의해 건축된 주택이다. <그림 5-9>의 주택은 전통적인 3칸 주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편리성과 쾌적성 그리고 과학성을 살려 설계된 주택이다.

첫째로 건축자재로 붉은 벽돌과 세멘벽돌을 주로 사용하고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한옥의 보온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했다.

둘째로 취사 등 주부의 가사활동이 외부를 통하지 않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고안되어 편리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주방은 입식으로 설계되고 식탁을 주방에 설치함으로써 밥상을 들고 다니던 주부의 노동이 크게 줄었다.

셋째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실내에 설치되었고 목욕시설 등이 완비되었으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마루를 응접실로 꾸며 주거생활의 쾌적성을 높였다.

넷째로 방과 방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거나 방음이 되어있어 가족 구성원 각인의 사적공간이 보장되고 있다.

D형주택은 안채만은 도시주택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따라 설계, 건축되었지만 그 이외의 건물들은 대부분 옛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농촌주택이 필요로 하는 수납과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주택은 취사와 난방용 연료가 가스나 석유 또는 연탄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증촌마을에서 D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4호가 있으며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증촌마을의 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총 방수는 171개에 이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인구감소에 의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은 전체의 60.8%에 해당하는 104개 뿐이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은 곡식 등을 저장하는 수납공간으로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평균 방당 인구는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9 D형 주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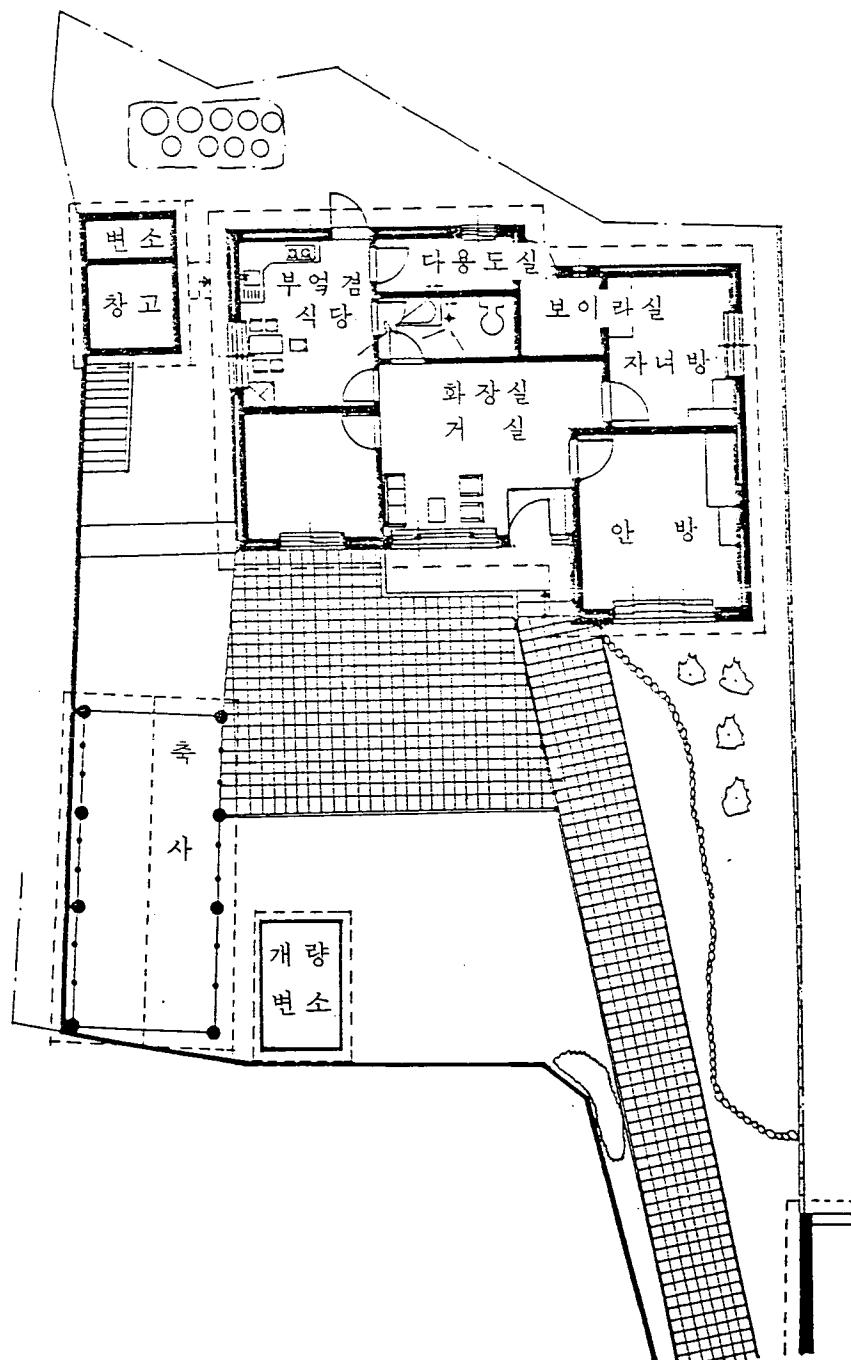


표 5-7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1988

단위 : m^2 (%)

구 분	대 지(A) (B/A)	공 간 기 능 별 구 분				
		계 (B)	주 거	생 산	수 남	기 타
A 형	112.2 (52.5)	57.8 (100.0)	27.5 (47.6)	-	28.5 (49.3)	1.8 (3.1)
B 형	330.0 (26.5)	87.3 (100.0)	44.5 (51.0)	6.0 (6.9)	35.1 (40.2)	1.7 (1.9)
C 형	980.0 (10.4)	102.4 (100.0)	31.9 (31.2)	6.5 (6.3)	49.2 (48.0)	14.8 (14.5)
D 형	330.0 (34.9)	115.3 (100.0)	60.2 (52.2)	13.2 (11.4)	32.8 (28.5)	9.0 (7.9)
계	1,752.2 (20.7)	362.8 (100.0)	164.1 (45.2)	25.7 (7.0)	145.7 (40.2)	27.3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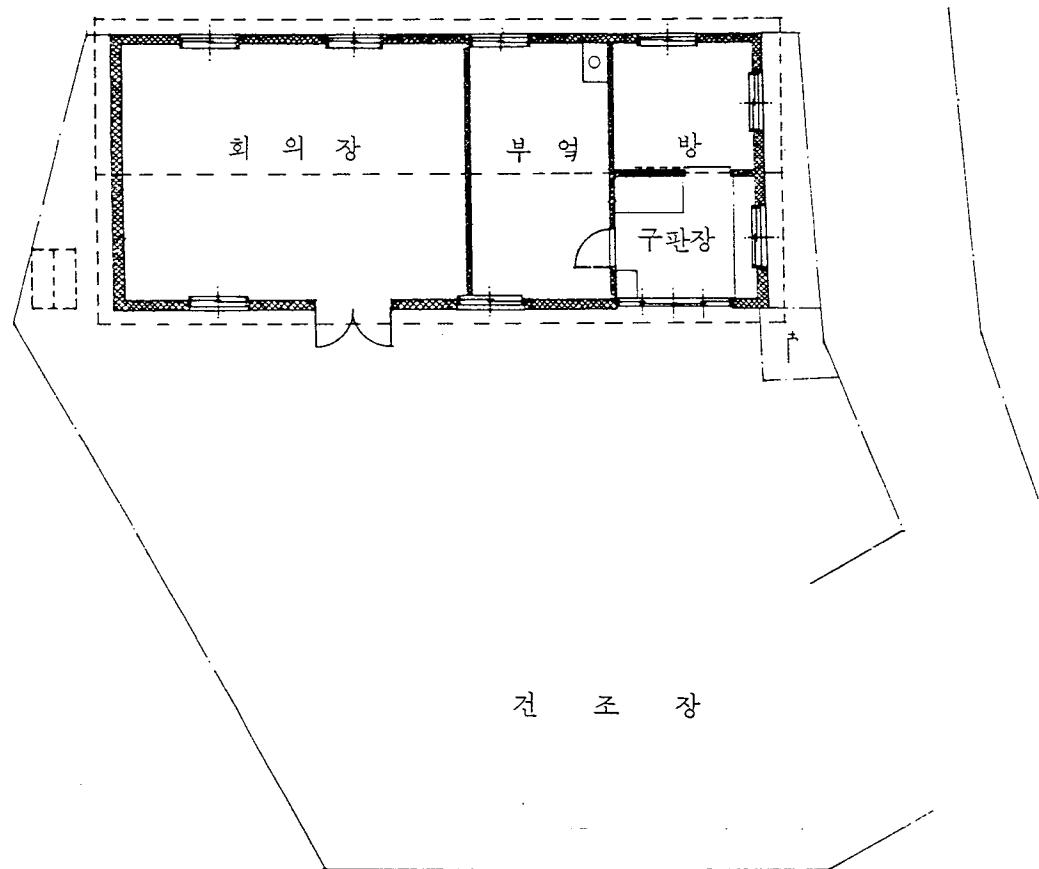
표 5-8 방수별 주택수, 1988

방 수	주 택 수	방 총 수 (A)	현재사용되는방수(B)	(B/A, %)
1	1	1	1	100.0
2	17	34	24	70.6
3	33	99	59	59.6
4	8	32	17	53.1
5 이상	1	5	3	60.0
계	60	171	104	60.8

③ 공동시설배치

증촌마을의 공동시설은 건평 25 평의 새마을회관과 회관내부에 개설된 구판장 그리고 공동세탁장과 버스정류장 등을 들 수 있다. 새마을회관은 안대, 바깥대, 서당골의 마을안길이 서로 만나는 마을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각 지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

그림 5-10 새마을회관, 1988



으며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어서 주민들의 모임에 편리하다.

새마을회관은 1979년도에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운동 하사금 300만원을 받아 착공하였다. 새마을회관 대지는 226평으로 무송 유씨 종중에서 희사한 것이다. 당초 이땅은 유봉찬씨 소유였으나 새마을회관 부지로 정하고 종중소유의 다른 땅과 대체해 주는 조건으로 종중에서 인수하여 마을공동재산으로 기증한 것이다.

새마을회관의 활용도는 겨울철을 제외하곤 양호한 편이다. 여름철 마을회의는 대부분 새마을회관에서 개최하고 동, 지도소, 보건소 등으로부터의 교육활동 등도 주로 회관에서 이루어진다.

구판장은 새마을회관 설립 당시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했다. 그러나 구판장판매 요원의 문제와 자금난 등의 문제로 개인(39번 가구)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구판장 임대조건은 마을내 가로등 10개소의 전기료(월 10,000원 내외)를 부담하는 것이다.

공동세탁장은 새마을회관 옆 하천변에 있다. 과거에는 이 우물물을 식수로도 이용했으나 지금은 세탁용으로만 이용한다. 세탁기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이마을 주부들은 아직 이 공동세탁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시내버스 정류장 500평은 1986/87 경지정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마을공동 소유다.

④ 도로체계

증촌마을의 도로체계는 1986/87 실시된 경지정리사업으로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 농로 등에 대한 확장, 포장사업이 계속되어 왔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인 1930년경의 증촌마을 도로는 외부와 징검다리를 통해서만 연결되었다.

즉 마을에서 신평을 거쳐 대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B를 건너야 했고 오리로 가려면 B'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다. 한편 대전에서 벌곡으로 연결되는 도로⁵⁾는 B''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639번 지방도로가 산

5) 이 도로에 자동차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낮은 하천을 끌라 하천 바닥으로 건너야 했으므로 장마철에는 교통이 두절되곤 했다.

그림 5-11 마을도로망, 1988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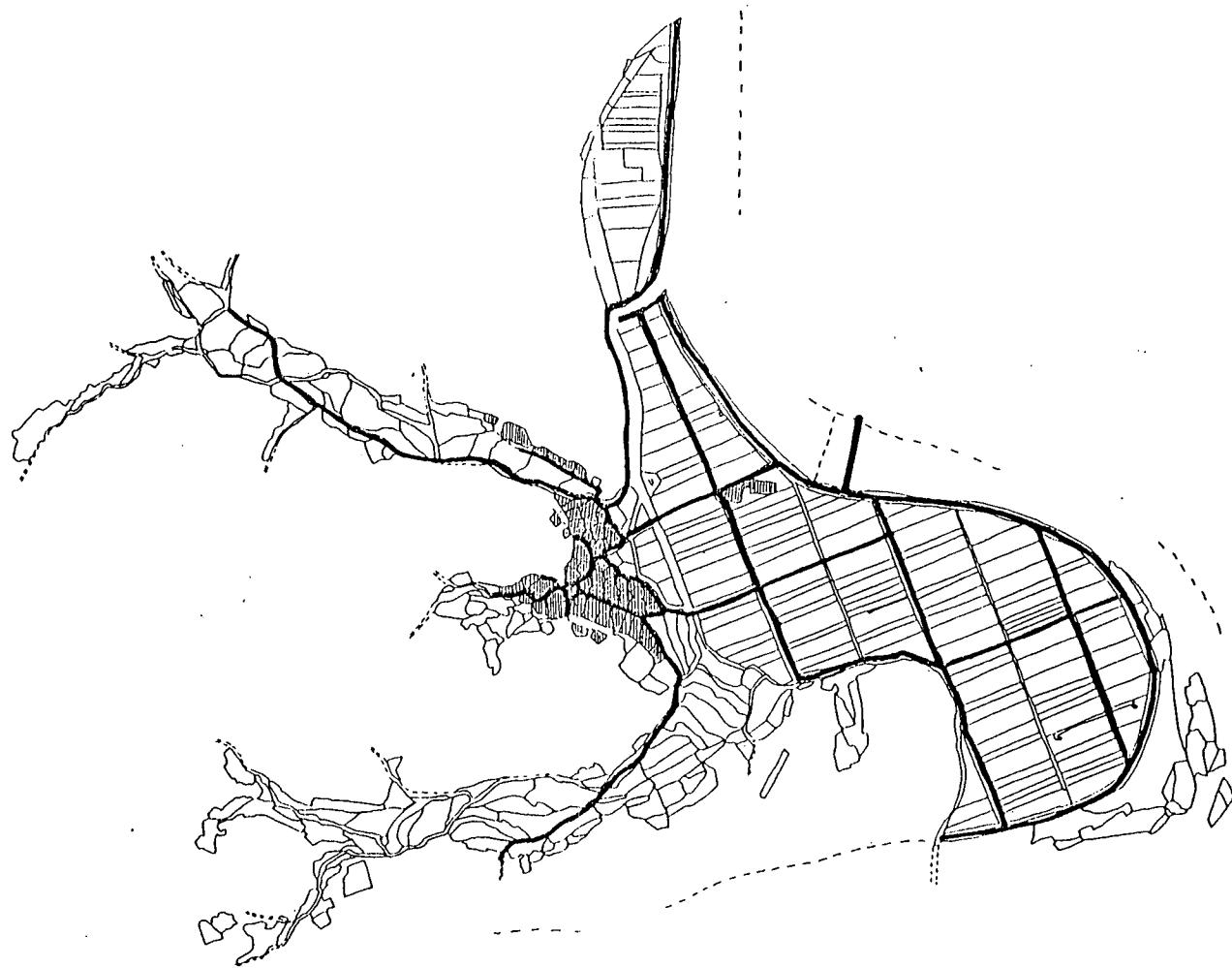


그림 5-12 마을도로망,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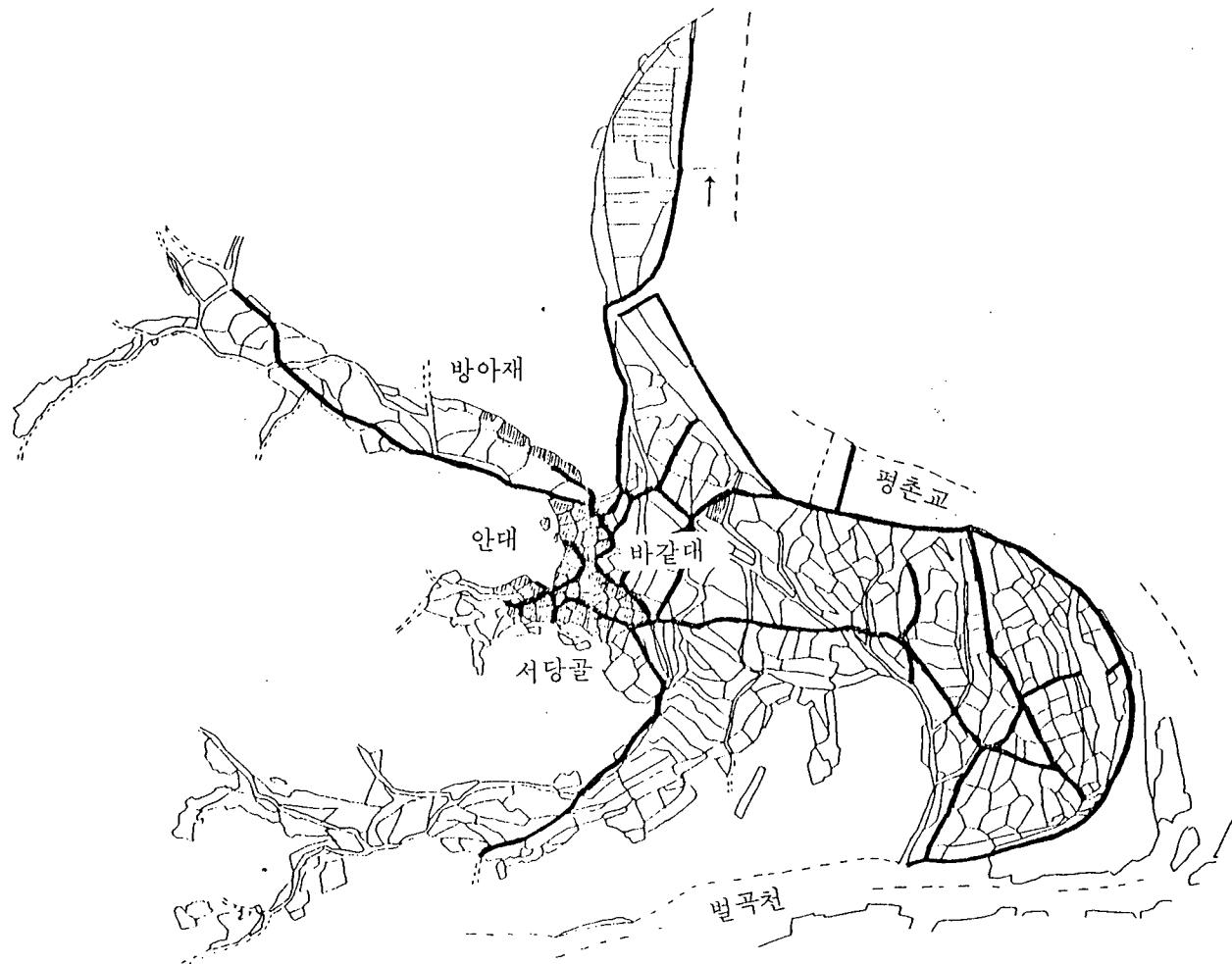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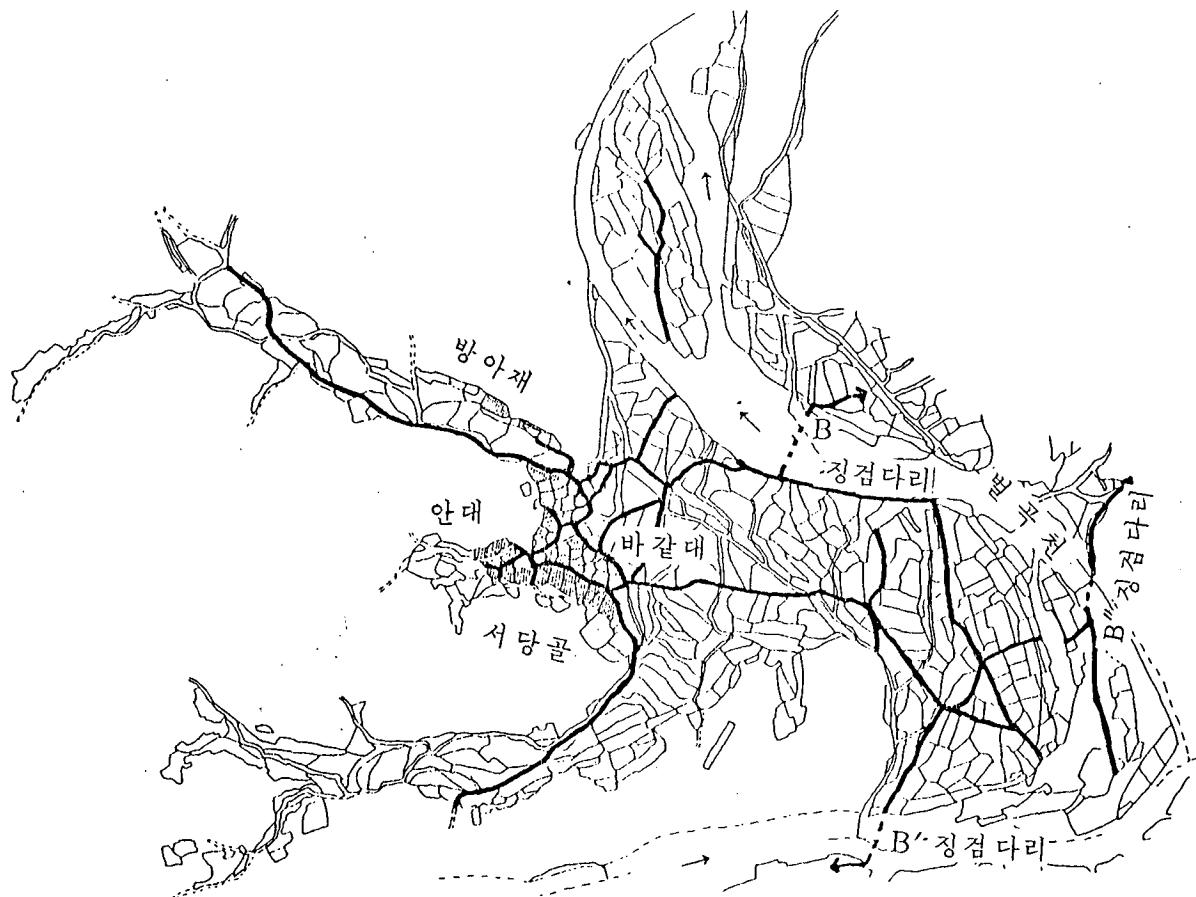


그림 5-13 마을도로망, 1930년대



밑으로 새롭게 개설되면서 징검다리 B는 사라졌고 PL 480에 의한 제방수축사업에 의해서 증촌마을 외곽도로 망은 <그림 5-12>와 같이 정비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착수된 사업은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 확장이었다. 기존 마을진입로는 도로 폭이 2~3m로 대형 운송수단의 통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4m 폭으로 확장하였다.

마을안길은 기존도로를 3m 폭으로 확장하고 일부 주택들의 도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안길을 연장 또는 신설하기도 했다.⁶⁾

1986/87년도에 실시된 경지정리 사업은 마을진입로와 농로체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첫째로 마을 진입로는 18번 가구앞에서 벌곡천을 향하여 곧게 개설되었다. 이제 까지 정자나무 밑을 돌아서 마을로 연결됐던 진입로가 18번 가구와 12번가구 및 제방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4m 폭으로 넓게 개설되었다. 한편 마을 진입로는 농경지로 진입하는 간선농로 역할도 함께 한다.

둘째로 경지정리에 따라 농로망이 전면 개편되었다. 모든 필지는 100×30m(900평 단위)의 표준규격으로 구획되었으나 농가의 경지소유 규모에 따라서 이를 300평 이상의 규모로 재구획하여 세분화하기도 했다.

농로는 새로 구획된 필지를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개설되었다. 그러나 마을내 농가에서 농경지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서 간선농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농가에서 농경지로 나갈 때에는 각각 P, P', P'', p''' 등의 지점을 통하여 각 필지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셋째로 용배수로 체계가 농로체계에 따라 개편됐다. 증촌별에서 간선용수로로 유입되는 용수는 농로를 따라 정비된 용수로를 통하여 각 필지에 관수하게 된다.

1986/87 경지정리 결과로 마을도로체계와 농로체계가 비교적 잘 조화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농로의 순환체계가 잘 짜여져 있다고 평가된다.

⑤ 상하수도

증촌마을의 간이상수도는 마을 뒷산중턱에 설치된 집수정에 물을 모은 다음 자연수 압식에 의해 각 가구로 송수한다. 이 간이상수도는 1982년에 정부로부터 150만원을

6) 마을안길의 확장개설과 농로개설에 토지를 회사한 사람들은 유성봉, 유병천, 유병수, 유병도, 유봉찬, 유일봉, 유병구, 유연봉, 유광봉씨 등이다.

그림 5-14 간이상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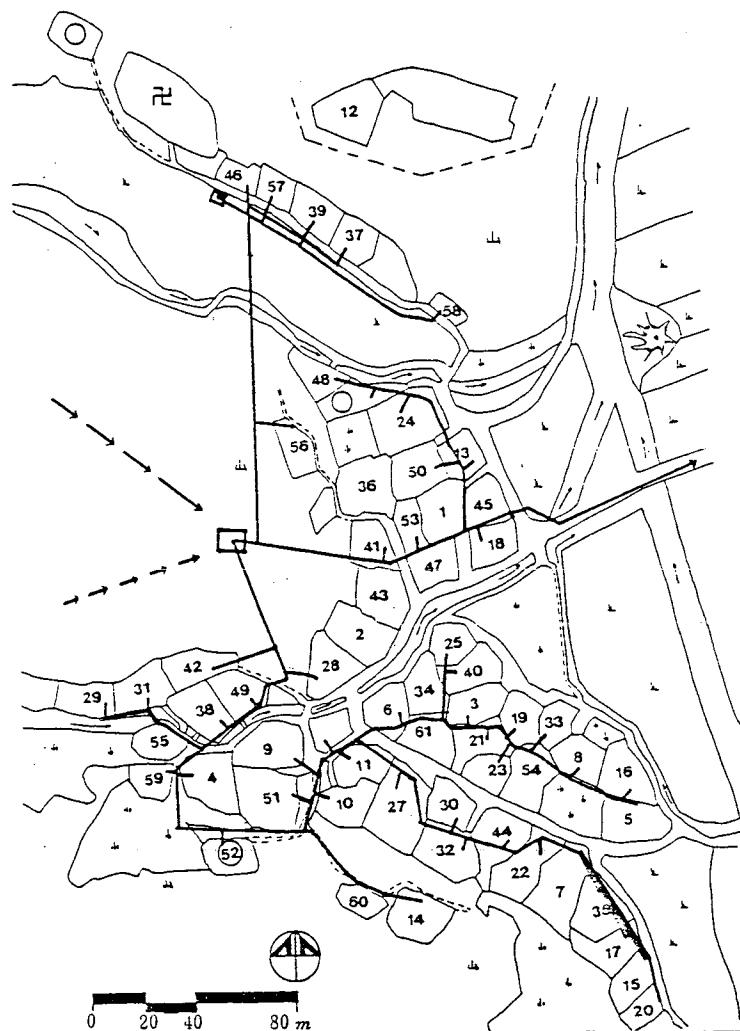


그림 5-15 하수도망, 1988



보조받아 주민이 자부담⁷⁾을 추가하여 설치했다.

1988년 현재 45호가 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아재의 4호는 별도의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안대, 바깥대, 서당골의 9호도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는 1975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 등을 지원받아 250m를 축조했다. 그러나 하수도 시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시멘트 도수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일 뿐 배출되는 하수를 일관된 체계에 의해서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능은 없다. 따라서 하수는 29개소로 분산 배출되어 마을앞 용수로와 하천을 통해 별곡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앞으로 가축사육 규모가 커지고 생활하수가 늘어날 경우 하수에 의한 하천 및 농업용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생활환경도 조악해 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마을 주택 밀집 지역의 일정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이 규제되고 일관된 체계에 의해 하수를 공동처리하는 농촌환경보존대책이 요망된다.

나. 생산공간

① 농경지의 분포

증촌마을의 농경지는 별곡천 유역과 방아재와 매통골 계곡의 소하천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별곡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증촌뜰은 별곡천의 범람에 의해서 토사가 쌓여왔기 때문에 <그림 5-18>와 같이 1950년대까지는 뜰 남단 대부분의 경지가 밭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범람에 의해 제방이 파괴되고 하상이 자주 바뀌어 넓은 하천부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와 같은 하상을 유지하게 된 것은 경오년(1930년)의 대홍수 이후라고 한다. 이때에 새뜰과 방아재사이로 흐르던 지류가 막히고 새뜰이 방아재 쪽 하안과 연결되어 평촌뜰로 편입되었으며 평촌뜰 남단의 제방과 농경지가 상당수 유실되었다.

경오년 대홍수 이후 유실된 제방과 바뀐 하상은 주민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정비

7) 자부담 내역은 수도꼭지당 15,000 원(2개일 경우는 20,000 원씩)과 노동력을 부담했다.

그림 5-16 농경지분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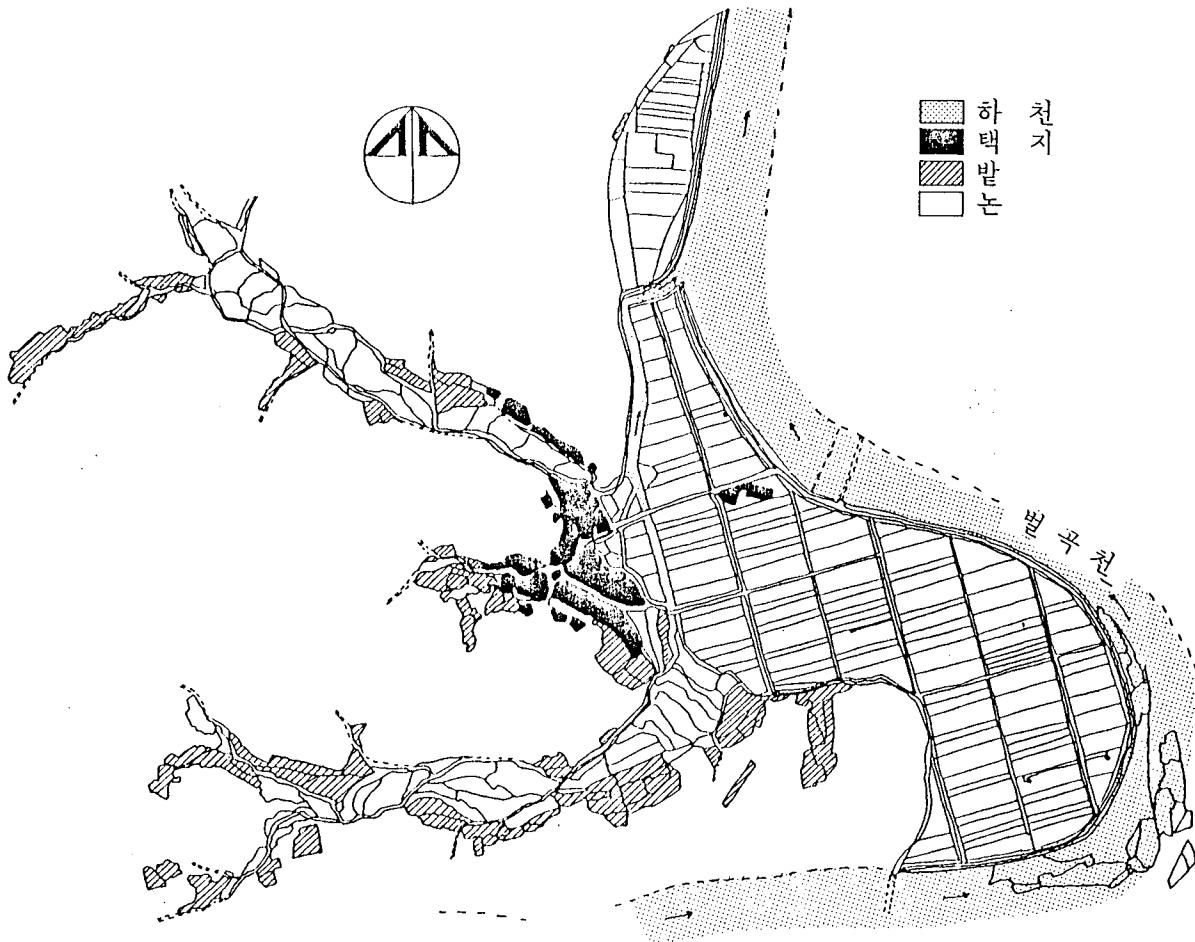


그림 5-17 농경지분포, 1985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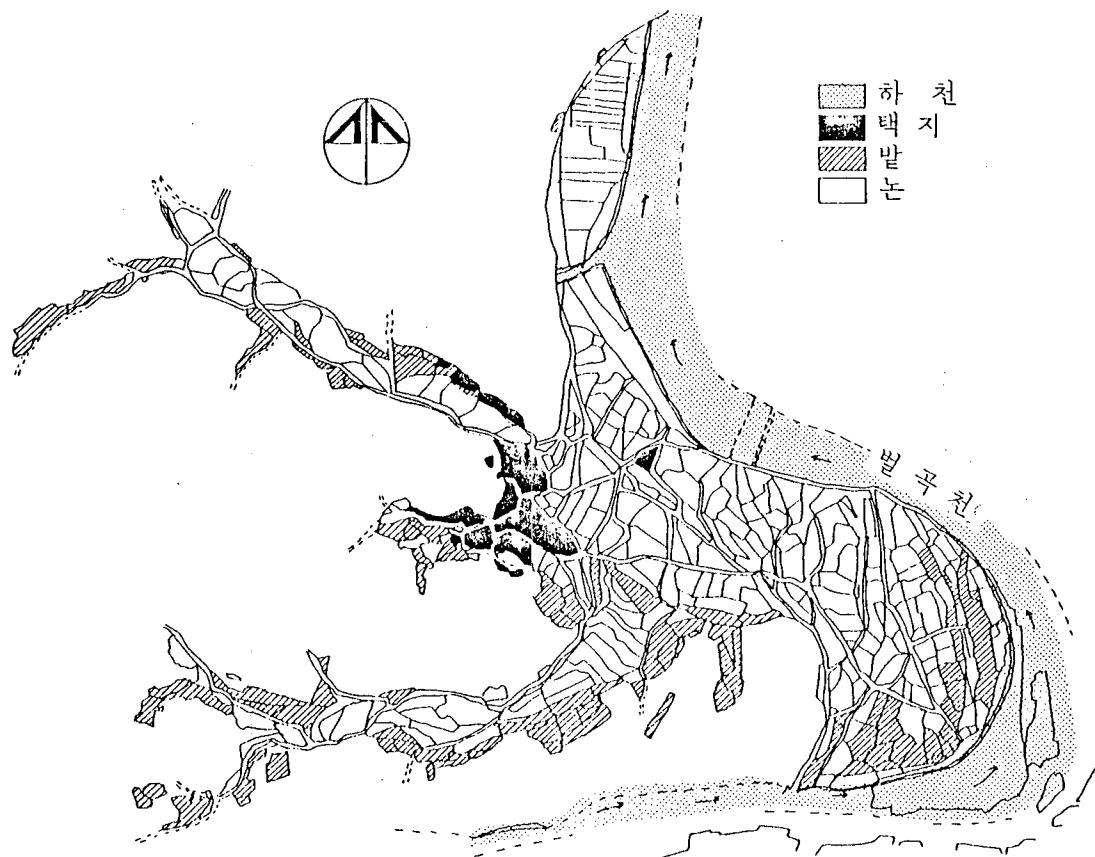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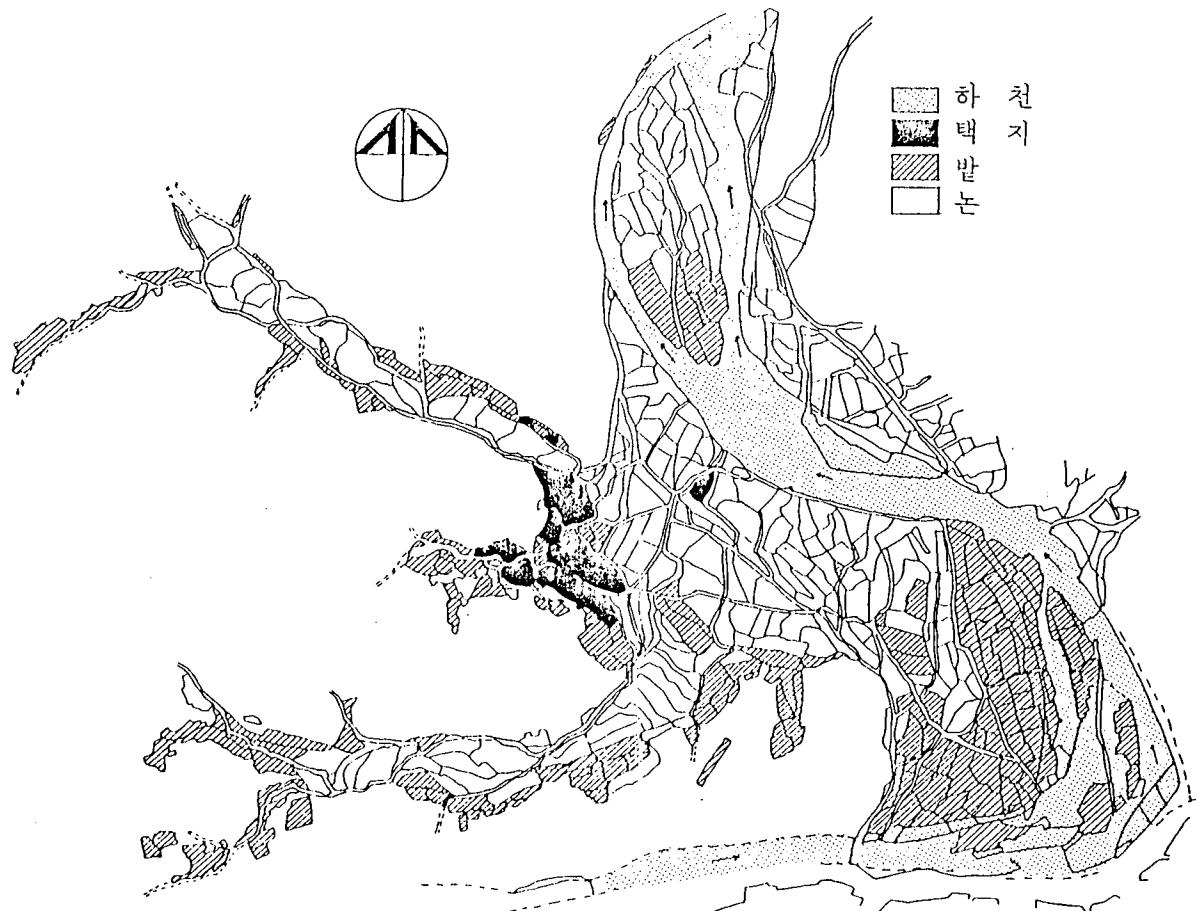


그림 5-18 농경지분포, 1930년대



되었지만 1950년대까지 방치되었다가 1960년대부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정비가 시작되었다.

별곡천의 제방이 완공되자 하천 범람은 크게 줄어들었고 증촌뜰 남단의 농경지에도 토사가 쌓이는 일이 사라지자 이 지역의 상당수 밭들이 논으로 개답되었다. 〈그림 5-16, 그림 5-17, 그림 5-18〉은 1930년대의 밭이 1986/87 경지정리 등을 통하여 개답되어 가는 과정을 시기별로 나타내 주고 있다.

방아재와 매통골은 계곡으로 흐르는 하천을 따라 농경지가 길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용수가 용이한 하천변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경사면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종교 문화공간

증촌마을은 씨족마을로서 조상에 대한 제례를 중시하고 있다. 무송 유씨 문중계에서는 炳字의 14대조에서부터 5대에 이르기까지 시제를 지낸다. 14~12대조는 흑석리와 오리에서 시제를 지내며 11대조 부터는 증촌마을에서 시제를 지낸다. 따라서 조상의 시제를 모시는 마을 뒷산은 이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종교 공간임과 동시에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 되고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또 자손들의 광영과 씨족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석물들로 치장하는데 많은 경비를 쏟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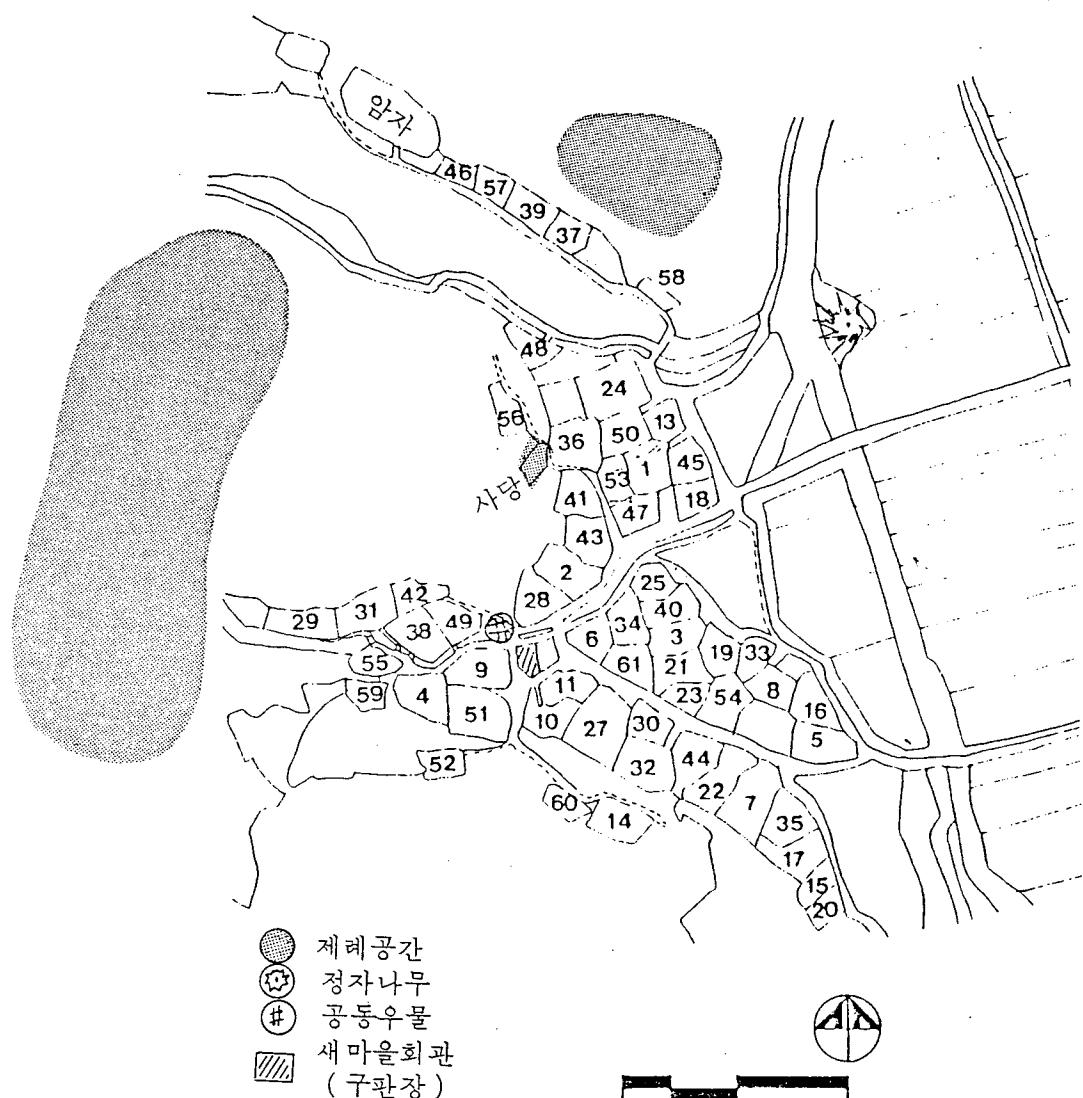
한편 시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친을 위하여 연중 배례할 수 있는 사당을 마을에 세우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 사당도 최근에 관리 소홀로 쇠락하여 사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증촌마을 유씨들에게는 마을 뒷산이 조상의 업적을 기리는 제례의 공간이면서 자신들의 유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 뒷산이 유씨의 종산으로 유씨의 씨족묘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촌마을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종교적 공간은 매통골 윗쪽에 자리 잡고 있는 화개사이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이 암자에 다니는 가구는 5~6호에 불과하지만 인근 마을에서 신도들이 불공드리러 오는 중요한 종교의 장이다. 이 암자에는 부처의 탄신일인 사월 초파일에 가장 많은 신도들이 모인다.

증촌마을에서 중요한 집회장으로 새마을회관과 정자나무를 들 수 있다. 새마을회관은 대부분 행정기관 등지에서 공식적으로 소집하는 회의장이 되는 것이 관례다. 영농

그림 5-19 종교문화공간, 1988



교육, 보건위생 교육 및 가족계획 상담, 육아교육, 육아예방주사실시 등의 행정기관 행사와 민방위 교육이나 반상회, 대동회 등 마을 자체행사들이 새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그러나 마을의 공식적인 행사도 여름 한철에는 대부분 정자나무 아래서 이루어진다. 여름철이면 정자나무는 마을주민들의 휴식처이고 담소장소가 된다.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마을 여론이 수렴되고 의사가 결집된다. 정자나무 아래는 대개의 경우 마을의 노년층과 중년층의 차지가 되지만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 장소는 행사 담당자들에게 양보된다.

한편 정초 등 명절때에 윷놀이, 풍물놀이 등이 마을회관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가구별 주요변화, 1985~88

부록 1

가구 번호	가구 성격	변동 내용	경 영 주				경 영 주 변 동 내 용	가구 원수				경 지 소 유 면 적 (평)				경 작 면 적 (평)									
			85	86	87	88		85	86	87	88	85	86	87	88	85	86	87	88						
			성 연 령	성 연 령	성 연 령	성 연 령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85	86	87	88	85	86	87	88						
1	1	1	1	1	1	1		1	52	1	53	1	54	1	55	2,11111111	2,326	2,326	2,182	526	400	2,949	2,805		
2	1	1	1	1	1	1		1	53	1	54	1	55	1	56	111111112	3,800	3,800	3,600	2,800	2,900	3,600	3,600		
3	1	1	1	1	1	1		1	35	1	36	1	37	1	38	222222221	1,000	1,000	1,248	1,248	4,200	3,300	2,548	2,158	
4	1	1	1	1	1	1	88년 영농중단	1	67	1	68	1	69	1	70	233333333	1,090	1,090	1,002	1,206	1,090	800	712	0	
5	1	1	1	1	1	1		1	83	1	84	1	85	1	86	222221111	1,800	1,800	1,745	1,745	2,000	2,000	1,945	1,945	
6	1	1	1	1	1	1	88년 이촌	1	52	1	53	1	54	1	55	111111111	1,200	1,300	1,300	1,300	1,300	1,400	1,400	1,400	
7	1	1	1	1	1	1		1	62	1	63	1	64	1	65	131311111	4,800	4,800	4,967	2,867	4,800	5,800	4,967	2,867	
8	1	1	1	1	1	1		1	62	1	63	1	64	1	65	252413133	1,900	1,900	1,821	300	1,900	1,900	2,121	1,521	
9	1	1	1	1	1	1		1	67	1	68	1	69	1	70	112122111	2,574	2,574	2,581	2,581	2,574	2,574	2,581	2,581	
10	1	1	1	1	1	1		1	69	1	70	1	71	1	72	321211111	.900	.900	.900	.900	2,400	3,500	3,500	900	
11	1	1	1	1	1	1		1	62	1	63	1	64	1	65	323232323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12	1	1	1	1	1	1	86년 영농중단	1	60	1	61	1	62	1	63	414141413	1,500	1,500	1,500	1,500	1,740	1,740	1,740	2,840	
13	1	6	6	6	6	6		1	74	1	75	1	76	1	77	211111111	0	0	0	0	0	0	0	0	
14	1	1	1	1	1	1		1	44	1	45	1	46	1	47	323232323	0	0	0	0	0	0	0	0	
15	1	1	1	1	1	1		1	37	1	38	1	39	1	40	323233323	600	600	723	723	600	600	700	1,423	
16	1	1	1	1	1	1		1	52	1	53	1	54	1	55	121121212	0	0	0	0	1,600	1,600	1,600	1,600	
17	1	1	1	1	1	1		1	47	1	48	1	49	1	50	242424233	326	326	420	420	1,426	1,026	1,420	920	
18	1	1	1	1	1	1		1	61	1	62	1	63	1	64	445323323	400	400	400	400	1,400	1,700	1,900	1,620	
19	1	1	1	1	1	1		1	50	1	51	1	52	1	53	222333232	300	300	303	303	2,100	1,903	1,903	1,903	
20	1	1	1	1	1	1		1	44	1	45	1	46	1	47	323234233	1,000	1,000	1,000	1,000	2,000	3,100	3,700	3,700	
21	1	1	1	1	1	1		1	46	1	47	1	48	1	49	424242413	1,080	1,080	1,180	1,180	1,080	1,280	1,380	1,380	
22	1	1	1	1	1	1	88년 영농중단	1	64	1	65	1	66	1	67	212121111	0	0	0	0	600	600	600	100	
23	1	1	1	1	1	1		1	38	1	39	1	40	1	41	323131313	600	600	600	600	2,900	2,800	2,719	2,319	
24	1	1	1	1	1	1		1	53	1	54	1	55	1	56	323131312	600	600	600	600	2,300	2,700	2,700	3,200	
25	1	1	1	1	1	1		1	60	1	61	1	62	1	63	111111111	1,500	1,500	1,468	1,468	1,500	1,700	1,468	1,568	
26	1	1	1	1	1	1	86년 이촌	1	31							13	1,300				2,100				
27	1	1	1	1	1	1		1	73	1	74	1	75	1	76	121212121	2,100	2,100	2,000	2,000	2,100	2,100	2,150	2,150	
28	1	1	1	1	1	1		1	51	1	52	1	53	1	54	233232233	1,739	1,739	1,949	1,949	1,739	3,039	3,249	3,249	
29	1	1	1	1	1	1		1	50	1	51	1	52	1	53	412121213	1,914	1,914	1,914	1,914	1,914	1,914	1,914	1,914	
30	1	1	1	1	1	1		1	37	1	38	1	39	1	40	313131313	2,800	2,800	3,002	3,002	3,000	2,800	3,002	2,739	
31	1	1	1	1	1	1	88년 영농중단	2	58	2	59	2	60	2	61	313131312	0	0	0	0	1,300	1,300	300	0	
32	1	1	1	1	1	1		2	58	2	59	2	60	2	61	1740	1,740	895	895	1,740	1,740	0	0		
33	1	1	1	1	1	1		1	59	1	60	2	55	2	56	87 경영주사망, 부인승계	1,740	1,740	895	895	1,740	1,740	0	0	
34	1	1	1	1	1	1		1	69	1	70	1	71	1	72	111111111	1,270	1,270	1,284	1,284	1,370	1,270	1,284	1,384	
35	1	1	1	1	1	1		1	49	1	50	1	51	1	52	242222222	1,800	1,800	1,738	1,738	3,200	2,900	2,838	5,838	
36	1	1	1	1	1	1		1	69	1	70	1	71	1	72	112121111	2,400	2,400	2,052	2,052	2,400	2,600	2,052	1,783	
37	1	1	1	1	1	1		1	38	1	39	1	40	1	41	424242424	1,000	1,000	766	766	2,200	2,000	1,766	1,966	
38	1	1	1	1	1	1		1	62	1	63	1	64	1	65	111111111	2,494	2,494	2,394	2,394	2,494	2,494	2,394	3,544	
39	1	1	1	1	1	1		1	34	1	35	1	36	1	37	132222222	1,400	1,400	1,500	1,500	2,000	1,850	1,950	300	
40	1	1	1	1	1	1		1	53	1	54	1	55	1	56	122222222	1,100	1,100	1,092	1,092	2,200	2,200	2,031	2,031	
41	1	1	1	1	1	1		1	33	1	34	1	35	1	36	133432424	400	400	445	445	600	400	445	845	
42	1	1	1	1	1	1		1	66	2	67	1	68	1	69	1101010101	1,900	1,900	700	700	2,700	0	0	0	
43	1	2	2	2	2	2	2	86년 영농중단	1	59	2	55	2	56	2	57	402424242	400	400	400	400	2,710	2,060	2,060	2,060
44	1	1	1	1	1	1		1	47	2	48	1	49	1	50	0101010101	800	800	945	945	300	0	0	0	
45	1	2	2	2	2	2	2	86년 영농중단	2	66	1	67	2	68	2	69	333333233	357	2,357	2,234	1,650	2,357	2,357	2,234	1,650
46	1	1	1	1	1	1		1	34	1	35	1	36	1	37	2222212121	005	1,005	980	980	1,205	1,005	1,440	1,540	
47	1	1	1	1	1	1	88년 이촌	1	57	2	58	1	59	1	60	1101010101	0	0	0	0	200	200	300	0	
48	3	6	1	1	1	1		2	56	2	57	2	58	2	59	1111111111	005	1,005	980	980	1,205	1,005	1,440	1,540	
49	2	2	6	1	1	1		2	78	1	79	2	80	2	81	1111111111	1,500	1,500	500	500	200	200	300	500	
50	1	1	4	1	1	1		1	34	2	35	1	36	1	37	2323232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51	4	6	4	6	1	1		2	71	2	72	2	73	2	74	0101010101	0	0	0	0	100	100	100	0	
52	6	3	*	87년 이촌	1	15	2	45	2	61	2	62	2	63	2	64	1213	0	0	0	0	0	0	0	0
53	2	1	1	2	2			2	61	2	62	2	63	2	64	0101010101	722	722	886	886	200	922	1,086	0	
54	2	1	6	6	6			2	70	1	71	2	72	2	73	0101010101	800	800	0	0	1,600	200	200	0	
55	4	4	4	4	4			1	40	1	41	1	42	1	43	232323232	0	0	0	0	0	0	0	0	
56	6	6	6	6	6			1	34	2	35	1	36	1	37	111111110	0	0	0	0	0	0	0	0	
57	3	3	3	4	4			2	48	2	49	2	50	2	51	232322222	0	0	0	0	0	0	0	0	
58	6	6	6	6	6			2	68	1	69	2	70	2	71	0101010101	0	0	0	0	0	0	0	0	
59	*	4	4	4	4			1	37	1	38	1	39	1	40	333									

2. 1945~84기간중 전입 및 분가자 현황

구분	연도	성명	전입 당시직업	경지소유규모	전입사유	현재 거주여부
전 입	1951	이봉식	농업	무	마을에서 결혼, 소작 농으로 정착	57번가구(본인사망)
	1953	유상문	농업노동	"	6.25 피난	1963년도 사망
		박범용		"	6.25 피난	1965 평촌 2리로 전출
	1955	유동영	농업	"	소작	1960 대전으로 전출
	1958	심재덕	무	"	모친의 재혼으로 정착	15번가구
		정복천	농업	무	유씨종종토 소작	1972 대전으로 전출
	1960	오장복	"	무		1964 인천으로 전출
		김태수	"	"	전씨종종토 소작	1964 전출
	1961	유사봉	정미소	"	정미소 경영을 위해 오리에서 전입	12번가구
	1962	전종태	"	소작	전씨종토관리	10번가구
	1964	이우근	"	"	유씨종종토 소작	1969 전출
		김○○	"	"	"	1969 전출
	1967	박성기	유선방송사	무	유선방송경영	14번가구
	1975	유태봉	농업	"	유씨종종토 소작	32번가구
		유병구	농업	1,000	오리에서 분가	3번가구
	1984	이승로	농업	무	유씨종종토 소작	1987 대전으로 전출
분 가	1962	유병삼		300		19번가구
		유근봉	농업	600		1988 서울로 전출
	1967	유병채	농업	400		본인 1981년 사망, 부친 은 수원으로 전출(1987)
	1977	유양봉	농업	200		37번가구
	1977	유양봉	농업	무		55번가구
	1980	곽종현	비농업			

3. 1945~84기간중 전출자 현황

연 도	성 명	직 업	경지소유규모	전 출 사 유	전 출 지
1946	유석봉	농업노동	무	운수노동자	대전
1955	유순봉	농업	500	구명가게운영	대전
1957	유고봉	"	600	"	
1957	전우양	"	1,500	단순이주	평촌 2리
1960	유동영	"	무	미상	대전
1962	유낙봉	"	600	기와청부업	대전
1964	오장복	"	무	부채관계로 도주	인천
	김태수	"	무	미상	대전
1965	박범용	농업노동	무	거주이전	평촌 2리
1967	정광석	농업	3,500	단순이주	논산
	유문봉	농업노동	무	아들과 합류(상업)	대전
	유규봉	농업	900	직장(교사)따라 이주	대전
1969	이우근	"	무	미상	대전
	김○○	"	무	"	대전
1972	김용기	"	2,200	건축업	대전
	정복천	"	무	미상	대전
1978	전우창	"	2,100	도료상 종사원	대전
1980	유병근	"	무	거주이전	오리
	유창봉	"	무	재단사 취업	대전
1982	유병조	"	무	가구주사망, 자녀들의 대전취업에 따라 전출	대전
1984	유정봉	"	1,400	전화국 취업	대전

부록 2

사회집단의 규약

① 爲親契規

1. 본계는 위친계라 칭한다.
2. 본계는 정치 또는 정치성을 띠운 단체에 관계없이 爲親事에 한하여 진심으로 실행한다.
3. 계원 1인당 백미 1두씩 創契資金으로 제공하고, 명년 契時에 白米 1斗 재차 제공한다.
4. 계원 1인당 葬事 1회에 한하여 保佐키로 한다.
5. 1회 葬事에 탁주大斗 9斗 또는 상기에 해당하는 金額을 葬家에 제공한다.
6. 創契時로부터 2년내에 葬事が 有할 때는 각 계원들로부터 收捧하여 保佐한다.
7. 創契後 2年이 경과시는 本穀의 利子로 保佐키로 한다.
8. 본계에 收穀된 白米는 년중 有司로 하여금 년 5 할에 借貸에 협력한다.
9. 유사는 白米 借貸時에 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한다.
11. 본계의 계일은 매년 10月 15日로 정한다.
12. 만약 탈계시는 계자금에 하등의 관계가 無하며 또 保佐를 得한 者는 保佐에 대한 배상금을 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任員名單 契長 유동정

副契長 유동선

總務 유규봉

戊戌年(1958) 12月 18日

② 爲親契 規約

1. 保佐는 1回 葬事時에 탁주 大斗五斗整을 保佐基로 한다.
1. 本契의 契員이 保佐를 득한 후 脱契時에는 保佐額의 倍를 보상한다.
1. 本契의 契員은 拾九座로 정하고 이후의 가입자는 불가하다.
1. 本契의 契員은 保佐者 중 葬時 本洞의 葬事時는 전원 참석하고 外地의 葬事時는 契員중 2인이상 참석키로 한다.
1. 本契의 契米는 白米 參拾斗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현재는 拾斗)
1. 有喪事時 保佐額은 本契金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契員으로 부터 加收하여 보상 키로 한다.
1. 本의 契員이 연 3회 불참시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제명 탈계 한다.

以上 契則은 全契員의 참석하에 작성하여 지지할 것을 믿고 以書名함.

1971 契長 유증봉

부칙 (1977년도)

1. 契員이 死亡時 탁주 대두 五斗를 보상키로 정한다.
1. 契員 死亡時는 자동 탈계와 동시 非保償時는 被保償者에 대한 葬事時 保償만을 保償키로 한다.

③ 爲親契(一名喪布契)則

1. 契名稱은 爲親契라 標함.
1. 契의 資金은 白米 1斗씩 出資함.
1. 契穀이 부족한 시는 收穀하여 充當키로 함,
1. 契員이 葬事時 白米 拾斗씩 保佐키로 함.
1. 上記 契則을 위반할 시는 출자를 無効로 하고 脱契키로 함
1. 만약 保佐를 타고 脱契코자 하는 자는 保佐米를 배상키로 함.

1953年 10月

契長 박덕음

總務 한복교

4 慶事親睦 契規

1. 出資金은 1人當 白米 1斗씩 한다.
1. 保佐는 1回에 한하여 白米 1石로 한다.
1. 保佐는 契員 希望에 따라 결혼 환갑時에 지불한다.
1. 出資金은 전체 契員이 돌아가며 有司를 담당하여 늘린다.
1. 契資金이 增殖되기 전에 保佐를 할 때에는 契員으로부터 거출한다.
1. 保佐米는 上品(아끼바레)으로 한다.
1. 契에 빠지는 날은 5,000 원을 월금으로 징수한다.

1983 年

契長 유정옥

M 15-11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1]

近郊마을의 社會經濟構造

- 大田市 杞城洞 增村마을 事例 -

1989年 12月

發行人 金 荣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花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